

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지원
「2003년 환경교육 해외연수」

체험 환경교육의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해외연수

(体験環境教育の世代間の統合プログラム運営のための海外研修)



분당환경시민의모임

Citizens Alliance for Environment of Bundang

(463-811)京畿道 城南市 盆唐區 野塔洞 285-8

☎82-31-702-5610·fax82-31-709-8387

— 차례 —

1. 연수목적	3
2. 연수일정	4
3. 연수인원	8
4. 연수내용	9
방문지 1. 소화공원	10
방문지 2. 일출태양의 집	11
방문지 3. 사노 타다시의 집	17
방문지 4. 나가이게 공원	19
방문지 5. 지구환경파트너쉽 플라자	23
방문지 6. 국립과학박물관	26
방문지 7. 요코하마 마이오카 공원	31
방문지 8. 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	35
방문지 9. 자연교육원	39
방문지 10. 일본국제 워크 캠프 센터 (N I C E)	43
방문지 11. 일본 환경교육 포럼 (JEEF)	45
방문지 12.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CONE)	52
방문지 13.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SHU)	55
방문지 14. 동경만 야조공원	60
5. 일본의 체험환경교육	67
6. 세대통합형 체험환경교육	69
7. 자연학교 적용프로그램	72
8. 연수 평가	79
9. 회의록	83
10. 연수후기(일기)	89

1. 연수목적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1970년대 공해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 80년대 인지적 영역의 지식중심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90년대에 인지적 영역과 함께 정의적 영역이 강조되면서 특히,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험환경교육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의 체험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충격요법식 전략과 지식 중심의 방법론을 꾸준히 비판해 온 환경교육 전문가들의 노력과 환경캠프라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착수한 민간 환경단체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1990년대 초반 환경교육 연구자들은 주로 대중매체에서 흔히 사용되어 온 충격요법식 교육에 의해 초래된 자연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이라는 부작용을 극복할 필요성과, 공존과 보존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에 심리적 친밀감과 관심을 먼저 높여야 한다는 반성에서 체험환경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민간 환경단체에서 다양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민간 환경단체가 그 동안 이슈중심의 환경운동에서 회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 환경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환경인식의 지속적인 확산에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환경교육의 저변확대와 함께 이제는 학교와 사회환경교육 모두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 5일제 근무의 확산과 건강한 여가 문화에 대한 요구 증대와 함께 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년 보고서에 의하면 자연체험 중심의 여가활동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새로운 여행, 관광에 대한 인식변화가 잠재적인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을 중요시하는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관심과 함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체험환경교육에 대한 잠재수요의 증가추세는 앞으로 환경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예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이고 신중한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2022년에 60세 이상의 인구가 14%(전체인구의 1/6 차지)로 급속하게 늘어나 노령화 사회가 촉진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에 대한 역할의 강조와 사회참여의 증가 및 평생교육기회의 확대라는 교육정책의 변화 등은 체험환경교육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다양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분당환경시민의 모임은 1994년부터 성남지역내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맹산지역을 보전함과 동시에 자연, 역사문화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각계각층의 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환경학교, 청소년 환경학교, 자연체험 활동가 양성교육, 가족단위 및 단체 환경학교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는 그동안 쟁점(issue)중심의 환경운동에서 벗어나 지역을 기반으로 자연환경 보전활동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교육중심의 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참여활동을 도입하여 우수 환경교육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벤트적인 환경교육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교사들과 연계하여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동안의 환경교육이 자연체험형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여왔다. 맹산반딧불

이자연학교의 경우에는 반딧불이서식처복원사업의 일환으로 논 조성사업을 진행하여왔지만 단순한 서식처 복원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전통체험놀이복원활동, 떡거리 보존 운동등을 환경교육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대보름맞이 행사와 논 모내기, 추수, 지붕엮기 행사를 일회성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 모델이 될 수 있는 일본의 나가이계공원, 요코하마 마이오카공원을 방문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면서 환경보전활동을 접목하는 환경교육의 새로운 장에 접근하려는 고민을 하고자한다.

일본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노인층을 포함하는 여러계층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지원자들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령화 추세와 조기정년으로 노인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의 창업과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 워크캠프 일본지원자의 연령분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경우에는 노인층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이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배경과 자연학교에서 시민참여형 노인층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운영방안을 직접 체험하고자한다.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체험환경교육을 통해 세대간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양을 경험을 가진 시니어(노인)들의 체험환경교육 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일본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수가 계획되었다.

이번 일본연수에서는 환경교육활동을 지원하는 NGO 단체방문 및 네트워크의 현황 및 지원체제과약을 위해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일본의 환경교육 네트워크단체를 방문하고자한다. 지속적인 지역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일찍부터 진행하고 있는 일본의 선진사례의 학습뿐만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방향모색을 위하여 그동안 함께 운영해온 전문교수진, 자연체험안내자, 환경교육교사모임대표가 함께 일본 동경에서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와 유사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자연학교와 일본내의 마을 중심으로 환경교육활동을 하는 NGO 단체를 방문하여 그동안 축적된 정보들을 공유하며 환경생태교육의 교류의 발판을 삼고자 한다.

또한 동경주변의 분당과 유사한 계획된 신도시인 요코하마시의 공원과 하찌오지시의 나가이계공원을 탐방하여 공원운영현황과 자원활동가의 활동사례등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환경체험 학습공간, 체험학습프로그램을 비교하며 그동안의 환경교육을 재평가하고 발전적인 방향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수일정

1) 환경교육 관련 일본연수지 선정

처음 연수를 계획할 당시에는 떡갈나무산 자연공원(마찌다), 노야토 팬클럽(온다), 마을지역 네트워크 (미나미구 니시진바시)가 있었지만 주요 방문지에서 동선을 고려하여 이동소요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에 일본 동경의 외곽에 분당과 유사한 신도시의 생태교육시설이 양호하며 자원봉사자에 의한 생태 탐방 프로그램이 양호한 지역을 추천 받아 나가이계공원, 지구환경파트너쉽 플라자, 요코하마 자연관찰 숲, 요코하마 마이오카 공원, 자연교육원, 동경만 야조공원을 연수지에 추가하게 되었다.

[연수지 결정에 도움을 준 분들]

·자연학교를 방문하였던 일본방문객 추천

Kobayashi Kazuhiko-국제 NGO 활동가, 맹산 국제워크캠프 참가

* 추천 및 섭의 *

일출태양의집, 니시다마포럼, NICE, JEEF

다케다(武田)- 나라여자대학교 대학원, 지역사회학 전공

1) 물과 문화 연구회(<http://koayu.eri.co.jp/Mizubun/>),

2) 가모노 코우겐 클럽(蒲生野考現클럽)

<http://moon.edogawa-u.ac.jp/ashita/Card/SIGA/25030.HTM>

·국제워크캠프기구(IWO)

일본내 워크캠프장소를 중심으로 추천

Kobayashi님과 Yoshie Shitomi님 연락지원

일본국제워크캠프기구(NICE)연결

·국내 연구자추천

김선희- 하찌오지시(八王子市)나카이게공원(長池公園)과

요코하마시(横浜市) 도쓰카(戸塚) 구 마이오카 공원

- 추천사유-

* 마이오카(舞剛)공원-마을 숲을 시민참여에 의해 관리 운영하고 있음

* 나카이게공원안에 있는 비지터센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환경개선과 보전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러한 주민활동의 장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건전한 지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 하는 사례지로 비지터센터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자 활동의 장임

* 두 지역이 분당에서의 활동에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것이라고 강력추천

이선경- JEEF등 환경교육 관련단체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심,

2) 연수 준비

내 용		일 정	세부일정
연수 계획	연수계획	4월	연수계획 및 연수지조사정리(참고자료: 일본 동경 npo 자료 및 사례집)
	연수지원확정	5/28	해외연수 지원 결정, 연수세부계획, 연수단 선정, 연수단 회의
	연수단 회의	5월31일 2시	일정조정 , 역할분담, 사전 방문지 조사작업, 확정된 연수지 연구
		7월30일 4시	일정통보 , 진행사항 보고, 연수지 연구 및 토의 , 담당 업무 확인, 여권, 비자 서류확인
		8월11일 5시	비상연락처(일본현지숙소, 로밍서비스 핸드폰) 가족에게 알리기 자료집, 이름표, 준비물 확인,
	연수일정 조 정회의	6월6일	연수일정에 신도시 공원추가
		7월4일	일본연수지 관련 회의 :오봄축제(8/10-8/15) 관련 일정 조정불가피
		7월18일	일정수정모임
		7월27일	연수세부일정변경사항 / 연수단체 확정, 연락확인 / 숙소확정
			7월28일
연수준비	7/29~8/11	연수지 협조공문발송, 체험활동 참가신청 항공권예매, 여권·비자 발급, 일본내 교통예약, 숙소예약 연수자료집, 이름표 ,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3) 자료수집 및 연수지 연구 역할분담

	웹사이트	담당자	역할분담
일출 태양의집	www.taiyonoie.org 한국인자원활동가 : 002-81- 425-97-5433	최영주	숙소문의/ 활동사항정리
니시다마 자연 forum	http://members.jcom.home.ne.jp/0717919001/	김수연	내용정리/질문지
나가이계공원	www.pompoco.or.jp/ www.natsuzora.com/may/park/nagaike.html www.pompoco.or.jp/shizenkan/left.htm	김은영	내용정리/ 활동사항정리
지구환경 파트너쉽 플라자	www.geic.or.jp/geic/	최영주	내용정리
요코하마 자연관찰 숲	www.be.wakwak.com/~wbsjsc/141/141eve.html		내용정리/ 활동사항정리
요코하마 마이오카 공원	www.city.yokohama.jp/me/green/keikaku/kouen022.html http://member.nifty.ne.jp/hiro-tsu/maioka.html www.ny.airnet.ne.jp/k_sinrin/inst/page/chishi/maioka/maioka.html www.geocities.co.jp/HeartLand-Keyaki/5807/maioka_p.html	안미숙	내용정리/ 활동사항정리
자연교육원	www.ins.kahaku.go.jp/	김택윤	내용정리
동경만 야조공원	www.tptc.or.jp/park/yacho/y_top.htm	정병준	내용정리
JEEF	http://www.jeef.or.jp	김인호	내용정리/질문지 환경교육현황
자연체험활동 추진협의회	www.cone.ne.jp	김인호	내용정리/질문지 환경교육현황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	http://shu.m78.com/	김인호	내용정리/질문지 자격제도문의 *
NICE 일본국제 워크캠프센터	http://nice1.gr.jp	김경희	질문지
신주쿠 교엔 공원	www.shinjukugyoen.go.jp/	박선미	내용정리

연수지 연구

- ① 일본 웹사이트 번역프로그램사용 담당자가 기본 정보를 정리
- ② 정리된 자료공유 : 인터넷 (<http://home.freechal.com/BandiRrang/>)에 자료를 올려서
함께 보고 방문하기전에 장소에 대한 이해
- ③ 연구모임 : 역할분담(5/31),
연수일정 및 확정된 연구지 확인(7/30)
최종 연수지 확인(8/11)

4) 연수일정

일정	세부일정		숙소
	계획일정	연수결과	
8/13(수)	일출태양의집, 니시다마 자연 forum 간담회	일출태양의집 ,소화공원 니시다마 자연 forum 회장님만남	일출태양의집
8/14(목)	나카이케공원	나카이케공원	올림픽 청소년회관
8/15(금)	지구환경파트너 쉽 플라자	지구환경파트너 쉽 플라자 국립과학박물관	
8/16(토)	요코하마 자연관찰 숲 마이오카 공원	요코하마 자연관찰 숲 마이오카 공원	
8/17(일)	자연교육원,동경만 야조공원	자연교육원, 숙소이동	신주쿠 민박
8/18(월)	신주쿠교엔(NICE와 점심) JEEF방문,CONE	NICE와 점심,JEEF방문,CONE	
8/19(화)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 동경만 야조공원	
8/20(수)	나리다 공항출발 ·인천 국제 공항 도착		

5) 연수지 연락 및 관련자 섭외를 하면서

연수지가 정해지고 연수지의 실무자와 연락을 하고 일정을 잡는 것이 연수에서 가장 힘들고 중요한 일이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하고 일정을 조정했었는데 일본의 최대명절이 오봄절 관계로 단체와 자연학교의 방문이 힘들어서 몇 번의 일정조정을 하였으며 단체별로 방문이 어려운 날들을 고려하여 섭외되어 일정에 넣은 후에도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부분에서 Kobayashi님과 Yoshie Shitomi님과 통역을 맡아준 김미라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으며 이들의 도움과 관심으로 이번 연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의 담당자들이 성실하게 저희를 맞이하고 저희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전해주고자 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심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연수의도와 목적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을 중간 연락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며 연수지마다 반갑게 맞이하는 담당자가 있어서 많은 인원이 참가한 연수임에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될 수 있었다.

연수후 일본연수지에 방문시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감사메일을 보냈으며 많은 방문자들이 있었을 텐데 담당자가 우리를 기억하며 답신을 보내주었다. 특히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연수자체로 단체가 얻는 것 뿐 아니라 방문단체에 어떠한 이미지를 남기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연수인원

연수목적에 따라

관리자(사무국,통역), 환경교육 연구자, 환경교육네트워크, 자연학교원활동가, 자연학교 회원어린이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성명	소속, 직책	역할분담
정병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공동대표	총괄팀장
김경희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무국장	전체 기록 정리
최영주	분당환경시민의모임 간사	카메라 촬영
김인호	신구대학 환경조경과 교수	자료연구 및 수집
김택윤	수내고등학교 교감	자료연구 및 수집
김은영	맹산자연학교 자원활동가	자료수집, 단체자료준비
안미숙	맹산자연학교 자원활동가	자료수집, 생태안내자 자료
김수연	맹산자연학교 자원활동가	기록, 환경교육 활동자료
오오노 미호코	맹산자연학교 자원활동가	통역(19일,20일 2일간 합류)
박선미	안산 YMCA 사무간사	기록, 환경교육 네트워크 자료
김미라	생태보전시민의모임 활동가	통역
Yoshie Shitomi	일본 NICE자원봉사활동가	통역(17일,18일 2일간 합류)
조자현	맹산자연학교 수호천사단	자연학교 프로그램 교류 담당
이상익	맹산자연학교 수호천사단	자연학교 프로그램 교류 담당
이한솔	맹산자연학교 수호천사단	자연학교 프로그램 교류 담당
엄태호	맹산자연학교 수호천사단	자연학교 프로그램 교류 담당



4. 연수내용

이번 일본연수는 크게 자원활동가 사례연구를 위한 연수지와 환경교육 네트워크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환경교육활동을 지원하는 NGO 단체방문으로 나눌 수 있다.

방문지에 대하여 일정별로 사전조사자료, 방문지 탐방자료, 탐방후기 및 관련자료 형식으로 정리한다.

첫째날 (8월 13일 , 수요일)

[일정]

11:30 인천국제공항 출발
13:30 나리타 공항도착
15:00 버스승차
16:20 소화공원도착
17:10 소화공원출발
18:30 일출태양의집(日の出太陽の家, Hinode taiyo no ie) 도착
21:00 니시다마 포럼 (쿠보티 님) 만남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일출태양의집을 찾아가는것으로 계획하였다.

기차(1h) JR(1h) 지하철(1h30) TAXI(걸어서 1h)

인천국제 공항출국→ 나리타 공항→ 닛뵈리역 → 신쥬꾸역→오우메역→taiyonoie

그러나 현지 대중교통비와 인원. 일정을 고려할 때 버스를 대절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변경하였으며 일출태양의 집으로 가는 길에 소화공원을 들릴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였다.

[찾아가기]



방문지 1. 소화공원 (國營昭和記念公園)

관련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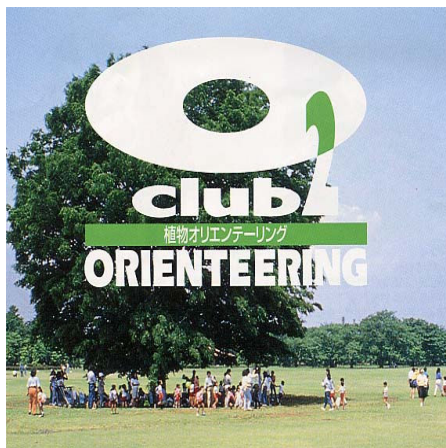
- 연락처 : 042-524-1516/FAX.042-526-1466
- 주소 : Park and Recreation Foundation Showa Administration Center
3173 Midorimachi, Tachikawa, Tokyo 190-8530
(우)190-8558 도쿄도 타치카와시 미도리마치3173
- 홈페이지 : www.ktr.mlit.go.jp/showa/
<http://www.showapark.jp/>

소화 재위 오십년 기념 사업으로 수도 근교에 기념 공원을 만들어 후세에게 전하고자 「초록의 회복과 인간성의 향상」을 테마로 넓은 공간에 문화적 내용을 담고있다. 국민이 자연 환경속에서 건전한 심신을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4시 30분쯤, 소화공원에 도착해서 약 30분간 짧게 관람했다. 우리공원보다는 그 규모가 크고 나무에서 역사가 느껴지는 공원이다. 곳곳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숨겨 있다.

이 공원안에서 볼 수 있는 식생의 위치를 설명한 안내판과 아름답리나무들, 나무와 나무사이에 있는 가로등(길 중간에 떠있는등,,)이 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였다..

공원에 20개의 수목을 정하여 함께 자연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상적이다.



[체크판]



방문지 2. 일출태양의 집(日の出太陽の家, Hinode taiyo no ie)

관련정보

- 연 락 처 : 042-597-2811 (FAX)014-597-2812
- 주 소 : 5107 Okuno Hinode-cho Nishitama-gun Tokyo 190-0181
도쿄도 (東京都) 서 다마 (西多摩) 군 히노데마치 (日の出町) 오오히사야 (大久野)
東京都西多摩郡日の出町大久野5107
- 홈페이지 : www.taiyonoie.org
- 연락 담당자 : 다기자와 (TAKIZAWA) info@taiyonoie.org

가. 현 황

일출 태양의 집은 장애자시설로 장애자들이 사회와 함께 사회에서 건전하게 성장되기를 원하면서 준비하는 시설로 마을에서 정상인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며 노력하는 정신 지체장애인 40명 (중증(20명-남 10명, 여 10명), 경증(10명)) 이 살고 있다.



◎ 무사의 집

120년 전의 건물로 지붕은 개조하였으며 50여 명의 숙소로 활용가능하다.

숙박시설이기 보다는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의 숙소로 우리는 이곳에서 하루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 프로그램

1. 주요프로그램

정신장애자를 위한 시설로 정신장애자의 재활활동, 신체활동 중심의 생활에 주력하며 작업은 4개반으로 나누어서 하며 신체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활동을 하지만 반복적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버섯재배, 농사, 감자, 고구마, 가지, 수박 등 재배
- 타월 포장(판매용, 상품)
- 중증의 경우 : 구슬장식품 만들기, 옥상에서 걷는 연습
- 도자기 초벌구이- 예전에는 뒷산을 활용한 숲가꾸기 활동을 진행하였음

2. 5-6월 축제

도자기 작품만들기, 바자회, 입구에 전시된 도자기는 상설판매장역할

3. 일년의 2번 정도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류회를 갖음

◎ 솥굽는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솥굽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나무는 일본의 주요 수종의 하나로 대나무로 솥을 만드는 것은 오래된 전통의 하나이며 자연물과 사람과의 생활습관이 맞아 떨어지는 활동이라고 원장선생님께서 설명해주셨다. 또한 대나무 솥가마, 도자기만들기 체험, 솥을 이용하여 수질정화, 대기정화문제, 탈취, 전자파방지, 산림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대나무를 활용하여 촛대, 잠자리, 술잔, 물총, 숟가락, 젓가락, 썰매, 표주박, 밥그릇, 목걸이 등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출태양의집에는 인근 뒷산에 솥굽는 곳이 있으며 대나무, 어린이공작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 운영

- 장애인 입소절차 :

장애판정을 받은 분(장애급수를 정해서 국가에서 등록)들이 입소하게 됨,

- 단기간 체류자도 있으며, 장기체류자는 계속 늘고 있음
- 지원체제: 부모가 지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체제(비영리, 세금감면혜택)
국가, 지자체, 연금, 동경도에서 지원
장애자 출신지역 지자체의 재정지원, 개인 연금(50%),
1년 1만엔 ~ 10만엔(후원금액), 후원회, 축제
- 임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STAFF)들이 근무하고 있음.
- 회원제도

정회원 연간 5,000엔, 활동회원 연간 2,000엔, 특별회원 연간 10,000엔

나. 자원활동현황

이곳은 지역과 함께 시설을 구축하며 장애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기업자원봉사(고마쯔, NEC등), 대학생(복지학과 중심), NGO와 NPO등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NGO단체인 NICE 운영프로그램

- 2000년부터 1년간, 반년간 ,3개월간의 장기 체재형의 자원봉사자프로젝트 진행
지역 교류 프로그램, 「국제 워크 캠프 in HINODE」

▶ 어린이대나무캠프(NICE)

- 20대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가를 중심으로 NICE가 주관
- 주변의 자연을 활용하여 다양한 모험활동

- ◎ 중장기 자원활동가 -
특전: 일출도방에서 도예배우기 ,원예를 배우고 싶은분에게 실무를 통해 기초를 배울 수가 있음
- ◎ 해외 장기 자원봉사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서울여대 교육학과 박정순양이 2003년 3월 이후 5개월간 봉사 활동 6개월간의 장기 체재형으로 참가 하고 있었음.
- ◎ NPO법인 「일출 태양의 집 자원봉사자 센터」 - 부케야시키를 중심 지적 장애자에게로의 자원봉사자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 지역에서 주체적으로 지원하는 봉사활동단체 : 니시다마포럼

다. 연수내용

1) 니시다마 자연포럼 (쿠보타 님) 만남

- 니시다마(西多摩自然)자연 포럼은 이산의 자연을 지키고자 다마지역 구릉 개발 계획의 재평가를 추구하면서 이산의 자연의 다양성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니시다마 주변에서 1991년부터 숲관련이나 멸종위기의 식생 연구, 생태계관리 등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회원수: 약 180명)



- 회원중에 반딧불이를 수집하며 사육하는 분을 소개하여 다음날 일정에 방문하기로 함

2) 원장선생님과 대화

* 일출태양의 집에 대하여

이곳은 태양을 꿈꾸며 taiyo 복지회를 만들었다. 복지는 나약한 몇몇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양 빛을 받는 일반인 모두에게 관계한다. 게다가 우리는 그들의 사회성과 취미, 활동성 등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하고자한다. 그래서 그들과 이 좋은 환경을 함께 이용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일출태양의집은 설립당시부터 꿈이 있었다. W 조금씩 해나가고 있으며 원장선생님은 언젠가 이 꿈은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하셨다. 꿈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 대나무공예 프로그램

(잠자리만들기, 대나무 컵 만들기,나가지소우면, 대나무 촛대만들기,,)

* 숲굽기 프로그램의 목적, 계기 의미에 대하여

* 일출 태양의 집의 꿈: 꽃피는 산(하나사끼)



* 처음 이곳을 만들면서 꿈이 현실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출태양의 집이 이곳에 장애우와 함께 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도자기 작품을 이용한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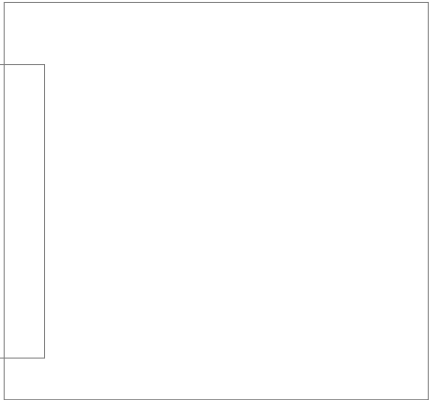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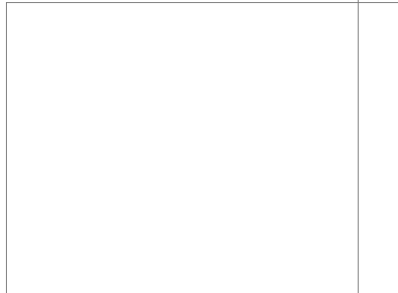


3) 활동

* 촛대만들기



* 나가시소우면



* 도예방 탐방



* 메뚜기만들기



* 환영



* 저녁만찬



둘째날 (8월 14일 ,목요일)

[일정]

12:40 일출태양의집 출발
 13:00 반딧불이 애호가 덕
 15:00 나가이게 공원도착
 20:00 청소년 회관도착

[찾아가기]



방문지 3. 반딧불이매니아 사노 타다시의 집

관련정보

〒205-0003
 東京都羽村市緑ヶ丘1-18-10
 TEL042-554-0832 FAX042-554-8322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 사노타다시상은 반딧불이 유충을 가져와 기르는 것을 27년째 취미로 하고 있으며 본업은 양봉을 하신다.

취미를 갖게 된 계기는 나가노라는 곳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며 어린시절을 보내고 동경으로 이사오게 되었는데 이사회 찾아가 나가노에서 우연히 반딧불이를 잡아왔는데 그것이 알을 낳게 되면서 반딧불이 사육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반딧불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온것에 대한 답으로 그동안의 반디 키우는 것에 대한 설명을 통해 사노 타다시상의 반디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의 반디사랑은 이제 취미를 넘어 전문적인 연구를 하고 있었다.



[반디 키우기]

성충을 볼 수 있는것은 오키나와쓰지반디이며 나머지는 모두 유충의 형태로 있으며

먹이로 수조에 달팽이, 다슬기를 키워 유충에게 먹이로 주어 성충이 되게 하며 성충이 되면 날려보낸다. 달팽이는 닭뻐, 메론, 사과등을 말린것이나 금붕어 먹이를 먹여 키운다.



* 알 낳기

티슈에 포카리 스웨트를 적셔서 암,수 따로 놓아 두었다가 교미를 시키면 알을 많이 낳는다. 꿀로 하기도 하는데 3일만 두어도 곰팡이가 생겨서 보관하기가 힘들다 보통 100~150여개의 알을 낳으며 일본것은 200~300개의 알을 낳기도 한다. 이끼같은곳에 알을 낳으므로 물로 적서 옆에 두고 알을 낳게 한다

*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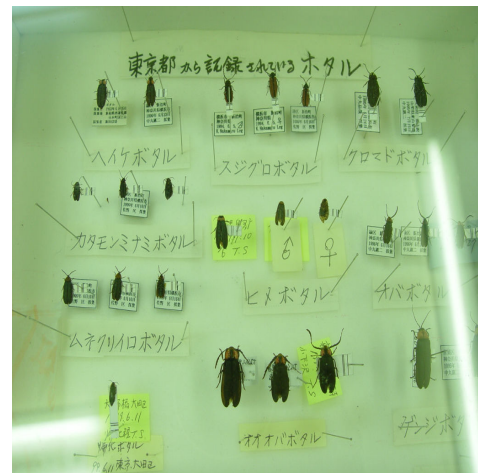
알이 자라면 모래와 부엽토를 섞은 흙에서 고치가 자라게 한다.

흙을 절약하기 위해 박스를 넣고 가장자리에만 흙을 담아 놓으며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한 수소에 담아서 검은 박스통에 넣는다.

크고 좋은 시설이 아니라 박스자른것, 비누곽, 압정통,등 주변에서 구하지 쉬운 것들을 이용해서 키우고 있다.



[동경에서 볼 수 있는 반딧불이 10종류 표본]
 헤게반디,스지구로반디,구로마도반디,
 가다봉미나미반디, 히메반디, 오바반디,
 쿠네구리이로반디, 오오모바반디, 겐지반디,



[여러나라 반딧불이의 표본 수집]



27년간 반딧불이를 기르고 놓아주는 이 일을 취미로 하시는 사노님은 양봉이 본업이시라며 꿀물(honey lemon)을 내어 오시며 이 일은 반딧불이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고 하신다. 반딧불이를 키워서 놓아주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반딧불이나 유충이 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인공으로 키우는 것도 좋지만 반딧불이가 사는 장소에 가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셨다.

방문지 4. 나가이게공원(長池公園)

과려정보

- 연락처 : 0426-78-4616 / FAX: 0426-78-4647
- 주소 : 192-0363 八王子市別所2-58
하찌오지시 벳쇼 2-58
- 홈페이지 : <http://www.pompoco.or.jp/>
<http://www.natsuzora.com/may/park/nagaike.html>
- 연락 담당자 : 카와바타 츠네오(batayan@pompoco.or.jp)

가. 나가이게 공원에 대하여

나가이게 (長池) 공원은 도쿄 서부의 계획인구 약 30만명, 면적 약 3,000 헥타르의 다마뉴타운의 남서부에 있다. 나가이게 공원은 용수연못인 나가이케와 옛부터의 사토야마의 풍경을 살린 공원으로서 약 20헥타르의 넓이로 도시계획 결정된 99년에 만들어졌다. 이 지역이 뉴타운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마구릉의 산간의 농촌이 근대적인 주택지로 모습으로 바뀌어 갈 때 농업용수로 쓰이던 연못이 있다. 잡목림의 언덕의 사이에 가로놓이는 연못은 한가로운 산중의 농촌의 모습을 담고 있다.

연못의 주변의 일부는 「특별 보전 존」으로 정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 공원의 이름이 된 「나가이케」못의 귀중한 동식물들은 「특별 보전 존」에서 보호받으면서 이곳에서 살고 있다. 연못의 주위로 비포장의 옛날 산길과 같은 산책로가 있으며 공원 동쪽으로는 「체험 존」으로 「나가이케 사토야마 클럽」이 주체가 되어 체험용의 논과 숲구이 오두막이 있어 벼농사나 숲구이, 자연관찰등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곳 나가이게 공원은 사토야마의 자연을 남겨 놓고자 정비한 공원이다. 이산(사토야마) 문화의 계승과 주민 커뮤니티의 형성이 공원의 테마이며 NPO 인 「FUSION 나가이케 (長池)」가 주축이 되어 자연체험 학습장을 만들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나가이게 공원의 북쪽에 있는 「나가이케 미즈케다리」는 하치오지시의 새로운 명소로 유명하다. 미즈케다리의 광장은 휴일이면 가족이 함께 방문하는 쉼터이다.

주차장옆에는 산속마을광장이라는 작은 언덕과 석양전망대라는 광장이 있다.



나. 나가이케 공원 네이처센터



공원의 핵심이 되고 있는 곳이 나가이케 네이처 센터이다. 공원 관리소도 겸한 나가이케 네이처 센터는 NPO인 「FUSION 나가이케 (長池)」가 하찌오 지시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관리해 나가고 있다.

나가이케 네이처 센터는 건물 자체에도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되었다. 외관이 목조로 공원과 어울리며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으로 「자연 환경과의 공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네이처센터 건물은 크게 전시실, 강의(회의)실, 작업실의 3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시실은 사토야마의 자연을 접하는 체험 학습 시설로 개발되기 전의 나가이케 주변의 모습, 그 시절 사용했던 농기구들이 전시되어있으며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의 사진과 표본과 자료가 전시되어있다. 또한 법씨와 같은 자연물을 자연스럽게 만지고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



작업실은 작업하기에 편하게 되어있는 것은 기본이고 작품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벽에는 작품만드는 법과 행사사진이 정리되어 게시되어있었다.



전
시관 한편에는 자연물을 이용한 다양한 소품을 판매하고있는데 이곳의 판매물품은 장애인이 복지시설(힘내라 복지시설)에서 만든 것으로 위탁판매를 하며 다른 지역은 하루에 3000엔 정도 판매되는데 이곳이 훨씬 수익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 NPO 「FUSION 나가이케」

우리가 나가이케 공원 네이처센터를 방문했을 때 우리를 카와바타 츠넌씨가 반갑게 맞이하여주시고 함께 간단한 간담회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이분이 이곳에서 일하시게 된 동기는 가마쿠라 라는 곳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찾는중에 모임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는 토마나가상을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으며 NPO법이 통과될 즈음인 98년도에 이 모임에 함께 하기를 권유 받았으며 직장경험을 살려 경리와 컴퓨터 관리일을 맡고 있다.



◎ 모임의 시작

다마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99년 6월에 나가이케 공원이 만들어지고 그해 12월에 이곳에 사는 아빠들이 이도뵈타카이기(우물가에서 하는 회의)라는 NPO 모임을 구성하여 자원활동을 하게 되었다.

만든취지 : 아빠들이 동경으로 출근을 하고 주말에만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함께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모으게 됨

너구리(원래주민)와 인간(새로운 주민)의 싸우는 내용의 에니메이션(너구리가 배를 치면서 뽀보구 카와라방 하는데 이를 따서)이 계기가 되어 동호회로 시작

- 처음에 한 일 : 메일링 리스트를 만들어 평일에 서로 연락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사토야마(마을숲) 지키기 위한 자료집을 공단에서 만들기 시작함
-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매개체로 이용하며 1년에 4번 발행하며 현재 38번째 까지 나왔음

◎ 나가이케 공원의 운영

나가이케 공원은 지역의 개발을 담당했던 공단에 의해 만들어진 공원이며 이곳에 있는 잡목림과 논밭, 수차, 물레방아, 연못 그리고 연못에 솟아나는 수맥(와키미지라는 용출수)이 있는데 그 수맥을 자르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면서 잡목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을 계획함

나라보조금,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다가 시에 기부해 시에서 운영하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나가이케 「FUSION나가이케」 NPO모임에 위탁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지관리를 위한 기금마련: 퇴직동호회에서 일을 맡고 절약해서 운영하고 남은 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

이용객 : 2년전 7월에 오픈 한달에 400~500명 정도
1년에 57,000명정도가 이용하고 있다.

행사 : 만화원판 25개 전시, 다리밧 축제 8번, 시에서 1년에 4번 행사를 옴

◎ 이곳의 모임

나가이케 공원을 중심으로 12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임이 있다.

쓰마따이회(이곳에 살고싶다): 관리를 공단관리식으로 하기보다는 경제적 부담이 적은 주민자치로 운영하기로 함

고우시타이 회(이렇게 하고 싶다): 인터넷보급을 하기 위해 모임

전시공간활용을 활용하여 방과후 모임도 만듭

◎ 자원활동하시는 분

아베: 가정주부이며, 도토리를 이용한 공작을 담당 쓰기노상: 그림엽서 만들기

오시바나: 압화, 순수자원활동가이며 오카다상 : 색연필 그림

* 자원활동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따로 있지는 않고 상근활동가는 50%정도의 활동비 지원

◎ 이곳에서 일하는 시니어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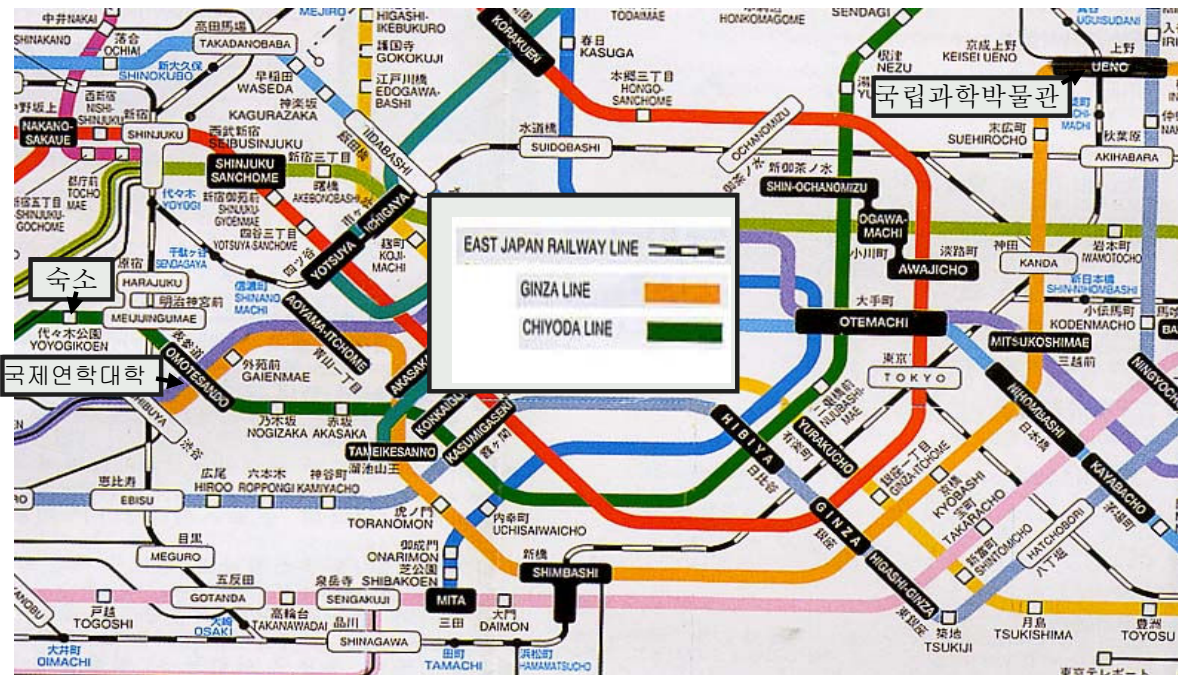
시루바 긴자이 센터, 정년퇴임자를 위한 실버인재센터가 있어서 일을 알선하고 있으며 너구리축제때 퇴임한 분중에 전기담당, 배선 업무등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정체성에 빠지지 않도록 활동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셋째날 (8월 15일 ,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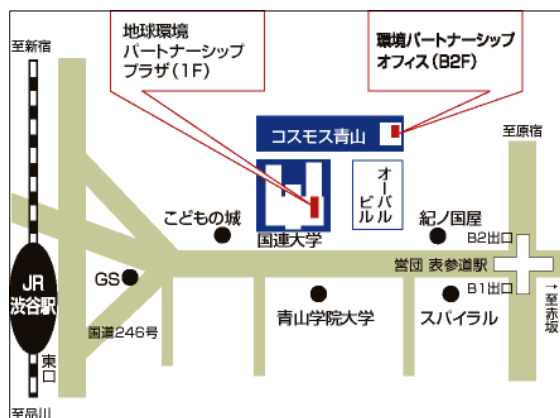
[일정]

8시 출발준비모임
 9시 아침식사, 요요기코엔역
 10시 오모테산도(表参道)역, 연합대학내 지구환경파트너쉽 플라자 도착
 12:00 오모테산도역
 13:00 우에노(上野)역 도착, 점심식사
 14:15 국립과학박물관도착
 16:40 우에노(上野)역에서 JR 야마노테선(山手線)을 타고 하라주쿠(原宿)도착

[찾아가기]



* 지구환경파트너쉽플라자



* 국립과학박물관

오모테산도역에서 긴자선을 타고 우에노(上野)역에서 내림, 걸어서 5분거리에 있음

숙소인 올림픽청소년회관에서 요요기공원(代木公園)을 걸어서 요요기코엔역으로 감
 치요타센(千代田)선을 타고 오모테산도(表参道)역에서 내려서 국제연학대학으로 감



방문지 5. 지구환경파트너쉽 플라자(GEIC)

관련정보

- 연락처 : 03-3407-8107 / FAX.03-3407-8164
- 주소 :〒150-0001 도쿄도 (東京都) 시부야 (澁谷) 구 국제연합대학 1 F
- 홈페이지 : <http://www.geic.or.jp/geic/>
<http://www.geic.or.jp/index-e.html>(영어판)
- 업무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30분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휴관일 : 일요일, 월요일, 축일, 매월 제 4 금요일, 연말 연시

* 일본연수 계획시 환경관련 정보센터를 방문하고자 알아본 곳 중에 이타바시구에 있는 「에코폴리스」 센터를 고려했는데 도쿄 북서구에 위치해 있어서 거리상의 문제와 규모와 시스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을것으로 생각되어 지구환경파트너쉽플라자로 방문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에코폴리스」 센터: www.ecopolis.city.itabashi.tokyo.jp

가. 지구환경파트너쉽플라자에 대하여

1996년 환경성, NGO, 국제연합 대학의 공동사업으로 환경정보센터 기능을 갖춘 지구환경파트너쉽플라자 (GEIC)를 만들었다. 국제연합이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환경성에서 지속가능한사회를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 주체가 파트너 쉽을 촉진하여야 하는데 실제로 NPO나 기업, 행정 기관이 대등한 관계로 서로의 입장이나 이익을 존중하는 파트너쉽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지구환경파트너쉽플라자는 다양한 주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이고자 한다. 파트너쉽에 의한 환경 활동 촉진을 위해 시민, 기업, 지자체, 행정의 중간에 서서 환경관련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 및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 정기발행지

환경 파트너쉽 전문지 「개인 환」(2회/년 발행)
메일 매거진 「Partnership infonet」(제3목요일 발행)

나. 연수 내용

지구환경파트너쉽플라자에 들어서자 개인적으로 NGO 활동을 하면서 환경성에서 파견하여 근무하고 계시는 이토 히로타카(Itoh Hirotaka)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였으며 전시관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다.

이곳은 NGO 환경운동가들의 자료 공유를 위한 도서관과 행사를 서로에게 알리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 와서는 internet이 가능하고 환경교육, 환경문제와 관련한 비디오, 영상물을 400여개 보유하고 있으며 2500권 정도의 책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이곳의 책은 시중 서점에서 시판되는 책도 있지만 시판되지 않는 NPO 책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판매도 하였지만 재고문제가 있어서 주문판매는 하지만 일반판매는 하고있지 않는다.

일본은 환경관련 정보센터가 지자체별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 환경교육정보센터는 내년에 설립예정이다. 이곳은 환경성 산하시설로 약간의 제약이 있으며 NGO에서 따로 만들려고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곳은 하루에 150명 정도가 이용하며

◎ 정보수집·제공

- 자료화일: 환경교육, 환경문제와 관련된 NPO, 기업, 행정 등의 자료수집, 시민 단체 파일(빨강파일), 기업 파일(파랑파일), 지자체(노랑파일), 정보 센터 파일(녹색화일)로 구분하여 정리함
- 서적·보고서 : 삼림·물·온난화등의 분야별로 분류
- 지자체 자료 : 환경 백서, 기본적 시책, 조례, 환경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 환경 전문지: 상업잡지, 학회잡지, NGO/NPO발행 잡지, 업계 신문등
- 신문 환경기사 : 3년동안 쓰레기, 재활용, 수질오염, 물 처리, 에코 비즈니스로 분류



◎ 게시물활용 : 단체의 행사, 활동보고서

- 서로의 단체가 대등한 관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연계
- 각 단체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게시하고 있음
- 게시판 분류: 해외협력/ 자연보호 /NPO /NGO / 환경교육 /스터디투어 / 라이프 스타일
- 시민 단체나 국제기관 , 환경관련 단체의 뉴스레터(약300단체)



◎ 환경 리포트 대상 수상보고서

- 매년 환경대상보고서를 접수하여 수상작을 정리해서 공개
- 기업의 환경 경영의 상황, 사회공헌, 시민 단체와의 협동실적보고
- 3 년동안 대략 300개의 환경보고서 보관



◎ 환경 파트너십 촉진 사업

- 시민·기업·행정 기관등 의 제휴·협조 관계를 만들어 내어 조사연구 , 제언 활동을 실시
- 파트너십트레이닝: 행정 직원을 주된 대상
파트너십의 이념·방법·기능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 NGO/NPO·기업 환경 정책 포럼
-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거점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SCOS) :
2002년도부터 지속가능한사회만들기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활동·시민활동운영에 관한 조사. NPO와의 공동 사업으로 실시
- 요하네스버그 서밋 협동 사업(WSSD)
-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일·미 공동 사업(EFS) : 1998 ~ 2002년
- NPO와 행정의 일·미 비교 조사 연구 : 1998년도로부터

◎ 글로벌 프로젝트

유엔대학 주도로 하는 파트너십사업으로 환경의문제를 각각의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총체적 지구를 생각하며 진행된다. 유엔기관을 비롯하여 각국 정부 , NGO등의 협조로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Inter-linkages : 다국간 환경 조약에 있어서의 상승효과와 조정을 위한 사업으로 각국의 활동과 생태계간의 연결성에 관심을 두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관리한다. 2003년에 SPREP(남태평양 지역 환경 계획) ,UNEP(유엔 환경 계획) , 리오 조약 사무국과 관련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참고] 유엔대학 뉴스레터 「Work in Progress」 의2003년 봄호에 특집으로 연구와 활동 내용 소개

- Innovative Communities : 지역 주체의 환경 관리 수법으로 유엔대학(UNU) 과 유엔 환경 계획(UNEP)에 의한 협동 프로젝트이다. 지역 주체의 환경 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지역 스스로가 직면하는 환경문제를 이해해 분석하는데 지역에 있는 자원을 육성하고 활용하며 환경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관리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다.
- 환경 리더쉽 트레이닝 : 유엔대학과GEIC은 학생이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1998년부터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역의 문제로부터 지구 규모의 문제에 걸쳐 연수하고 있다.
- 자연재해 : 도시에 있어서 자연재해의 위기 관리의 연구

◎ 전시관

이곳소 전시관은 환경 문제의 현상이나 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는NGO/NPO등 의 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1달 동안 전시할 수 있다.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우리가 방문하였을때에는 「송사리 논」이 전시되고 있었다. 우리의 오리농법과 유사하게 논에 송사리(토종 검은송사리)를 넣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으며 자연을 되살리면서 맛있는 쌀을 재배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의 전시물과 연구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외에 인쇄소와 회의실이 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곳의 자료색인은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관으로 부속 자연 교육원, 츠쿠바 실험 식물원이 있다.

* 참고 : 국립 과학박물관 연혁

1871년(메이지4년)10월 : 문부성 박물관의 관람시설로 유시마 성당내에 박물관을 설치

1923년(타이쇼12년)9월 : 간동대지진에 의해 , 시설과 표본 전부 잃음

1930년(쇼와5년)12월 : 우에노관(현본관) 건설

1962년(쇼와37년)4월 : 문부성 설치법의 개정으로 자연사 과학연구센터 기능강화,
국립 자연 교육원을 통합하여 「부속 자연 교육원」을 설치

1972년(쇼와47년)3월 : 신쥬쿠에 분관 청사 개관, 자연사 과학 연구 분관에 이전

1986년(쇼와61년)1월 : 교육 자원봉사 제도의 도입

2001년(헤세이13년)4월 : 독립 행정법인화

* 본관전시:

지하(푸코의진자),

1층(생명의탄생에서 공룡시대, 포유류 화석전시),

2층(척추동물의 기본구조, 진화하는 동식물)

3층(일본의동식물, 운석과 태양계)

* 신관전시

지하(탄생과멸망의신비-공룡)

1층(생물의 다양성-공룡)

2층(탐험광장-생활과학)

3층(탐험광장-발견의 숲)

나. 발견의 숲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관심을 유독 끌게한 것은 신관 3층에 있는 발견의 숲이었다. 건물안에 잡목림의 자연환경을 건물 안이 아닌 듯 깜짝 놀랄정도로 숲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듯이 하나하나 숲속의 무언가를 찾아내듯이 찾아가며 즐거워했다.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동선을 고려하여 아기자기 하면서 그리 복잡하지 않게 꾸며놓은 실내에 감탄하게된다.

발견의 숲은 관동지방 사토야마의 잡목림을 모델로 제작하였다고 한다. 사토야마나 잡목림은 현재 조금씩 사

라지고 있는데 모델이 되는 장소를 찾아서 실제의 잡목림의 수목의 밀도, 굵기, 종류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음향과 조명장치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의 숲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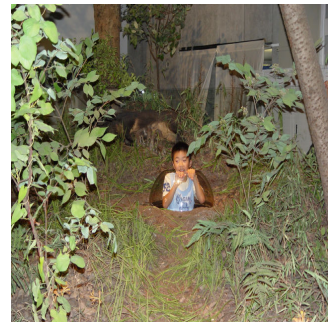
잡목림을 지나면서의 수목의 표본뿐아니라 땅속의 모습을 재현해놓아서 보이지 않는 숲





의 모습을 보며 신기로움에 젖을 수 있으며 잡목림에서 만날 수 있는 동물들 멧돼지, 여우등을 실물로 재현하여 동물의 털의 감촉을 체험하고 실제중량으로 만들어 안아보기도 할 수 있다. 흙을 넘기면 흙안의 지네, 진드기등이 작은 벌레를 볼 수 있으며 동물의 시체아래에는 구더기등을 발견할 수 있다. 숲을 잘 이해하고 숲을 관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숲 속 숨은 그림을 찾다보면 계속 숲 속으로 빠져들면서 숲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자세하게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잠수구멍으로 들어가 얼굴을 내밀면 너구리와 시선을 맞출 수가 있다. 숲의 밖에서나 등산로에서 보는 숲이 아니라 땅속을 기어나와서 만나는 숲이 이 곳발견의 숲에는 있으며 계단을 따라 2m정도의 데크에 올라 새의 시각에서 숲을 볼 수있도록 인간의 시각으로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동물들의 시각에서 숲을 보면서 숲의 비밀을 캐어나가도록 꾸며져 있다.



또한 개구리의 표본에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새의 박제를 나뭇가지 곁에 걸고 스피커를 설치하여 소리로 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시각만이아니라 청각, 후각등 여러감각기관을 동원하여 숲을 관찰하게하고 있다.

구석에 70여개의 표본상자가 마련되어있었는데 이 표본상자들은 직원이나 교육 자원봉사가 정해진 시간에 「숲의 표본상자」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들의 표본상자안에는 암석, 잎, 박제 동물,,등 다양한 주제에 따라 수업에 이용되며 이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거나 직접 만져보면서 수업이 진행된다. 이 상자는 직원과 교육 자원봉사와의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발견의 숲은 박물관 신관3층에 있으며 2층 한편에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한 이벤트가 8월 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어서 들러보았다. 도전, 발견, 감동 이라는 주제로 가족단위로 와서 과학의 범

주안에있는 다양한 주제를 환경친화적 소재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코너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중에 어둠상자안의 반딧불이 관찰하기는 아이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반딧불이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 아이디어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다. 교육자원봉사에 대하여

발견의 숲 전시관에는 전시나 표본을 앞에 두고 대화를 하면서 발견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거나 질문을 받는 자원봉사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이중에는 시니어팀역시 만날 수 있었다. 노란 셔츠를 입고 있어서 쉽게 안내지도를 받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었으며 이들 박물관내의 자원봉사 활동팀에는 시니어팀, 대학교육과정중에 실습을 하는 청년자원봉사팀, 생태관련 일을 하고자하는 지원자들이 일정기간하는 인턴자원봉사팀이 있다. 전시관 한편에 자료서적이거나 기념품 코너에 직원과 전문가그룹, 자원봉사팀이 상주하고 있었다.



- ◎ 교육 자원봉사 그룹 : 박물관, 자연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
아이들과 접하는 것이 좋아하는 분을 중심으로 약 220명 활동
- ◎ 주로 하는 일 : 시설, 전시의 안내, 각종 강좌나 관찰회등의 행사도우미,
전시관(2층, 3층)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지도
견학 상담, 관찰도우미, 실험학습도우미
- ◎ 교육 자원봉사 모집
 - 연 1회 12월부터 1월 결원보충을 위해 모집
 - 도내 및 근교에 살고 있는 분으로 18세 이상
 - 원하는 요일을 결정하여 주 1회 활동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활동
- ◎ 교육 자원봉사자 진행 토요일상설프로그램운영: 유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1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이 박물관 내, 외서 진행되고 있다.

프로그램 예] 여러가지 모래 (자원봉사 : 아소우 타케히코씨)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에게 세계 각지의 모래에 대해 입자와 색, 형태, 크기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이며 모래의 표본을 만들어 현미경이나 확대경으로 아름다운 모래의 입자를 관찰하게 한다. 그외에 화석만들기(자원봉사 : 미우라 에미씨),제비를 보러 가자, 씨앗의 여행,겨울 눈 관찰,눈으로 보는 과학,빛과 놀자(편광관에 대하여),물의 신비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가 연수한 8월에는 여름휴가로 쉬는 상태여서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볼 수는 없었다.

넷째날 (8월 16일 ,토요일)

[일정]

7:40 식사, 식사후 요시에만남
 8:40 철길을 건너고 해서 산구바시(参宮)역
 9:00 신주쿠(新宿)역에서 요코하마로 가는 JR Ishikawacho를 탑

A팀-자연관찰숲
참가자 : 통역(요시에), 김택윤, 김인호, 김경희, 박선미, 김은영
 10:18 요코하마(横浜)역하차
 KanaZawa Hakkei 버스를 타고 요코하마공원앞 하차

B팀-마이오카 공원
참가자 : 통역(김미라), 정병준, 김수연, 안미숙, 최영주
 10:20 토츠카(戸塚)역도착후 마이오카로 가는 버스를 탑
 10:45 마이오카 공원

요코하마는 동경에서 남쪽으로 36km 떨어진 곳에 있는 인구 337만명의 동경 다음의 제2도시이다. 가나가와현의 동부에 위치한다.



방문지 7. 요코하마 무강공원 (마이오카 공원)

관련정보

- 연락처 : 045-824-0107
- 주소 : 카나기와현 (神奈川県) 요코하마시 (横浜市) 도쓰카 (戸塚) 구무강정 1,764번지
- 홈페이지 : www.city.yokohama.jp/me/green/keikaku/kouen022.html
- 연락 담당자 : nature@va.netyou.jp
- 시간 : 무강 공원을 기르는 모임 사무소 9:00~16:00
 고민가 이용은 오전 9시 ~오후 5시 , 단체 이용 오전 반과 오후반 매주 월요일 휴관
 입장료: 공원내 무료 (단 주차장은 ¥300/2시간 이후¥50/20분)

가. 현 황

마이오카공원은 1993년 6월 만들어 졌으며 도쓰카(戸塚)구와 고우난(港南)구에 걸쳐 있는 총 면적 약30ha의 자연공원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공원시설외에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을 위한 5개의 보호구역의 출입 금지 지역과 시민들에 의해 운영되는 전원체험구역이 있다.

전원 체험 구역은 시민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마을의 고민가는 토즈카구 시나노초에 있던 주택이 구획정리되면서 일본 명치시대 초기의 일본 민가(구 금화가 주택 주옥)가 복원되고 있으며 이 옛날 민가는 요코하마시(横浜市)의 사적(史蹟) 건축물에 선택되었다.

공원내의 4개의 언덕에는 휴게소가 있어 휴일 가족의 휴식의 장소가 되고 있으며 공원의 북쪽에 농업 진흥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를 중심 과제로 하는 지역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 공원은 옛날 그대로의 전원 풍경속에서 농업 체험이나 자연 관찰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풍부한 녹지와 용수가 있고, 근교의 옛날 그대로의 전원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무강공원을 기르는 모임」이 전원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원의 여기저기에 동식물의 관점에서 알리기 위한 게시판이 있다. 이곳에 사는 동물의 입장에서 ,이 곳을 방문하는 강아지에게, 꽃을 피우려는 꽃이 꽃을 보러올 사람들을 기다리며, 놀러와 버려진 깡통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말 들이 적혀있다. 게시판의 모든 소재가 번들거리는 아크릴판이 아니라 대부분 박스조각이나 대나무 쪼갠 것, 종이 상자에 손으로 직접 만들어 친숙함이 더하다. 아이들이 자신의 눈으로 그리고 쓰레기의 입장에서 공원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적어놓은 것을 읽으며 이것은 자연이 중심이 되고 자연의 가르침이 진정 사심없는 가르침이며 자연이 진정한 스승임을 알려준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 잠깐 기다려, 껍지마”, “ 모든 사람들은 내가 꽃이 피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곳은 강아지가 들어오지 못하는곳이라는 것을 강아지에게 알려주는 것은 주인의 책임중의 하나입니다.“, “이곳에 사는 물고기나 곤충 등의 생물을 함부로 가져가지 마세요.”



나. 마이오카공원관리와 자원봉사운영에 대하여

이 글은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고바시상과의 이야기를 토대로 정리한것임

◎ 공원관리의 시작

이곳 마이오카공원은 1982년도에 공원예정지로 되어있었는데 이때 땅 매입률이 3할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21년전 공원이 생기면서 15명 정도가 “야또(지형) 문화연구회”를 만들어 공원을 지키고 알기를 시작하여 ‘물과 숲의 회’ ‘마이오카 공원을 키우는 모임’ ‘야토히로 미카이모임’으로 이어져 왔다.



처음에 공원은 7년 정도는 요코하마시에서 파견된 중부녹지사무소의 담당공무원이 파견되어 소장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그 이후 10년 동안 공원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이곳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여 시에서 시민단체에 위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시작하였고 재정적으로 의존은 하지만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체제로 서로 양보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 시민중에 사무국장이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줄곧 고바시상이 사무국장을 맡아오고 있다. 이분이 이일을 하게된 계기는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으며 이곳에서 나의 아이들이 뛰어 놀며 커왔다. 이런 장소가 없어지는것이 싫어서였다고 한다.

이곳 마이오카 공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곳을 지키고자 공원을 만들려고 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이며 공원화 구상이 있었을 때 먼저 이곳의 시민들과 함께 공원화 계획을 논의하였기에 이곳이 지금까지 아름다운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곳 마이오카공원에는 출입금지, 자연체험, 산보를 위해 24시간 열어놓는 공간으로 3종류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지금도 부지가 다 매입된 상태는 아니고 처음에 매수된 곳에 공원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1지구와 2지구를 합하여 30ha정도 되는데 이중 6ha만 위탁을 받은 상태이며 이곳이 전원체험을 위한 논,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땅들이 사유지임을 알리는 안내판들이 공원 곳곳에 있다.

◎ 공원의 운영

이 곳에서 정식 봉급을 받으며 일하시는 분은 현재 사무국장 한 분뿐이며 이 분은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자원활동가로 일하시다가 소장역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그 활동 세월이 20년 정도 되는데 그 동안의 일들을 다 말씀하시려면 책 한 두 권으로도 모자란다고 하신다. 그만큼 그 동안의 활동들이 결코 순탄하거나 쉽지만은 않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일 년 동안의 행사일정이나 행사내용을 정하는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공원활동을 이끌어가는 활동가들은 약 30명 정도로 이들에게는 교통비정도가 지급된다. 이중에 STEP은 매일 3명씩 8명이 로테이션하고 있으며 이들은 30대가 주류를 이루며 50대도 있다. 또한 지도자급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분과가 정해져 있으며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분야별로 각자의 일들을 하며 1년에 2번정도 함께 결정할 일들을 위해 모인다. 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에 토, 일, 휴일을 이용한 활동이 진행된다. 이들이 이곳의 일을 하는데는 와서 즐겁고, 이곳에서 일하는것이 자랑스럽고 이곳이 맘에 들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즐기는 것이다. 누구 하나가 결정하고 전달받고 따르는 식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며 운영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곳의 사무국의 일은 이들이 이곳에서 재미있어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준비하고 진행하는 어려움은 계속된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 참가하려는 시민들 중에 책임감 있게 일을 하며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며 일을 결정권을 갖을 수 있도록 조직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이 이들 무상으로 활동하면서 지금 이 상황까지 올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다.

◎ 자원활동시스템

일년동안 거쳐가는 자원활동가는 대략 1만명 정도인데 활동하는 기간이나 활동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하루에 2시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자원활동을 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는 사회에서 사장이든 대학교수든지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할 때는 모두가 평등하게 일한다. 이에 그들의 신분은 이곳에서 알려지지 않는다. 즉 신상을 파악하거나 알리고 하지 않는다. 이곳을 좋아하고 이곳에서 일하는 것을 즐기는 자원봉사자일뿐이다.

이 곳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1회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으며 등록을 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들 자원활동가중에 지도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양성과정도 운영되고있으며 1년 과정으로 농사활동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은 하나 대부분 1년과정을 마쳐야 지도가 가능하다. 40명 정원에서 60% 출석률을 보이며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교육후에 이곳의 우수한 지도원은 3~4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어린이중심의 유아자연관찰프로그램을 맡게되며 가족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반딧불이 관찰프로그램은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기에 따로 공고를 하지 않고 진행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어렸을 때 했던 것, 해 보았으면 하는 놀이중심이다.

여기에 오는 자원활동가들은 언제 오든지 간에 그 곳에 준비된 장비와 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도구나 탈의, 샤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정비된 작업도구함이 가지런히 정리되어있다. 이곳의 작업도구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와서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은 부담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부러웠다.

공원을 돌아 보다보면 적당한 곳에는 쉼터가 있으며 작업후에 씻을 수 있도록 적당한 곳에 흐르는 물을 이용한 수도가가 있으며 그동안의 행사나 활동을 전시하는 휴게소가 있다.

전통가옥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드나드는 길목에 근처에서 주워온 동물의 흔적(뱀허물, 깃털, 박재 등)이나 식물, 그리고 짚을 이용한 공예품을 소박하게 전시해놓고 있었다. 눈이 많아서 짚으로 만든 것들이 많았다.

이곳 전시장은 이곳의 자연을 통해서 함께 주워서 만든 것, 모두가 모여 손수 함께 한 것들이 추억이 되어 전시되어 남아있는 공간이다.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다. 마이오카 공원을 둘러보면서

주차장에서 숲길을 따라 걷다보니 막혔던 시야가 확 트이더니 잘 가꾸어진 논이 보인다. 논길을 따라 걷다보니 왼쪽으로는 잡목림이 이어지며 건너편 논에는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작업을 하고 있다. 참새들이 벼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물을 치고 있다. 한참을 걷다보니 사무실과 고민가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보인다.

이곳을 들어서니 사무국장 고바시 상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며 먼저 이곳 장소에 대한 소개를 자세하게 해주신다. 먼저 안내되어 간 곳이 고가옥인데 우리가 찾아갔을 때 고가옥의 부엌에서는 70대 노인이 아궁이에 불을 때고 있었는데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오셔서 그 소임을 맡아 하신다. 자원 봉사자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분은 이분만이 할 수 있는 이곳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된다. 일본 전통의 고가옥 지붕은 우리네 전통 초가집처럼 풀을 엮어서 엮은 까닭에 오늘과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불을 때서 지붕의 습기도 제거하고, 지붕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벌레들도 퇴치한다는데, 고가옥의 지붕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던 연기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된다. 이 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을 때 그때처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옛날 이곳에 살던 분들을 주축으로 자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땀을 흘리며 불을 지피는 노파를 보는 것 자체가 교훈이다.

자리를 옮겨 숲막으로 갔다. 가마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는 전문가가 만들고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본따 만들었다는데 봉사자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 참고로 일본에는 대나무가 많아서인지 숲을 만들 때 대나무를 사용하였다. 숲막을 나와 사무실로 가는 길에는 작은 채소밭과 차밭이 있었다. 소장님 말씀이 그 곳에서 재배된 차를 이용해서 차만들기 행사도 하신다. 이번에 차 만들기 대회에는 30명 정도가 참여할 것을 예상했는데 너무 응모자가 많아 차 있을 주고 집에서 해보게 했다고 한다.

소장님과 다른 봉사자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인사를 하고 오던 중에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는 고등학생들과 그들을 인솔하고 있는 교사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고등학교 운동부 학생들인데 교과과정의 하나로 활동을 나왔다고 한다. 일본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는 환경교육이 들어있어 우리나라 학생들이 1년동안 해야하는 봉사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환경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단다. 우리가 처음 공원내 논에서 보았던 일련의 작업자들이 그들이었다.

주변환경과 여건이 맹산과 비슷한 마이오카 공원을 돌아보며 맹산의 자원활동하는 분들이 함께한 연수로 서로에게 우리가 맹산으로 돌아가서 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를 잘 가꾸어진 정경과 그에 어울리게 꾸며진 모든 것을 보며 느끼게 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것, 그 체험공간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소중한 중요하다는 것을, 길을 걷다 눈을 들어 둘러보면 내 눈길이 닿는 그 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방문지 8. 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 자연관찰 센터 (横浜自然 観察の森 自然観察センター)

관련정보

- 연 락 처 : 045-894-7474 FAX : 045-894-8892
- 주 소 : 247-0013 카나가와현 (神奈川県) 요코하마시 (横浜市) 사카에구 (栄区) 가미사토 (上郷) 정1562-1
Kamigo-cho Sakae -ku Yokohama-shi
- 홈페이지 : www.be.wakwak.com/~wbsjsc/141/index.html
- 연락 담당자 : okamoto.h@zd.wakwak.com
- 휴관일: 월요일(축일의 경우는 다음날) , 연말연시(12월28일 ~1월 4일)
개관시간: 오전 9시 ~오후 4시30분 입장료: 무료

가. 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에 대하여

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은 카나가와현(神奈川県)와 환경청에 의해 정비된 요코하마시(横浜市)의 시설로 1986년 3월 조성되어 다른 자연관찰의 숲 조성에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던 곳이다. 요코하마시(横浜市)의 남단에 위치한 총 면적45ha 의 숲은 지역의 자연을 보전하고, 시민이 자연과 친숙할수 있도록 자연체험활동이 이루어지며 이곳에서의 주요 활동은 자연관찰 센터의 주최 행사·전시·안내 , 자연 환경의 조사·관리 , 시설의 유지 관리 , 자원봉사 활동 , 연수·교류·친목·정보 교환등이 있다. 시설과 기능 중 자연관찰센터는 자연관찰의 숲의 중심시설로서 각종 활동과 정보제공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총 면적은 437㎡이며 연수실, 전시실, 연구자료실, 사무실, 관찰실, 레인저코너, 화장실, 휴게실 등이 있다.

이 곳은 요코하마시에서 파견된 원장이 시(市)와 사회단체와의 연락 조정, 자원봉사자 조직의 운영지도, 각종행사의 운영지도, 원내시설의 관리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야조회에 생태교육,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야조회에서는 생태교육 전문가인 레인저 1인, 어시스트레인저 2인, 서브레인저 1인이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참고: 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의 역사

- 1984년 5월 시설 정비 계획 결정
- 1984년11월 착공
- 1986년 3월 개원
- 1988년10월 친우회 설립



나. 자원봉사 시스템과 생태교육

자원봉사자 조직의 지도와 관리는 주로 레인저가 담당하고 있다.

주요 자원봉사 활동은 환경교육, 생태관리, 환경조사 등의 3부분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연간 총 2000명 이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자원봉사활동으로는 생태교육 프로그램기획업무(예: 주니어레인저스쿨(JRS)의 기획운영), 생태교육 프로그램 보조활동의 생태교육관련업무와 생태원 받만들기, 반딧불이 습지 정비, 물새용 부도 보수, 야생화 보호, 인공립관리, 잠자리연못조성 등 환경관리업무와 새집조사 보조, 원앙서식 조사, 올빼미서식조사, 잠자리연못생물조사, 부도이용 생물조사 등의 환경조사업무를 수행한다.

[자연관찰 센터의 기능]

구 분	내 용
환경해설(interpretation) 자원봉사자 양성	전시, 각종 팸플릿, 레인저(생태교육전문가)에 의한 생태교육 및 안내가 이루어 짐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육성
환경조사	자연관찰의 숲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기법 개발 연구를 실시함
정보수집과 네트워크	환경보전에 관계하는 단체와 시설정보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함
생물유도	건물과 그 부속시설에 생물서식환경을 창출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가능하게 함
일반관리업무	자연관찰의 숲에 관한 일반관리업무를 총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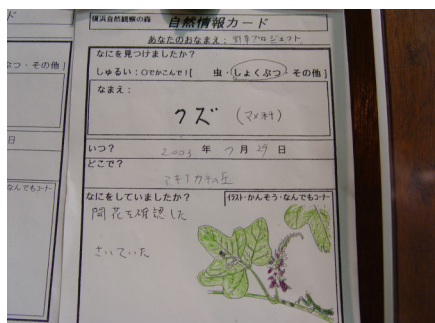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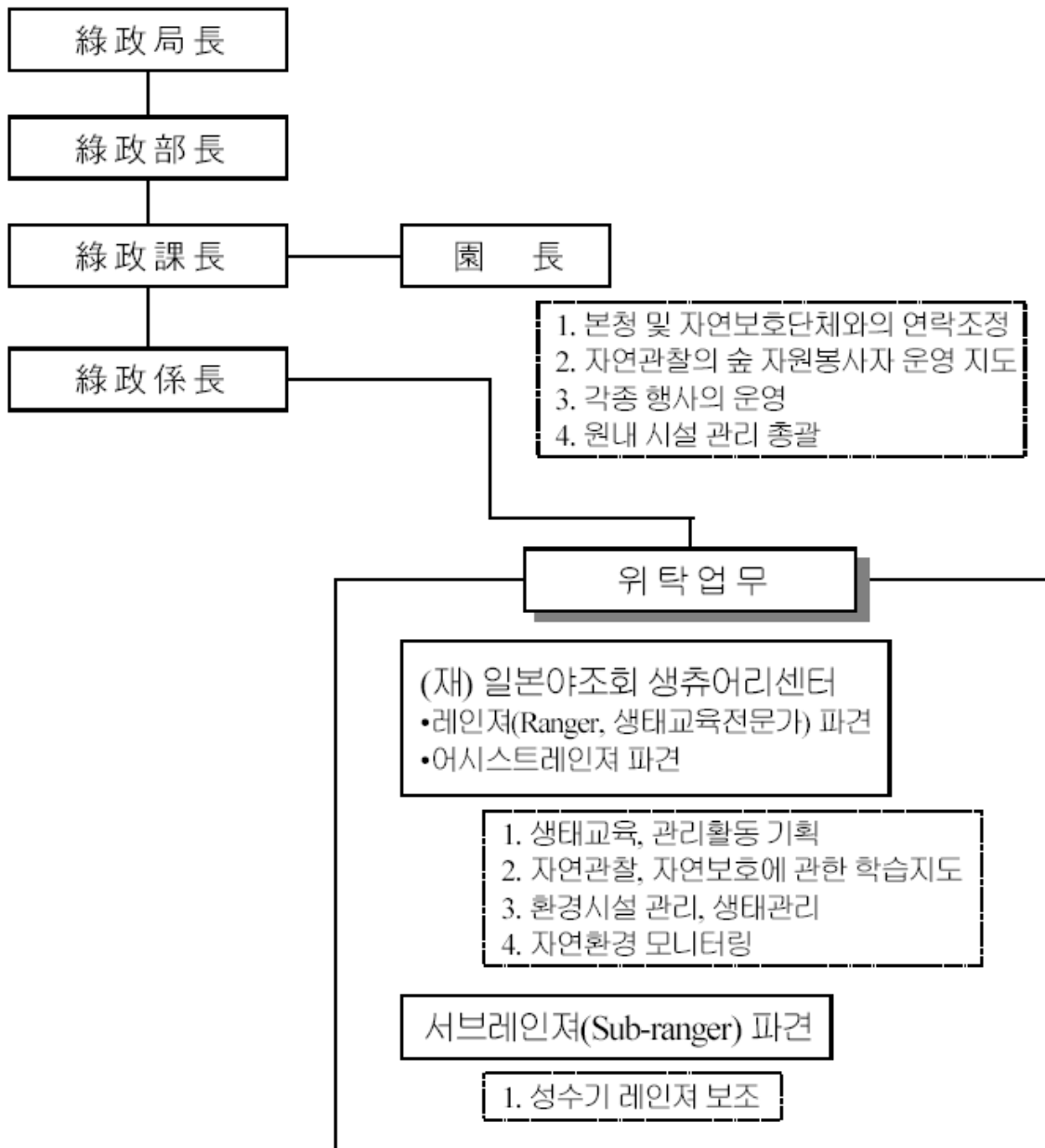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자연관찰의 숲 생태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1995)

구분	프로그램 명	회수 및 참가자	대상자
관심층 (입문)	숲을 걸어요	12회 346명	일반인, 처음 찾는 사람
	반딧불이 야외 해설회	6회 1,509명	일반인
	곤충 탐험	33회 332명	일반인
	정기 탐조회	10회 488명	일반인
	자연관찰 하이킹	2회 86명	일반인
	여름을 즐겨요	1회 35명	일반인
	메뚜기 월드컵	1회 35명	일반인, 가족단위 참가
	억새 세공과 초원의 생물들	1회 40명	일반인, 가족단위 참가
	풀피리와 가을 들꽃 관찰	1회 30명	일반인, 가족단위 참가
	첩 세공, 공작교실	1회 43명	일반인, 가족단위 참가
	숲의 악기 만들기	1회 29명	일반인, 가족단위 참가
	숲의 요정을 찾아요	1회 14명	일반인, 가족단위 참가
	봄의 스케치 대회	1회 24명	일반인, 가족단위 참가
	지질과 화석 관찰회	1회 29명	일반인,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환경보전 자원봉사자 교류회	1회 28명	자원봉사 희망자, 고교생 이상
이해층(지식) 실천층(행동)	잡목림 세미나	3회 80명	중학생 이상
	주니어 레인저 스쿨(JRS)	6회 26명	초등학교 4년~중학교 2년
	자연안내인 강좌	3회 87명	자연해설 자원봉사자, 고교생이상
	잡목림 체험입문 강좌	3회 80명	중학생이상, 숲 관리 자원봉사자
	지역 환경보전 자원봉사자교류회	1회 172명	일반인, 단체



[자연관찰의 숲 조직도]



자원봉사자 조직(横浜자연관찰의 숲 친구들)이 이루어져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조직의 지도와 운영에 대한 조인은 레인저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주요 자원봉사 활동은 환경교육, 생태관리, 환경조사 등의 3부분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1995년에는 월별로 143~239명, 연간 총 2,462명이 활동에 참여했다고 한다.

[자연관찰의 숲의 주요 자원봉사활동]

구분	내용
생태교육	- 생태교육 프로그램 보조, '숲을 걸어요', '숲의 요정을 찾아요' 등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 주니어레인저스쿨(JRS)의 기획운영, '환경보전 자원봉사자 교류회'의 보조
환경관리	- 생태원 발만들기, 반딧불이 습지 정비, 물새용 부도 보수, 야생화 보호, 인공림관리, 잠자리연못조성 등
환경조사	- 새집조사 보조, 원양서식조사, 올빼미서식조사, 잠자리연못생물조사, 부도이용 생물조사 등

환경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생태교육 및 환경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다. 주요 사업

◎ 생태교육

1995년의 경우 생태교육 프로그램 계획은 63회였고 실제 실시는 98회 이었으며, 단체를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이 진행되어 48단체 879인이 참가하였다(横浜自然觀察の森, 1996).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관심층 프로그램(입문), 이해층 프로그램(지식), 실천층 프로그램(행동)으로 나누고 참가자의 흥미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 가능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도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역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연관찰의 숲 환경조사 내용]

구분	조사항목	소항목	조사목적 및 내용	실시시기	
생물 기초 조사	조류서식 현황 조사	번식기조사	번식중의 환경별로 서식밀도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적으로 조사를 실시함	6~7월	
		월동조사	월동하는 종의 환경별 서식밀도를 추정	12~2월	
	반딧불이서식 현황 조사	성충개체수조사	발광수로 성충의 개체수를 추정	6~7월	
	새집 조사	번식조사	새집 이용상황을 파악하고 좋은 서식환경을 밝힘	4~6월	
	곤충상 조사	서식종의 총목록 작성을 목적으로 기존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아래와 같은 조사를 통해 보완함			
		일반조사	낮에 전지역에 대한 출현종 파악	년간	
라이트 트랩조사		밤에 라이트를 이용하여 곤충채집 조사	5~8월		
환경사진	촬영과 정리	환경변화 기초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사계절동안 원내의 대표적 경관을 촬영	년간		
환경 영향 조사	잡목림식생 모니터링	식생구조, 식물상조사	자원봉사자에 의해 관리되는 잡목림의 식물현황 모니터링	5월, 10월	
	탐방객 행태 및 안내방법에 대한 조사	광장의 식생회복	탐방객에 의한 답압으로 나지화된 곳의 식생회복 과정을 추적조사	4월	
		이용상황	탐방객 이용상황 조사	년간	
		교육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 주최행사 중 일부에 대한 참가자 숙성, 희망사항 등 파악	년간	
		안내 효과조사	탐방객 체제시간, 만족도 등 파악	3월	
관찰 자원 조사	생물계절조사	데이터베이스 작성	생물계절의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년간	

요코하마(横浜) 자연관찰의 모리토모(森友)의 모임이라고 자원활동 조직이 있으며 400명의 남녀 노소가 활동을 통하여 시설의 운영과 환경보전 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모리토모(森友)의 모임은 1988년10월에 만들어졌으며 요코하마 자연관찰의 숲을 중심으로 자연에 대한 안내·조사·관리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연을 찾고, 자연을 배우기 위해서 서로 교류 하는 장소를 만들고 자하며 자연이나 자연 보호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여 자연을 지켜나가는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자연 보호의 방법이나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실천을 통해서 터득한 방법을 보급하고자 한다. 생태교육 프로그램 계획은 100여회 실시하고 있으며 단체를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입문 프로그램(관심층), 지식 프로그램(이해층), 행동프로그램(실천층)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참가가 가능하며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도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최종적으로 지역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날 (8월 17일 ,일요일)

[일정]

8:00 숙소를 옮기기 위해 퇴실준비 완료
 8:30 아침식사, 짐보관후 출발
 9:30 자연교육원 도착
 10:00 - 나비의 일생
 11:00 - 생물의 관계

13:30 하라주쿠역도착, 요요기(日比谷)공원, 명치신궁 관람하며
 올림픽청소년회관으로 짐을 찾고 신오쿠보(新大久保)의 민박집으로

방문지 9. 자연교육원(自然教育園)

관련정보

- 연 락 처 : 03-3441-7176 FAX : 03-3441-7012
- 주 소 : 〒108-0071 도쿄도 (東京都) 미나토구 (港区) 백금 대5가 21번 5호
- 홈페이지 : <http://www.ins.kahaku.go.jp/>
- 입장료 : 일반, 대학생 210엔 , 아동, 학생 60엔
 매주 월요일, 휴일 휴원

[찾아가기]

JR 야마노테선(山手線)을 타고 JR야마노테선, 메구로(目黒)역에서 도보 10분,

가. 자연교육원에 관하여

자연교육원은 도쿄(東京) 도심에 있는 옛날의 무사시노(武藏野) 시의 모습을 남아있는 숲이다.

일반적인 식물원이나 정원과 달리 도쿄 (東京) 의 식물상을 가능한 한 자연본래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교육원이다. 자연교육원은 400~500년 전 중세의 호족의 저택이었으며 타카마츠 지방 영주 마쓰다이라 요리시게의시모야시키(에도시대), 쿠가 해군의화약고(메이지 시대), 백금 황실 소유지(타이쇼 시대)로 일반사람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던 곳으로 풍부한 자연이 남겨 있으며 쇼와(昭和)24년(1949년)에 천연기념물 및 사적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다. 거대한 도시가 되어버린 도쿄에 한적한 숲속인 양 착각하게 하는 자연교육원에는 나무와 꽃이 무성하여 새들과 나비 그리고 곤충들의 낙원이다. 이곳은 모밀잣밤나무의 대목, 코나라숲, 층층나무숲, 초원, 습지, 3개의 연못, 삼나무등 약70종 8000그루가 있으며 굵기10cm이상의 수목이 3000여 그루가 된다.



나. 연구 활동

◎ 까마귀 조사

동경을 다니다보면 도심의 길가에서도 까마귀 울음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자연교육원에서는 토쿄를 중심으로 까마귀의 조사를 하고 있다.



◎ 생물자료

멸종위기의 세계의 식물이나 동물의 삶의 자료 후세에 남기고자 여러지역의 정보를 모아 정리하고 있다. 주로 도심부의 관찰 기록이 약 18만건정도 모아 있으며 정보를 공개하여 검색,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있다.

· 수목의 1일 성장

나무가지의 하루 성장에 대한 조사를 한다. 맑은 날은 낮경에 1번 수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 햇빛을 받으며 광합성과 잎의 증산작용을 하는데 물의 흡수는 조금 늦어진다. 이에 수분의 흡수전에 성장을 위해 수분이 조금 마르게 되면서 가늘어지고 증산이 멈추면서 조금씩 원래의 굵기로 돌아오게된다)



· 계절별 성장

나무에 스프링채운후에 알루미늄밴드를 감아 밴드의 나무가 성장함에따라 꺾친 부분이 어긋나는 위치로부터 성장을 측정한다. 자연교육원의 나무들의 종류에 따라 성장계절, 성장이 정지하는시기등을 조사한다.

나. 숲체험 프로그램

전문 연구 직원이 교육원을 안내 해설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한다.

◎ 안내·해설프로그램 : 교육원내를 찾다니면서 동식물을 관찰하며 교육이 진행된다.

· 아이와 함께하는 토요일:

조릿대 나무잎으로 장난감 배만들기,동백나무 잎의 벌레만들기, 씨의 모형 만들기,덩굴 식물, 매미와 잠자리 만들기,도토리 동물 만들기, 물억새풀로 올빼미 만들기,열매 피리 만들기

· 일요안내교실: 10시 , 11시 2회 운영

귀화 동물, 나비의 먹이, 나비의 일상 생활, 도시와 산성비, 숲의 변천 꽃과 곤충, 단풍의 구조, 낙엽의 행방

◎ 강좌 : 분야별로 전문가 선생님을 초대하여 진행한다.

생태학 강좌, 자연보호 강좌, 야외 생태 실습

* 프로그램

식물 군락의 천이의 조사 방법,토양 동물의 다양성 찾기, 식물의 군락,조류 생태의 조사 방법,수생 곤충의 조사 방법,자연 교육 교재의 만드는 법



다. 상설프로그램참가

◎ 나비의 일생

진행자: 스가와라(菅原十一,すがわら とおいち)

전공: 무기 환경

직명: 주임 연구관

취미: 아이의 시절 기억한 「나무 타기」



◎ 생물의 관계

빈미 쇼우지(濱尾 章二,はまお しょうじ)

전공 : 행동 생태학 , 조류 생태학

직명 : 연구관



여섯째날 (8월 18일 ,월요일)

[일정]

9:00 아침식사후 걸어서 신오쿠보(新大久保)역
10:30 신주쿠역
10:45 동경도청
11:30 신주쿠 역 NICE와 점심
2:00 ~ 6:00 JEEF만남

[찾아가기]



NICE 찾아가기



JEEF 찾아가기

방문지 10 . N I C E (일본국제 워크 캠프 센터)

(Never ending International workCamp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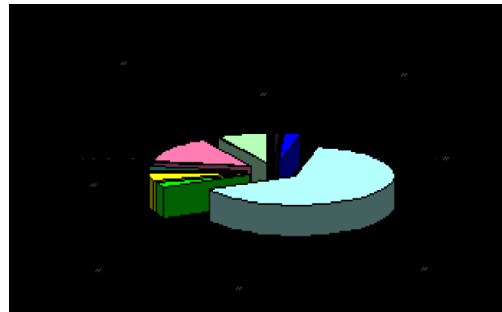
관련정보

- 연락처 : 03-3358-7140, FAX 03-3358-7149
- 주소 :160-0022 도쿄도 (東京都) 신주쿠구 신주쿠 (新宿) 2-4-2-701
- 홈페이지 : <http://nice1.gr.jp>
- 연락 담당자 :nice@nice1.gr.jp

가. 일본국제 워크 캠프 센터에 대하여

◎ 현황

- 설립 : 1990년 해외 워크 캠프 경험자7명에 결성
- 회원 : 1034명(2001년10월 현재)
- 운영 및 조직 : 연 6회의대표자 회의
연 3회의총회에서
중요 사항을 결정하며 팀별로 운영



◎ 활동이념

세계적인 빈곤, 인종차별, 전쟁, 환경파괴등을 극복하면서 다양한 생태계·문화·개성이 공존하는 포스트모던 지구 사회를 개척하고자 한다.

1) 새로운 환경·복지·지구 협력을 만든다

자유·신선한 발상과 행동력으로, 가볍고 즐거운 자원봉사를 펼치면서, 확실히 성과를 추구한다. 경쟁·팽창 우선의 사회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과의 정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지역이나 자원봉사 단체를 응원한다

주민들과 함께 만남과 활동의 장소를 만들어간다. 지역에서 고립하는 단체와 주민을 연결하거나 국내외의 젊은이를 불러 들여 함께 지역에 맞는 지역 만들기를 진행시킵니다.

3) 지구촌의 우정·이해·연대를 기른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지역의 주민이 함께 노동을 하면서 지구적인 시야와 감성, 어학실력이 다져진 미래의 인재를 기릅니다.

◎ 사업

일본·아시아에서 국제 워크 캠프를 주최

세계의 국제 워크 캠프에 일본인 파견(2000년 55개국에 583명파견, 12년간 72개국에 3784명 파견)

일본 각지에서 환경복지등의 주말 워크 캠프 주최(200년 17현에서 124회, 주민포함 1292명 참가)

◎ 회원참가 프로그램

·녹색 양부모: 1~2년간, 집이나 학교에서 씨·모종을 키워 기금마련, 아시아의 식목 지원.

“아시아의 대지를 푸르게 만들자”라는 취지하에 시작하였으며 1999년부터 약 1300명 참가

분당환경시민의모임

◎ 네트워크 사업

93년 일본의 NICE와 국제 연합(UN) CCIVS가 네트워크의 구상하여 95년 3월에 러시아 TNW, 트레이닝&네트워킹워크 캠프를 개최하여 아시아 각국의 NGO 청년이 함께 워크 캠프를 하며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97년에 중국(中國), 2000년에 베트남에서 개최하였다.

- NVDA (아시아·볼런티어 발전 네트워크)
- 구리닝아시아 (=대지와 도심에 녹색을 기르다)
- 브레이스릿 기획 (=아동 매춘을 줄일 것 같다)

나. 국제 워크 캠프

세계의 젊은이가 2~3주간 함께 생활하며 지역의 주민과 환경, 문화보호, 복지, 농촌개발 등의 부분에서 자원활동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숲의 손질, 동식물의 보호, 유기 농업의 응원, 유적의 발굴, 학교의 건설, 마을축제의 운영 등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진행하고 있다.

워크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봉사이고, 어학의 측면에서도 각국의 영어사용학생들이 모이므로 지역을 가리지만 앓는다면 워크캠프는 훌륭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워크캠프는 10~30명의 참가자들로 이루어지며, 이 참가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회활동을 하며 일하고 지역의 생활수준대로 지내게 된다.

워크캠프들은 참가자 개인들에게 그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지구의 미래를 공유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들을 함께 생각할 기회가 되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는 세계평화를 만드는데 공헌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워크캠프 관련기구들이 있고 각 기구들이 각각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세계의 여러 기구들과 교류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주고 받고 있다. 맹산반딧불이 자연학교에서는 2003년 5월8일(목)~21일(수)에 독일, 프랑스, 일본(2인)과 한국자원봉사자들이 맹산에서 생활을 하면서 평일에는 나비원을 만들고 주말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교육 보조교사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에 학구 국제워크캠프 기구인 IWO와 일본인 참가자 중 전 NICE 활동가를 통하여 유대관계를 갖으며 함께 공동 기획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다. NICE 관계자와의 만남



방문지 11 . 일본 환경교육 포럼(JEEF) (Japan Environmental Education Forum)

관련정보

- 연 락 처 : 81-3-3350-6770 FAX 81-3-3350-7818
- 주 소 : (우)160-0022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5-10-15
트인즈 신주쿠 빌딩(ツインズ新宿ビル)4F
- 홈페이지 : <http://www.jeef.or.jp>
- 연락 담당자 : MIYAKE(miyake@jeef.or.jp)

가. 단체 소개

1987년 일본에 자연학교를 더 많이 만들기를 원하던 사람들이 모여 '제 1회 기요사토(清理)포럼'을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의 환경교육 보급을 위한 연구와 교류활동을 계획하여 왔으며, 자연에서 환경교육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97년에 환경성 관할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다. 최근까지 "일본형 환경교육의 제안"(1992년), "환경해설입문"(1994년)을 출판하여 환경교육분야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JEEF(일본환경교육포럼)은 광의적인 환경교육 중 처음부터 자연체험형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의 거점으로서 "자연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도자가 상주하는 자연체험시설의 중요성을 주창하였다.



JEEF(일본환경교육포럼)은 일본에서 환경교육활동의 보급을 목적으로 1992년 9월에 설립된 임의단체로서 주로 자연체험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활동에 관한 정보수집과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인재양성, 출판물의 발행 등을 하고 있다. 회원제로 현재 약 6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1994년에 실시한 자연학교에 대한 예비조사연구로부터 자연보호 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연학교의 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일본의 상황에 적합한 자연학교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1995년에 지구환경기금의 조성을 받아 일본에서의 자연학교활동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일본에 맞는 자연학교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 각지의 74개 자연·환경교육실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1995년 12월에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 단체의 목적

자연과 접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구 전체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되기 위해 환경교육을 보급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교육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환경 교육의 보급), 자연 학교를 좀 더 많이 만드는 것(자연학교의 보급), 도상국에 환경 교육을 넓히는 것(도상국 환경교육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 활동 내용

년도	○내용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키요사토 포럼」 발족 ○ 연1회 키요사토 미팅을 개최 ○ 일본 환경 교육 포럼 발족
1993	○ 강좌 「시민을 위한 환경 공개 강좌」 시작
1994	○ 「자연 학교 연구회」 발족
1995	○ 「환경 교육 인스트럭터 양성 프로젝트」 시작, 이후 연1회 개최
1996	○ 심포지엄 「자연 학교 선언」 개최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성 소관 「사단법인 일본 환경 교육 포럼」이 되는 「자연 너무 좋아 클럽」 사무국 시작 ○ 「환경 교육 청년 미팅」 개최 ○ 자연 해설자 지도자 양성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의 숲 세미나」 시작 ○ 「자연 너무 좋아 페스티벌」 개최 ○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연구회」 운영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 파크 레인저」 전국 사무국 운영 ○ 인도네시아 환경 교육 미팅 ○ 키소 미카와 자연 발견관 운영(~2001해) ○ 「자연 학교 지도자 양성 강좌」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체험 프로그램, 자연 만남 시설등 데이터베이스 작성 ○ 일중환 환경 교육 프로젝트 ○ 다누키호 만남 자연학원 운영 ○ 식목일 환경 대신 표창식 운영 ○ 자연체험 활동 추진 협의회 발족 지원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팬 GEMS(제무즈) 센터 개설 ○ 자연체험 요구 조사 ○ 연속 강좌 「초록의 환경 강좌」 개최 ○ 시라카와고 자연 학교 기본계획 참가 ○ 일중환국·아시아계국 환경 NGO 데이터베이스 작성 ○ 자연체험 이벤트·페어 운영 프로그램 기획

◎ 포럼의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교육, 자연 학교, 서적 소개, 이벤트등의 정보제공 ○ 포럼 단체 회원의 자연체험 프로그램, 해외 투어등에 5~10%정도 할인 ○ 회보잡지 「지구의 어린이」(연10회)제공 포럼이 관계하는 이벤트에 우선적으로 참가 ○ 「키요사토 미팅」 ○ 「지역 미팅」(홋카이도, 토호쿠, 추우부, 생가리(칸사이), 안·시코쿠, 큐슈우(큐슈)) ○ 「시민을 위한 환경 공개 강좌」 등. ○ 포럼으로 취급하고 있는 서적·보고서를 회원 가격으로 구입
--

◎ 회원이 되려면?

환경 교육에 대해 알고 싶고 활동하고 싶은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비 : 개인 6,000엔·학생 3,000엔(입회금 무료), 단체 20,000엔(입회금 10,000엔) ○ 회보의 발송·포럼 주최 이벤트에의 우대 등
환경 교육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 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비 : 개인 20,000엔(입회금 10,000엔), 단체 80,000엔(입회금 20,000엔) ○ 회보의 발송, 정회원 네트워크(이사회에서의 승인이 필요)
기업의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NGO를 지원하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회에 100,000엔 : 입회금 없음 ○ 회보의 발송, 협동 사업의 전개 등
부담없이 환경 교육 교육의 정보를 알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디트 카드 연회비 : 1,800엔(초년도 무료) ○ 카드로 지불한 금액의 0.5%가 환경교육보급 지원금에 기부 ○ 회보 발송 대신에 홈 페이지상의 회원 전용에서 정보입수

나. JEEF와 자연학교 활동

환경 문제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고 해결을 향한 여러가지 교육·학습 활동을 환경 교육이라고 한다. 환경교육에 있어서 자연속에서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자연체험형의 배움의 「장소」와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제공하는 조직이 「자연 학교」이다.

자연학교는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하게 되어 감동을 통해 생태계의 일상을 알게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이 변화해 나가는 배움의 계기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자연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자연에 대해 전문가로서 이끌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이다. 지도자란 배움을 촉진하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그 지역의 자연계의 지식이나 자연체험을 기초로 사람과 자연의 만남을 이끄는 것은 물론 사람과의 풍부한 커뮤니케이션력을 가지고 그룹에서의 즐거운 배움을 촉진한다. 또한 참가자가 환경을 깨뜨려 온 자신들의 생활습관을 반성하면서 사회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며 자신의 위치와 삶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의 깊은 연결의 고리를 만들어주고 이어주는 사람이다.

다. JEEF 방문

우리가 JEEF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단체관계자들이 우리를 맞이하였으며 우리가 준비한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단체소개, 경기민간환경교육네트워크 자료의 발표에 이어 JEEF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으며 각분야별 담당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환경교육 현황 및 운영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1987년 기요사토라는 지역에서 열린 기요사토 포럼을 출발점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5년간 활동후 JEEF가 1992년에 만들어 졌고 1997년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졌다.

JEEF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3가지가 있습니다.

- ① 자연학교를 활성화하고 안내자를 양성하는것.
- ②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것.
- ③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것.

자금문제는 회원회비, 조사활동등을 통해 정부 지원금 회원은 단체회원, 대기업,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수는 450명(회원단체, 개인)



◎ 어린이 파크 레인저 활동

환경성, 문부과학성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는 28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11개 지구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각 단체에 맡겨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1,000여명의 어린이들이 11개 지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기요사토 포럼의 출발

1987년 자연학교를 많이 만들어 보자 하여, 개인 개인이 참여로 모임을 갖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연학교라는 명칭도 없었고 환경교육 이라는 말도 없는데 “일본형환경교육의 제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안(日本型環境教育の提案)”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5년 동안 활동하고 1992년 JEEF가 출발하게 되었다.

단체와 단체간의 모임은 장애가 많으므로 개인과 개인이 모여 정보를 교류하고 각 단체에 돌아가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20년 전부터 활동한 사람들이 각 지역에 돌아가 자연학교를 시작하였고 그 때 당시엔 제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사업들이 있어 자체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일반인들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지도자 육성은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키면서 각 지역에 돌아가 직업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JEEF에서는 교육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돌아가 활동을 할 때에는 JEEF가 교육하고 인증서를 주는 것에 있어 JEEF에 대한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JEEF의 인증서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야조회에서도 지도자양성 교육후 자체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자연관찰의 숲의 레이저들은 일본야조회에서 양성된 지도자들로 운영하고 있다.



◎ 지도자양성 교육

「환경의 세기」라고도 말해지는 21세기를 향해 전국 각지에서 자연 학교등의 배움의 장소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프로로서 전문적인 자연학교 지도자는 부족하다. 환경 교육을 추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건전한 사상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환경 교육 포럼(JEEF)은 이러한 장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육성을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자연 학교 지도자 양성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강좌는 현재 각 지역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이 검토되고 있는 각종 자연 학교에서 실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강의, 실습, 인턴등의 커리큘럼을 습득한 후 「자연 학교 지도자」로서 인정해 사회에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후에는 자연 학교에 대한 풍부한 지도 경험을 갖고 자연 학교를 조직 운영을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모집이 되면 기초 학력시험(국어, 영어, 수학등)을 치루지만, 입학 면접시 자연을 사랑하는 정열과 열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선발하는 기준이 된다. 그 이후 6개월 이론교육을 하고 이이후 JEEF 정회원단체(자연학교)에 가서 지역학,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교육, 안전교육, 자연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는 실습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주최 : 사단법인 일본 환경 교육 포럼

모집대상 : 20세 이상 , 장래 프로로서 환경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모집인원 : 10 ~ 20명정도

수강료 : 40만엔 (장학금 제도 있음)

·양성위원회가 1~2년 동안 커리큘럼(curriculum) [전 교과 과정]을 짜서 학문적인 것이외에도 나와 지역에 관한 연관성과 특히 인간성을 중요시하는 기초가정과 전문가정과정으로 나누어 커리큘럼(curriculum)개발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커리큘럼(curriculum)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초 커리큘럼 과정

[일정] 모 집(8월~12월20일)→ 입학 심사(1월) 서류 심사, 면접, 시험등에 의한 전형
→개교식·오리엔테이션(4월)→OJT(자연 학교 실습) (4월~9달)

[프로그램]

- ① 자연 학교 원론: 자연 학교에 대하여, 일본형 환경 교육에 대하여
- ② 생태학 개론: 지구 환경론, 생태학, 응용 생태학
- ③ 환경학 총론: 환경 문제 개론, 환경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 환경과 사회적 공정
- ④ 환경 교육 총론: 환경 교육론, 글로벌 교육론
- ⑤ 환경교육 방법론 : 심리학으로부터의 교육 이론, 호리스틱 교육이론, 체험 학습법의 교육 이론
- ⑥ 야외 활동론 : 현대 사회와 야외 활동,야외 활동의 현상과 과제, 자연체험 활동 안전 대책
- ⑦지구 환경론 : 환경 문제와 사회의 재구축, 지구 환경 문제와 사회경제 시스템, 환경보전형 사회의 구축과 시민참가
- ⑧ 지역학론 : 지역을 배우는 (지역학), 지역을 읽는 (환경 문화론), 지역을 노는 (환경 관광론), 지역을 만드는 (마을 만들기론)

·전문 커리큘럼 과정

- ① 자연에 대한 이해- 야생성, 감성
- ②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연에 이해
- ③ 인간에 대한이해
- ④ 관련하는 방법·기술
- ⑤ 사는방법
- ⑥ 생활하는 방법
- ⑦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 ⑧ 자연학교의 운영기초
- ⑨ 종합평가법

라. 오카지마 전무이사와의 대담(interview)

오카지마전무이사는 한·중·일 환경교육 사업 (TEEN)에 대한 일본측 파트너로 현재 JEEF·CONE·ESDJ를 총괄하고 있으며, 글로벌500을 수상하였고, 2002년도에 “자연학교을 만들자(自然學校をつくらら)”를 저술하였고, 일본 환경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음 내용은 오카지마전무이사와의 대담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TEEN사업시 JEEF를 일본정부가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은 환경교육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환경교육학회가 선정되었으며, 중국은 정부기관이 선정되어 2002년도에 진행한 바 있다.

TEEN의 확대

·아시아 전역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베트남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TEEN 홈페이지에 대화방을 만들어 많은 의견이 올라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회원회비로 민간환경단체가 운영되지만 일본의 경우 민간환경단체가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무척 힘든 실정이다.

NGO, NPO들의 활동가들이 인건비가 너무 싸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을 한다하더라도 5년 10년을 넘지 못한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시작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오래 근무하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충분한 생활비를 꾸준히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인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

사례1

이러한 환경 속에서 프로그램을 정부에게 요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제안을 하면 결국 요구한 단체가 그 프로그램운영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운영하는 기반을 만든다.

사례2

JEEF에서는 예산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하고 만들어 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JEEF에서는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에서는 자금을 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시도하고 있는데, 도요타 자동차회사에서는 연간 3천만엔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보험회사가 연간 팔백만엔에서 천만엔 정도 투자하고 있다.

1년 동안 2주에 한번씩 2시간동안 시민 무료 강좌를 열며, 프로그램은 이곳에서 계획하여 운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교보환경문화재단과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미국이나 유럽을 따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나라 실정에 맞게 하면 될 것 같다.

◎ 환경교육 포럼 운영

민간단체 자연체험활동 지도자 관리를 하고 있고, 40만엔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이 있고 초보자 환경교육활동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는 자연체험에 관하여서만 지도자를 관리하고 있다.

CONE에 실시하고 있는 것과 JEEF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체험활동 지도자교육은 전부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발전되어가고 있는 단계이다.

현재 JEEF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쥬꾸바대학 체육학 야외과학연구과, 아오모리 대학 체육학 야외과학연구과, 홋카이도대학 환경과학 연구과 대학원에서 오노선생님이 그곳에 맞는 curriculum만들어 운영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학과 NGO가 연합하여 이미 미국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일본에서도 OJT(자연 학교 실습)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 NGO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전문대학 과정에서도 3~4개 전문대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자연환경전문학교의 환경교육과와 동경공과전문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학교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도 전문학교를 가는 경우가 많다.

◎ OJT(자연 학교 실습)

프로가 되기 위한 시용기간. 각 자연 학교에서 실습을 한다. 자연 학교의 다양한 운영이나 지도 업무를 실습한다. 실습기간동안은 자연학교의 책임자로부터의 일정 평가를 얻은 후 OJT(자연 학교 실습) 를 수료하게된다.

· OJT(자연 학교 실습)를 실시하는 자연학교

홋카이도 자연체험 학교NEOS, NPO법인 국제 자연 대학교NOTS,
삼림 기교학원, 목풍사, 키프포레스타즈스크르, 쿠리코마 고원 자연 학교,
일본 네이처 게임 협회, 홀 지구 자연 학교, 생태 교육 센터, Be-Nature School,
NPO법인 자연 스쿨TOEC, 야외 교육 연구소IOE, 청소년 야외 교육 진흥 재단,
환경교육NPO법인 쿠스의 나무 자연관, NPO법인 토우베츠 생태학적 커뮤니티(TEC),

◎ 중·고등학교에 관련된 문부과학성과 NGO와 연계

중·고등학교에 관련된 문부과학성과 NGO와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우수 사례는 장애아교육을 관리하는 문부과학성 분야하고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지원사업이 있다. 주 3시간을 총합적 학습을 실시하고 105시간부터 200시간까지 시간을 활용하여 정부나 NGO와 연계하는 여러 사업이 있다.

내년 예산에 100억엔이 총합적 학습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잡혀있고 시·현 등에서 소수 NGO와 연계하여 사업하는 것이 있다. 학교 선생님이 NGO와 연계하여 사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이 많아 그러한 현상이 있는 듯하다.

NGO가 공해나 각종 정부와 관련된 반대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시와 관련된 일들을 함께 하기에는 힘이 든다. 아직도 시나 현 단위의 공무원들은 NGO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산당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

학교와 NGO간의 협력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NGO와 공무원 사이에 함께 하는 일들이 늘면서 계속 좋은 감정들이 생겨나고 있다. 일본은 넓지 않은 좁은 땅에서 이러한 시간을 갖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최근 1~2년 정부와 함께 손을 잡고 파트너를 이루었고 앞으로 3~4년 내에 어느 정도해결 될 것으로 본다.

10년 전에는 NGO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일본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다시 준비하고 있다.

방문지 13 .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

관련정보

- 연 락 처 : 03-5363-2501 (FAX)03-5363-2502
- 주 소 : (160-0022) 신주쿠구 신주쿠 5-7-8 6층
- 홈페이지 : www. cone.ne.jp

가. CONE소개와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유형

1999년 1월부터 문부성의 지원을 얻어 발족한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연구회”는 일본을 대표하는 90개 이상의 관련된 단체가 참가하였다. 그리고, 문부성 , 환경청 , 건설성 , 자치성 , 농수성 , 임야청(당시) 등의 관계 부처의 담당자도 참가하여 민간이 주도하였지만 여러 행정부처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연구회에서는 개개의 단체의 지도자 양성 제도에 대해 서로의 제휴를 도모하는 것이나 일정 수준 기준을 만들어서 단체 상호의 의사소통을 진행시켜 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도자의 본연의 자세로부터 각 단체의 지도자 양성 커리큘럼을 베이스로 한 공통 커리큘럼의 작성과 함께 지도자 양성을 위해 필요한 각 단체의 연수 내용 , 연수 종료자의 등록제도에 대해 논의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 다양한 자연체험 활동의 보급에 공헌할 수 있기 위해서 “자연체험 활동 추진 협의회(CONE, Council for Outdoor and Nature Experience)”를 설립하였는데, 2002년 3월부터는 자연체험 활동 추진 협의회를 법인으로登記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과의 제휴를 도모하고 있다.

자연체험 자연체험 활동 현장

- 자연체험 활동은 자연 속에서 놀면서 배우고, 감동하며 기쁨을 전한다.
- 자연체험 활동은 자연에의 이해가 깊어져 자연을 소중히 하는 기분을 기른다.
- 자연체험 활동은 풍부한 인간성을 다져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만든다.
- 자연체험 활동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 사회를 창조한다.
- 자연체험 활동은 자연의 힘과 활동에 따르는 위험성을 이해하여 안전의식을 높인다.

자연체험 활동 추진 협의회는 “자연체험 활동 현장의 정신”에 근거하면서 , 자연을 대상으로 한 모든 자연체험 활동의 촉진에 기여해 나가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 자연체험 활동의 조사 연구나 보급·계발 등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활동의 추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민간 기관 , 단체와 기업 및 정부·지방공공단체와의 파트너십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트너십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나 지역을 넘어 자연체험 활동에 임하는 사람들이나 , 기관 , 단체간의 제휴를 통해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의 등록·활용을 시작으로 여러가지 교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도자의 명칭과 종별을 정하고 있는데, 자연체험 활동 리더, 자연체험 활동 주니어 리더, 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 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1종,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2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등록 및 지도자 등록 갱신은 다음과 같다.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유형

구분	연령구분	자격요건	갱신
자연체험 활동 리더	만18세 이상의 사람.	자연체험 활동 리더의 양성 사업을 수료하였거나 이와 동등의 연수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자로 지도자 양성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3년이내
자연체험 활동 주니어 리더	16세 이상~18세 미만	자연체험 활동 리더의 조건을 채우는 사람	
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	자연체험 활동 리더로 만20세 이상의 사람.	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의 양성 사업을 수료하였거나 이와 동등의 연수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자로 지도자 양성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3년이내
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	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로 만23세 이상의 사람.	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의 양성 사업을 수료하였고, 지도자 양성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3년 이내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 1종	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로 만25세 이상의 사람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의 양성 사업을 수료하였고, 인정 제도 위원회의 답신에 의해 이사회가 승인한 사람	1년 이내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 2종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1종 지도자로 만28세 이상의 사람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의 양성 사업을 수료하였고, 인정 제도 위원회의 답신에 의해 이사회가 승인한 사람	1년이내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ESDJ)

2003년 요한네스버그에서 열린 WSSD에서는 2014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10년이라는 의제가 채택되었다. 일본의 NGO가 이러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고 2002년에 정부에 제안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받아 들여 지게 되었고 정부는 WSSD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모든 나라들이 이 의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WSSD에서 5번에 걸쳐 국제 워크샵을 개최를 하게 되었고, 2005년~2014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10년이라는 의제 2002년 12월에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권, 여성의10년등이 채택되었기도 했다.

이러한 의제들이 채택되기는 했지만 현재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현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이러한 의제들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교육 부문에서도 앞으로는 잘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의제는 정부나 기업 지금까지 실적을 쌓아온 NGO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 할 것이다. 그래서 NGO들이 각자 정부에 이러한 일들을 제안하는 것보다 함께 정리를 해서 연대를 통해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2003년 6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10년이라는 임의 단체를 만들게 되었고, 현재 재단법인, 사단법인, NGO법인등 6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환경교육 단체로는 일본자연보호협회, YMCA, 일본야조회, 걸스카웃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이외 인권문제, 청소년 단체등에도 함께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문부성, 환경청, 외교부등 정부단체와 주기적인 협조를 한다.

※현재 JEEF 사무국에 소속 직원2인으로 구성운영 되고 있으며, 참여단체중 27명의 프로젝트팀이라는 운영위원을 구성, 현재 60개 단체를 중심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운영되고 있다.

일곱째날 (8월 19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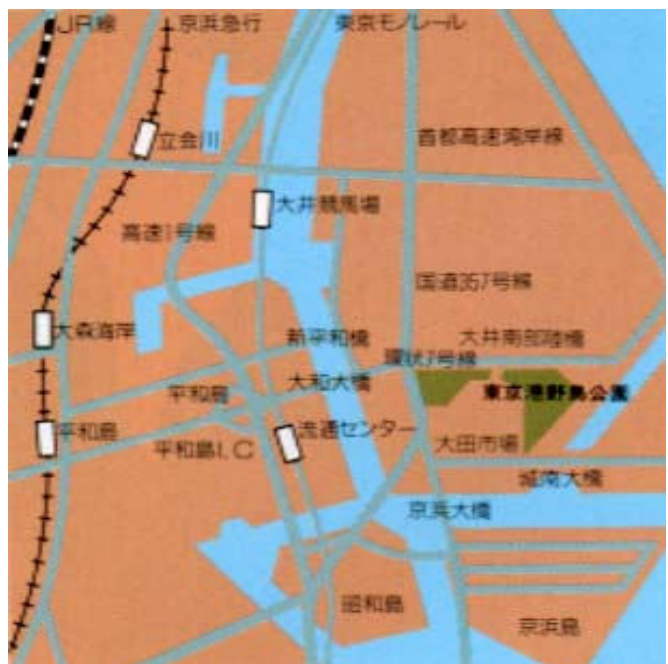
[일정]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
 14:15 하마마츠초역->모노레일 -> 류초센터역
 14:50 동경만야조공원 도착
 16:40 류초센터역->숙소로
 10:00 최종 평가회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 찾아가기]



[동경만 야조공원 찾아가기]



방문지 13 .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SHU)

(環境NPO 特定非營利活動法人樹木環境ネットワーク協)

관련정보

- 연 락 처 : 03-5366-0755 (FAX)03-5366-0688
- 주 소 : (162-0065) 신주쿠구(新宿) 스미요시마을(住吉町)1-20 角張ビル 4층
- 홈페이지 : <http://shu.m78.com/>

가. 단체소개

SHU는 구리세이바 검정 제도를 주관하는 단체이다.

◎ 연혁

- 1960년 야마노 타다히코씨를 중심으로 일본 수목 보호 협회가 발족
치료 기술 향상과 수목 보호를 중심으로 한 활동을 전개
- 1995년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 설립
- 1996년 도시 생활자와 삼림을 연결하는 숲 만들기 활동 (C.C.C.공동개최)
- 1997년 숲과 물과의 관계를 통한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이벤트의 실시
- 1998년 식물·자연 환경에 관한 그린세이바 검정 제도를 창설
야즈카타케 schooling 개최, 내추럴·가드닝(gardening) 클럽활동 시작
- 1999년 그린세이바·어드벤처의 세미나, 검정시험 시작
경제기획청 특정비영리 활동 법인에 인증
- 2000년 그린세이바·마스터 세미나, 검정시험 개시

◎ 활동의 취지

현재 우리의 생활은 자연과의 조화로부터 크게 동떨어져 환경에 큰 부담을 지우고 살고 있다.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활을 고쳐나가야 한다. 이에 당협회에서는 한사람 한사람이 자연이나 식물의 기초지식을 몸에 익혀 그것을 기본으로 각 지역에서 실천 활동을 생활화 한다면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사회 만들기에 조금이나마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 그린세이바 검정의 실시

식물이나 자연 환경·생태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펼치기 (위해)때문에, 그린세이바 검정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위원의 선생님 쪽에 의한 세미나나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한 야외학습을 개최하고 있다.

· 깊은 산중의 보전

대자연의 순환의 구조를 배워, 차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는 삼림 보호의 본연의 자세, 그리고 생태계 전체를 생각해 유지하기 위한 실천 활동에 임하고 있다.

· 사토야마의 보전, 이용, 재생

생활 양식의 변화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사토야마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있던 생활의 지혜를 배워 사토야마와 관련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도시안의 초록을 생각하는 활동

도시안에 식물이나 작은 동물의 오아시스나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의 초록생활을 하고자 한다.

친밀한 자연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사회 만들기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 정책 제언 및 계발 활동 등

NPO·기업·행정·연구기관과의 제휴를 모색해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언해 가고있다.

나.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의 등록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총칙)

제1조 이 규정은, 사단법인 자연체험 활동 추진 협의회 정관 제5조(1) 2가 정하는 곳(중)에 의한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정의)

제2조 이 규정으로 말하는 용어에 대해 각각, 다음대로 정의한다.

- (1) 지도자 양성 단체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양성 사업의 실시 단체로서 인정된 단체.
- (2) 지도자 양성 사업 별지1의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양성 공통 커리큘럼」(이하 공통 커리큘럼)의 모두, 또는 일부로서 인정된 사업
- (3) 지도자 등록 협의회가 작성하는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명부에 일정한 심사 및 수속을 거쳐 등록되는 일.
- (4) 지도자 등록 갱신 일정한 심사 및 수속을 거쳐, 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

(지도자의 명칭과 종별)

제3조 이 규정으로 정하는 지도자는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하의 명칭으로 등록한다.

- (1)-1. 자연체험 활동 리더
- (1)-2. 자연체험 활동 주니어 리더
- (2) 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
- (3) 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
- (4)-1.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1종
- (4)-2.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2종

제2장 지도자 양성을 실시하는 단체

(지도자 양성을 실시하는 단체의 종별)

제4조 지도자 양성을 실시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지도자 양성 단체
 - (2) 특정 지도자 양성 단체
- (지도자 양성 단체의 인정 요건)

제5조 지도자 양성 단체는 다음의 각 항의 조건을 채워 양성 사업 인정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 (1) 본협회의 회원인 것.
- (2) 단체 독자적인 지도자 등록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 (3) 지도자 양성 사업의 실시에 해당해 충분한 사무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 (4) 지도자 양성 사업의 실시에 해당해 충분한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것.
- (5)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를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 것.

(특정 지도자 양성 단체의 인정 요건)

제6조 특정 지도자 양성 단체는 다음의 각 항의 조건을 채워 양성 사업 인정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로 한다.

- (1) 학교 교육법에 근거하는 대학, 단기 대학, 전수학교, 각종 학교인 것. 또는, 지자체, 청소년 교육 시설인 것. 다만 대표이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 범위에서는 없다.
- (2) 지도자 양성 사업의 실시에 해당해 충분한 사무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 (3) 지도자 양성 사업의 실시에 해당해 충분한 안전 교육 및 안전 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것.
- (4)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를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 것.

제3장 지도자 양성 사업

(지도자 양성 단체의 지도자 양성 사업의 인정 요건)

제7조 지도자 양성 단체는, 따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대표이사앞에 지도자 양성 사업의 신청을 실시한다. 지도자 양성 사업 인정 위원회의 답신에 근거해, 사업의 인정을 실시한다.

2 공통 커리큘럼의 일부로서 인정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단위에서의 부분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과 (특정 지도자 양성 단체의 지도자 양성 사업의 인정 요건)

제8조 특정 지도자 양성 단체는, 따로 정하는 양식에 따라, 대표이사앞에 지도자 양성 사업의 신청을 실시한다. 대표이사는, 지도자 양성 사업 인정 위원회의 답신에 근거해, 사업의 인정을 실시한다.

- 2 공통 커리큘럼의 일부로서 인정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단위에서의 부분 인정을 받는 것이 성과
- 3 지도자 등록에 대해서는, 지도자 양성 단체를 통해 실시한다.

제4장 지도자 등록 및 지도자 등록 갱신

(자연체험 활동 리더의 지도자 등록 요건)

제9조차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연체험 활동 리더로서 등록할 수가 있다.

- (1) 만18세 이상의 사람.
- (2) 자연체험 활동 리더의 양성 사업을 수료해, 또는, 그것과 동등의 연수를 수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제5조의 요건을 채운 지도자 양성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2 1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전호의 조건을 채우는 사람을 자연체험 활동 주니어 리더와 칭해 등록한다.

(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의 지도자 등록 요건)

제10조차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로서 등록할 수가 있다.

- (1) 자연체험 활동 리더로 만20세 이상의 사람.
- (2) 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의 양성 사업을 수료해, 또는, 그것과 동등의 연수를 수료했다고 인정등 자로, 지도자 양성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의 지도자 등록 요건)

제11조차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로서 등록할 수가 있다.

- (1) 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만23세 이상의 사람.
- (2) 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의 양성 사업을 수료해, 지도자 양성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1종의 지도자 등록 요건)

제12조 차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을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로서 등록할 수가 있다.

- (1) 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만25세 이상의 사람.
- (2)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의 양성 사업을 수료해, 인정 제도 위원회의 답신에 의해 이사회가 승인한 것.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2종의 지도자 등록 요건)

제13조 차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을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로서 등록할 수가 있다.

- (1)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1종 만28세 이상의 사람.
- (2)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의 양성 사업을 수료해, 인정 제도 위원회의 답신에 의해 이사회가 승인한 것.

(지도자 등록의 수속)

제14조 지도자의 등록은 다음의 순서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1) 지도자 양성 단체는 신청을 받은 등록 희망자 가운데, 제9조로부터 제12조에 정하는 정의 요건에 적합하고 있는 사람을 일괄해 협의회에 신청한다.

(2) 지도자 양성 단체는 등록 희망자로부터 징수한 등록 수수료를 등록 수속시에 일괄해 협의회에 납입한다.

(3) 협의회는 각 지도자 양성 단체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 후,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명부에 등록한다.

(지도자 등록의 유효기간)

제15조 자연체험 활동 리더, 인스트럭터, 코디네이터, 트레이너1종, 트레이너2 종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 연도보다3해 이내로 한다.

2 모든 지도자는15조 정하는 기준에 의해 등록을 갱신할 수가 있다.

(지도자 등록 갱신의 수속)

제16조 지도자 등록 갱신은 다음의 순서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지도자 양성 단체는 갱신 희망자의 신청서와 활동력을 등록 유효기간의 1개월 전까지, 일괄해 협의회에 신청한다.

(2) 지도자 양성 단체는 갱신 희망자로부터 징수한 갱신 수수료를 일괄해, 수속 시에 납입한다.

(3) 협의회는 각 지도자 단체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 후,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 명부의 갱신을 실시한다.

(지도자 양성 단체의 인정 취소)

제17조리사회는 지도자 양성 단체가 제5조의 조건을 채우지 않는 또는 지도자 양성 단체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에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지도자 양성 단체의 자격을 취득해 지울 수가 있다.

(지도자 등록의 종료)

제18조 지도자 등록은 다음의 경우,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1) 소정의 등록 기간이 종료해,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2) 지도자 양성 단체의 지도자 등록이 종료했을 경우.

(3) 본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제의(신청)이 있었을 경우.

(지도자 등록의 수수료 및 지도자 등록 갱신의 수수료)

제19조 자연체험 활동 지도자의 등록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자연체험 활동 리더·자연체험 활동 인스트럭터·자연체험 활동 코디네이터 등 록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는, 등록자 한 명을 뒤따라3연간에2,000엔으로 한다.

(2) 자연체험 활동 트레이너1종, 트레이너2종의 등록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는, 등록자 한 명을 뒤따라3연간에9,000엔으로 한다.

2 일단 납입된 등록 수수료는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3 협의회는 징수한 등록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 가운데, 그 일부를 지도자 양성 단체의 사무 수수료로 해서 환원하는 것으로 한다.

4 이사회가 특별히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 및 갱신 수수료를 면제할 수가 있다.

제5장 잡칙

(규정의 개정)

제20조 본규정의 개정은, 협의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가 있다.

부칙

1 본규정 개정은, 2002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 관계자와 만남을 통해

단체의 시작은 1995년도에 오사카에서 시작되었으며 친환경적으로 나무를 치료하다 나무 뿐만 아니라 주의환경에 대해서도 활동을 해보자하여 시작하게 되었음.



자격증제도시험은

1단계(베이직)

2단계(어드벤스) 객관식 :식물,자연환경,역사,문화,풍습

3단계(마스터즈) 논술식:자연을 지키기 위한 이념과방법

1998년도 처음 시행할 시에는 500명이 응시하였으나 다른 단체에서 자격증제도가 많아지면서 2002년도에는 300명 정도응시 시험 이후에는 각자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함.

자격은 국가 자격은 아니며 민간자격임.

현재 1단계(베이직), 2단계(어드벤스) 는1300명통과 마스터스(3단계)는 120명통과 시험장소는 사무실이 소재한 동경, 오사카 두군데에서 1년에 한번 시행함.

아마구찌대학에서 이곳의 교재로 공부를 하고 20명정도는 그 대학에서 시험을 치룬경우가 1번 있음. 베이직코스 교재는 서점에서 구입가능하며 어드벤체,마스터스 코스교재는 협회에서 구입가능.

이후 활동으로는 습지조성, 나무목도를 만드는 활동을함.

임업을 하는 기업의 사유지에서나 오는 간벌목을 이용하여 등산로 정비 등을 하며 식생 조사도함.

사또야마(동네산) 가꾸기 사업을 많이함.

대나무숲 만들기, 청진기를 이용한 수관물 소리듣기, 야생화가꾸기, 자연물 만들기등을 하며 수목환경네트워크의 예산은 회원 회비와 자격시험비용으로 자급자족함.



3단계(마스터즈빼지)



3단계(마스터즈 빼지)



초록색(베이직 빼지) 밤색(어드벤스빼지)



자격증



자격증

방문지 14 . 동경만 야조공원

(Tokyo Port Wild Bird Park, 東京港野鳥公園)

관련정보

- 연 락 처 : 03-3799-5031
- 주 소 : 143-0001 오오타구 (大田區) 도카이 (東海) 3가1번
- 홈페이지 : http://www.tptc.or.jp/park/yacho/y_top.htm
- 이용시 간 : 9:00 ~ 17:00 (2월 ~ 10월), 9:00 ~ 16:30 (11월 ~ 1월), 휴원일 매주 월요일
입장요금 : 성인 (고등학생 이상) 300엔, 중학생 150엔 초등생 무료

가. 동경만 야조공원에 대하여

동경만 야조공원은 오오타시장(도쿄도중앙도매시장)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오오이 (大井) 부두에 있다. 야생조류의 성역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야생조류의 서식과 생육 공간을 확보하고 보호하기 위한 곳으로 매립지의 다양한 환경이 복원되어 연간 120종 전후, 개원 이래 190종 이상의 야생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도시에 살면서 자연을 접촉할 기회가 적은 이들에게 여러 모습의 자연을 관찰할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 공원 안내

1. 서쪽 담수연못과 주변

(西淡水池とその周辺)

이곳에 최초로 만들어진 연못으로 시냇물이나 제방에 내린 비도 지하의 파이프를 통해 모아져 많은 물이 모이도록 되어 있다. 연못의 주위에 심은 나무는 인접하는 간선도로의 소음과 배기가스를 줄이는 완충대의 역할을 한다.

2. 자연생태원(自然生態園)

토·일, 휴일에 자원봉사자들이 운영

하는 자연공작교실, 강습회 등과 자원봉사자모임 등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생태원내의 서담수지, 동담수지, 기수(汽水)연못, 갈대초원 등은 야생조류 등 생물의 서식공간으로서 특별한 체험형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자 이외의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다. 세이단 미즈이케 (水池) 로부터 펌프로 퍼올린 물이 공원을 순환하도록 되어있다. 잡목림이나 빈 터, 논밭은 도시화가 진행되기전의 다마 (多摩) 강 하류역 농촌 풍경을 재현한 것이다.

3. 사무소와 잔디 광장 : 휴식의 장소

4. 동쪽 담수연못과 주변(東淡水池とその周辺)

5. 조수연못(潮入りの, Shio-Iri Pond) : 간석지는 물새들의 쉬는 장소, 봄 가을 이동중에 들르는 도요새나 물떼새의 장소

6. 담수지와 그 주변 : 담수습지의 물보급과 동쪽 담수연못의 수위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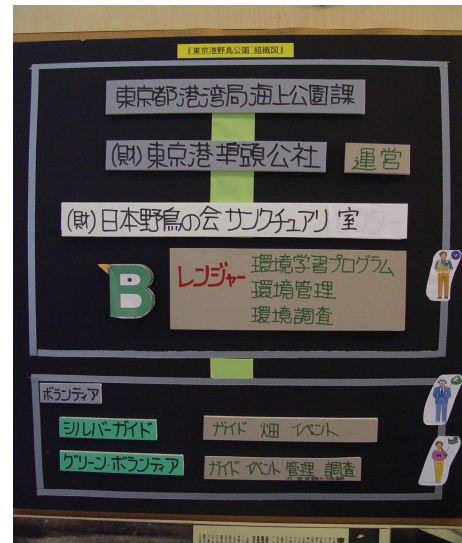


◎ 공원 연혁

- 1965년부터 해안매립 시작, 매립후 많은 야생조류가 날라 오기 시작
- 1973년 7월 大井埋立野鳥觀察그룹이라는 시민단체에 의해 이곳의 야생조류보호 시작
- 1978년 大井第7ふ頭公園(옛공원명)으로 3.2ha를 개원,
- 1989년 현재의 공원이 조성, 10월 개원
- 2000년 6월 17일 동경항 들새 공원은 「도요, 물떼새류 중요 서식지 네트워크」의 참가 습지 물떼새류의 중요한 서식처로 국제적으로 인정

◎ 운영현황

동경만 야조공원의 운영은 이분화 되어있다. 일반운영은 동경항부두 공사에 위탁 관리되며 이용자 운영·관리는 일본 야조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며 레인저(생태교육 전문가)를 파견하여 환경학습, 환경조사, 환경관리의 3분야의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네이처센터의 전시물 기획, 각종 인쇄물을 제작하고 있다. 이외에 자원봉사활동가가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활동하고있다.



◎ 자원봉사자

그린볼런티어(green volunteer): 젊은 층으로 구성되며 레인저를 보조하여 각종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환경관리 등에 참여

실버볼런티어(silver volunteer) : 65세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며 물색제복에 초록 완장을 하고 있으며 네이처센터, 야외관찰소 등에서 탐방객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건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서 일정한 연수교육을 수료한 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년간 구역을 나누어 논, 밭을 관리를 하며 잡초를 재배하여 떡방아 찧기등 활동을 하게된다. 우리가 공원을 둘러보고 나올 때 우연히 만난 자원봉사자 할아버지는 자연생태원(自然生態園)과 서쪽 담수연못주위의 자연체험활동이 진행되는 장소를 구석구석 안내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토토로의 숲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을 관리하며 작년에 심은 토토리가 싹을 튀워 무릎정도의 나무로 성장하고 있다. 한쪽에는 감자와 땅콩, 고구마밭이 있는데 이곳을 찾는 가족들과 심고, 거두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새집관리와 풀베기 관리도 하고 있다. 우리를 자연체험이 진행되는 자연생태원을 안내하시고 퇴근시간 30분전에 정확하게 마무리를 하시고는 남은 일을 하러 가셨다.



* 도쿄도 향만국의 「해상 공원」

「해상 공원」은 자연 환경을 회복하여 도민의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는 장소로 도쿄도가 구상, 설치, 소관하는 공원을 말한다. 동경의 바다는 사람들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었으나 쇼와 30년대 이후의 고도 경제성장과함께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규모 매립에 의해 도민과 바다와의 관계가 끊어져 가기 시작하였다. 쇼와 45년이후 바다의 역할의 회복을 위한 장소로 도민이 바다나 자연과 만남, 스포츠나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다음과 같은 「해상 공원」을 구상하여 동경만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의 물을 정화하여 도민에게 제공하며 도민이 지역적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참여하는 공원이다. 해상 공원은 42개이며 그 중 36개의 공원을 재단법인 동경항 부두공사가 수탁해 관리하고 있고 3종류로 나누어 관리를 한다.

·해변 공원: 자연 환경의 보전회복으로 물을 즐기는 장소

오오이부두중앙해변공원, 도쿄 미나토노새 공원, 쇼난지마해변공원,오다이바해변공원
타즈미의 숲 해변 공원, 와카스 해변 공원, 카사이 해변 공원

·부두 공원: 부두의 환경의 정비를 통해 경관을 즐기는 장소

컨테이너 부두공원,토키야부두공원,쇼난지마부두공원 ,케이힌지마 부두공원
아오미중앙 부두공원, 새벽 부두공원, 페리부두하루미 다리공원, 타케시바 부두공원
시나가와북 부두 공원, , 시나가와남 부두 공원, 하루미 부두 공원

·도시공원: 임해 지역의 자연 환경의 회복으로 초록을 즐기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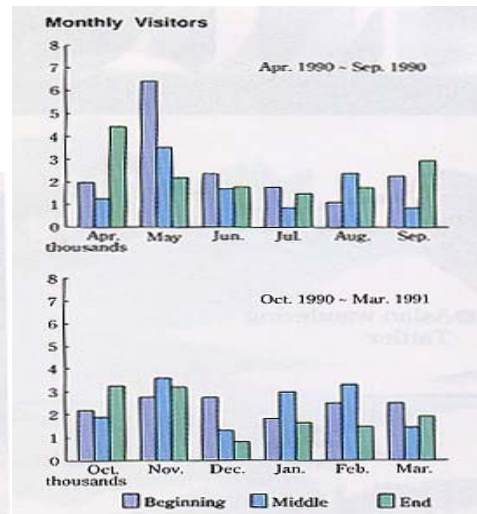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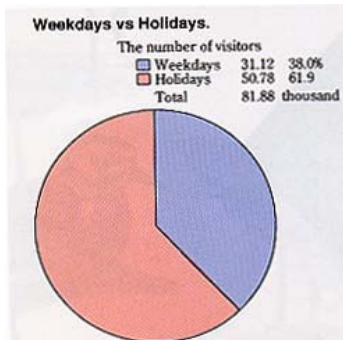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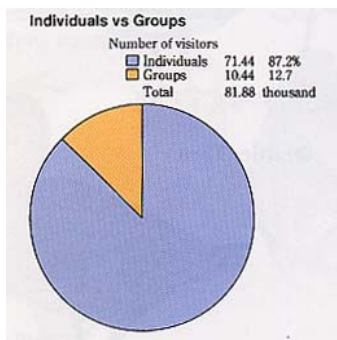
쇼와지마북 도시공원, 미나토가 언덕 부두공원, 케이힌지마 츠바사 공원
싱키바공원, 쇼와지마남 도시공원,오모리도시공원, 케힌운하도시공원,아오미 도시공원
오오이 부두도시공원, 토키야도시공원, 쇼난지마도시공원, 케이힌지마 도시공원
아리아케 테니스의 숲 공원, 타즈미의 숲 도시공원,유메노시마도시공원

◎ 이용안내

동경만야조공원에 오면 야조 관찰, 환경 학습, 자연 관찰, 산책, 행사에의 참가등 일반적인 이용이 가능하며 이곳을 찾는 방문자의 통계를 보면 개인별 방문자가 87.2%이다.

이 외에 야조 관찰 외 환경 학습, 구회나 사진 촬영회, 평생 학습 단체의 이용과 소풍, 수학여행, 야외학습, 연수, 조사, 연구, 대학 실습등 학교별 이용이 가능하다.

이곳은 일반적참가자의 휴일 방문자가 61.9%로 많으며 월별 이용자들을 보면 봄, 가을 이용객이 많지만 관계자들은 이곳에 새 관찰을 위해서는 겨울철 관람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곳을 자주찾는 관람객의 경우는 온, 난방이 가능한 네이처센터의 환경을 알기에 겨울철 관람객이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인다.



나. 네이처센터 (nature center)

자연관찰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아담한 건물의 지상 3층 지하 1층의 탐방객안내소기능을 하는 네이처 센터가 있다.

입구는 2층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을 안내하는 자료와 행사안내자료, 월별 관찰가능한 새 안내표, 새들의 특성과 이야기들의 자료가 이곳을 기념하며 자료에 찍을 수 있도록 스탬프 도장이 있다.

이곳 관찰센터에서는 동쪽 담수연못 조수연못(Shio-Iri Pond)사이에 있어서 양편의 들새를 배치해 둔 망원경을 무료로 이용하며



관찰할 수 있고 망원경아래편에 준비된 도감을 이용하여 관찰한 새를 확인할 수 있다. 이곳의 자연환경(이곳을 찾는 새들의 이동경로, 이들의 서식환경과 서식지), 공원운영, 환경학습, 환경조사, 환경관리활동의 모습, 공원의 건축모습, 과 항만의 과거모습, 과거의 상황을 게시판에 정리된 자료나 스크랩 파일을 통해 쉽게 접하며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에서 관찰한 새, 벌레,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사항을 적는 쪽지가 있으며 관찰내용을 적어서 넣는 함이 바로 아래 준비되어 있어서 편하게 적어서 제출할 수 있고 다른사람의 관찰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해놓았으며 그 중에 일부는 게시판에 분류하여 게시하며 전문가그룹이 이에 대한 자료를 통계화하여 표와 그림으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1층은 전시중심으로 꾸며져 있으며 관련도서가 정리되어있다. 자유롭게 열린 공간이다. 작은 공간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컴퓨터 충전처도 주면서 센터가 주고자 하는 다양한 학습정보와 이곳의 목적에 맞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자투리 공간마다 누구의 제지도 없이 관심이 있다면 자연놀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형겹으로 만든 동물의 변태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소품은 어린이도 누구의 설명이 없이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는 모습에 인형을 만지면 확인할 수 있다.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발바닥모양의 쇼파에는 이것은 “새가 본 사람의 발바닥입니다”라고 적혀있었다. 원형탁자에는 다양한 크고 작은새가 있고 저울이 준비되어있다. 새안에 모래를 넣어 새의 몸무게에 맞게 인형을 만들어 놓고 저울에 올려놓으면서 새의 몸무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가 관람하는 동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한 자원봉사자는 코너에서 인형을 껴메고 있었다. 이곳의 인형들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며 직접 두루미 인형을 참가자들이 입어보고 두루미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해 볼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곳은 일반적인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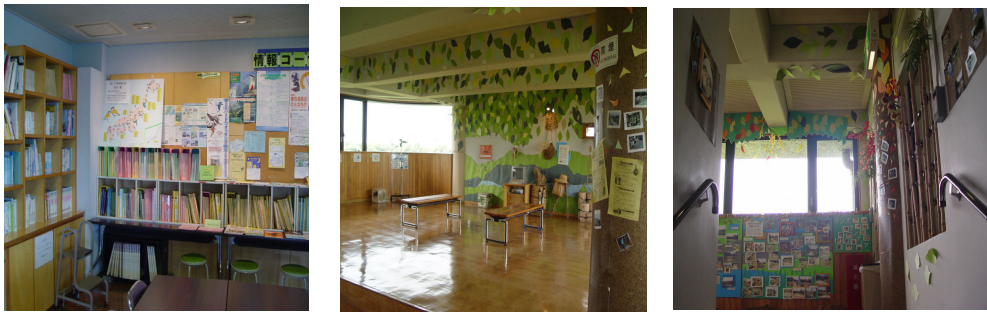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시의 기능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자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자연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네이처센터에는 야조회에서 파견한 레인저가 상주하여 야생조류 및 해안습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의 자료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축적된 자료가 열쇠뿔인 케비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마다 몇 년간의 통계자료와 연구자료가 가지런하게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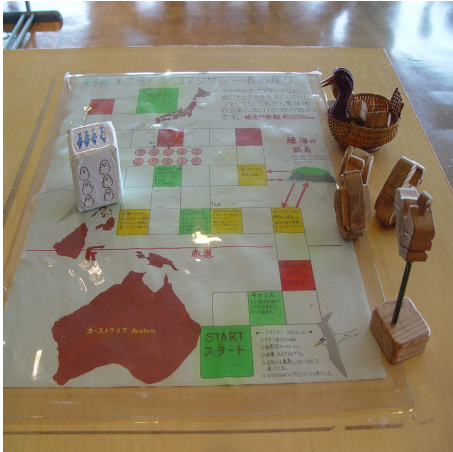
이곳은 어렵고 딱딱하고 복잡한 연구내용을 쉽고 재미있고 감쪽하게 만들어내는 마술을 부리는 공간 같다. 한편에는 고급 사립유치원을 온 것 처럼 꾸며진 학습공간도 있으며 정기관찰회, 슬라이드상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청각실이 있다.



지하에는 색다른 환경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입구에는 바다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로 만든 구조물들이 그리 밟지 않게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은 동경만 야조공원이 매립지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갯벌의 살아있는 생명체를 그들의 환경과 생활을 가급적 침해하지 않으며 그들을 관찰하며 알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공간이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만들고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환경센터의 기능을 특독하게 해내고 있었다.



[네이처센터의 여러 학습을 위한 도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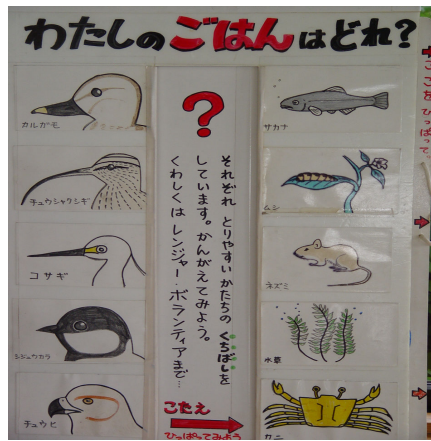
새의 분포도를 알게하는 주사위놀이



자연물 비밀상자



새의 부리와 먹이



새의 먹이 연결하기



새의 모양, 크기와 무게



새의 소리 듣기

다. 동경만야조공원의 생태교육

최근에는 학교 환경교육과 연계한 흥미유발 및 체험형 전시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5일 수업의 확대에 따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들의 여가활용공간 및 야외 생태교육 시설로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농촌 체험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이 년중 운영되고 있다.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이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정기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정기관찰회, 슬라이드상연회, 야조공원의‘계’, 자연생태원 ‘논농사체험교실’, ‘간석에서 놀아요’, ‘바다 생태관찰회’ 등이 있고 야조공원의 생태변화, 계절변화 등에 맞추어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정기 프로그램 역시 년별, 계절별, 시기별로 주제와 내용을 달리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생태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시기 및 시간	장 소	비 고
정기관찰회	매월 1회, 2시간30분	네이처센터	간석의 계절변화 관찰, 생물관찰
슬라이드 상연회	매주 일요일, 하루 2회, 15분	네이처센터	야조공원의 야생조류 및 생태관련 슬라이드 상연
야조공원의 ‘계’	매월 12회	네이처센터	야조공원에 출현하는 ‘계’를 종이로 제작하여 소개
간석에서 놀아요	년 1회	네이처센터	간석체험 프로그램
바다 생태관찰회	년 1회	네이처센터	바다생물 관찰 프로그램
자연생태원 논농사 체험교실’	4~12월, 월 1~2회	자연생태원 및 자연학습센터	논농사체험, 모내기에서 수확까지 지속적 운영
특별 프로그램	부정기	네이처센터 및 자연학습센터	봄의 야생조류관찰, 어린이자연학교, 간석의 쓰레기 줍기 , ‘야생조류스케치교실’, 갈대원에서 놀아요, 야생조류 회화전, 우리모두의 야생조류 아트전 등

- 여름방학 이벤트 : 후지츠보의 어린 생물을 보러가자,
 들새 공원 나이트 어드벤처 (원내 숙박 행사)
 간석지에서 놀아보자 ~계 박사가 될 것 같다! ~
- 관찰 학습 : 간석지의 새를 보자
 바닷물에 들어가서 관찰하기
- 강습회: 「지구를 여행한 철새 들」 「테지스코 강습회」
- 만드기교실: 죽세공품 교실 , 브로치 교실 ,목각새 작품전
 새의 목각 체험 교실 - 「시주우카라를 조각하다」
- 「슬라이드 쇼·종이 연극 등」

5. 일본의 체험환경교육

일본의 환경교육은 전후의 심각한 공해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긴 공해교육과 자연파괴에 대처하기 위한 자연보호교육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공해문제가 여러 가지의 규제와 공해방지기술의 개발에 따라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공해와 자연파괴를 뛰어 넘어 환경과의 친숙함으로 옮겨졌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국제연합 인간환경회의 등의 영향에 의해 1970년대 중반부터 공해 교육, 자연보호교육으로부터 환경교육으로 관심이 옮겨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및 정부와 관련된 기관뿐 만 아니라 민간·시민단체들은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재활용운동, 환경녹색화, 야생동물보호, 내셔널 트러스트단체결성, 국토청결운동, 계몽, 환경오염조사, 자연관찰 등을 포함하는 활동 등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1) 행정적인 대처

폐기물 등의 생활형 공해를 고려한 지방자치정부는 1980년 중반이 되어 환경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환경교육에 착수하여 환경청도 시, 도, 부, 현·정령 지정도시를 대상으로 “지역환경교육 커리큘럼”을 “지역환경보전 기금”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지침서의 작성, 강연화, 심포지움, 포스터, 환경백일장 등 상당히 다양하다. 또 환경청은 “모두 함께 만드는 더 나은 환경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환경교육지침을 작성하고 환경교육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환경보전활동 추진기구를 확충하는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환경행정에 자극을 받아 문부성도 담당직원을 배치하고 “환경교육 지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환경교육에 착수하였다. 문부성의 이와 같은 노력과 함께 시, 도, 부, 현·정령 지정도시 교육위원회는 독자적인 환경교육 지도자료의 작성과 함께 교원연수에 환경교육연수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에 의해 주도되는 환경교육이 점차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학습센터의 설치를 검토하는 지자체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행정부서간의 협력관계 확립이나 기존의 종적인 행정체계에 따른 문제해결이 과제로 남아있다.

2)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1992년부터 실시된 신학습 지도요령에서는 유치원에서의 환경영역이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생활과라는 이름으로 새로이 바뀌어 환경교육지도자료가 작성되는 등, 비로소 학교교육에 환경교육이 정식으로 도입되었다. 최근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개발하고 직접적인 체험학습과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교과과정에 개설된 대부분의 교과목에서만 아니라 도덕교육과 특별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종합적인 측면을 갖는 내용으로 구성된 현상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문제해결능력과 태도의 개발은 또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덧붙여서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보여진다. 게다가, 미래를 위한 준비에 관하여 오늘날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평생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장래활동을 위한 바탕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학교환경교육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의 확보와 정비, 환경교육의 장 확보, 안전대책 등 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교직원들의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과제로 남아 있다.

3) 시민과 민간환경단체의 환경교육

1987년 일본형 자연환경교육의 확립을 목표로 한 키요사토(清里)환경교육포럼(현재는 일본 환경교육포럼, Japan Environmental Education Forum, JEEF)이 조직되어 환경교육관점에서 마을만들기와 환경교육의 사업화, 인재 양성 등 자연과 야외에서의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90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년에는 일본 환경교육학회가 발족되었다. 사회교육의 분야에서는 전부터 있던 환경보호단체가 환경교육에 역점을 두었으며, 환경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가 많이 탄생하였지만, 환경교육을 위한 지도자양성이나 교재개발 등의 환경교육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제가 남아있다.

4) 자연학교의 현황

최근 일본에서 환경교육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자연학교는 “자연을 무대로 환경교육을 전개하는 시설과 일년 내내 개장하여 유료로 참가자를 지도하며, 높은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가 상주하여 질 높은 프로그램이나 교재로 자연체험 활동을 하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아직 일본에서도 이름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아직 구체적인 틀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야외에서 자연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환경교육시설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1987년부터 일본의 환경교육 보급을 위한 연구와 교류활동을 계획하여 왔으며, 최근까지 “일본형 환경교육의 제안”(1992년), “환경해설입문”(1994년)을 출판하여 환경교육분야에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환경단체인 일본환경교육포럼은 광의적인 환경교육 중 처음부터 자연체험형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의 거점으로 “자연학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도자가 상주하는 자연체험시설의 중요성을 주창하였다.

일본환경포럼은 일본에서 환경교육활동의 보급을 목적으로 1992년 9월에 설립된 임의단체로서 주로 자연체험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활동에 관한 정보수집과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인재양성, 출판물의 발행 등을 하고 있다. 회원제로 현재 약 6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1994년에 실시한 자연학교에 대한 예비조사연구로부터 자연보호 사상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미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연학교의 모델 도입이 필요하며, 일본의 상황에 적합한 자연학교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는데, 1995년에 지구환경기금의 조성을 받아 일본에서의 자연학교 활동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일본에 맞는 자연학교를 모색하기 위해 일본 각지의 74개 자연·환경교육실시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1995년 12월에 질문지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일본의 자연학교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활동, 시설,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정리된 일본 자연학교의 유형별 현황은 다음표로 정리하였다.

일본 자연학교의 유형별 현황 단위 : (%)

	활동		숙박 가능성	시설		프로그램					
	주최	수탁		특정	불특정	학습	창작	감수성 체험	생활 체험	스포츠	기타
독립자영	75	75	75	45	50	80	65	75	55	60	5
단체주도	100	59	47	72	28	78	50	72	56	28	13
행정주도	80	47	40	100	0	73	87	93	40	27	20
기업주도	100	100	86	100	0	29	43	71	100	86	14
총 계	89	65	57	73	26	73	61	77	57	42	12

① 독립자영형 : 자기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교로 주최사업과 수탁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시설면에서는 숙박형을 중심으로 특정한 시설을 가지지 않고 활동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개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② 단체주도형 : 공익법인이나 시민단체가 사업을 주관하는 자연학교로 주최사업을 중심으로 특정 시설에서 숙박을 하지 않는 일일형 자연학교를 실시하는 경향이 있다. 각 단체마다 특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③ 행정주도형 : 각 省廳, 지방자치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연학교로 특정한 시설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학습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어 있다.

④ 기업주도형 ; 기업이 사업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는 자연학교로 대개 숙박형으로 특정시설에서 활동을 하며 스포츠적인 프로그램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 세대통합형 체험환경교육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제가 채택된 이후로 환경은 전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각계각층에서 환경을 문제삼아 노력하였다. 또한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두는 세계인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행동양식이 되었다.

환경에 관한 전지구적 관심이 모아지면서 우리나라에도 환경관련 활동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환경교육, 생태교육, 체험교육, 체험환경교육등 혼재되어 있으며, 환경교육에 임하는 교육자도 학교환경교육과 민간환경교육 현장에서 자원활동가, 지도자, 안내자, 해설자등으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 환경교육국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환경교육은 인간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작용 받는지에 관한 인간 자신의 환경과의 관계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IUCN 교육위원회는 “환경교육은 인간, 인간의 문화, 인간의 생물 물리학적 환경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태도를 개발시키기 위해 가치를 인식하고 개념을 명백히 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환경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있지 않고, 교육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로 “환경에 관한(about), 환경내의(in), 환경을 통한(through), 환경을 위한(for) 교육. 즉 개인이나 집단이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환경보존과 사회정의의 위한 가치와 태도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기술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환경교육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리하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더 나아가 환경문제에 대한 미래 비전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1) 환경운동에서 환경교육으로

그동안의 환경교육은 학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환경단체에서 환경운동과 함께 한 경험에서 말하고자하는 환경교육형태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답사형태의 지역 문화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현장교육이나 학교에서 시행하는 캠프형태 등 행사성 위주로 진행되며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과 지식전달과 숲, 하천 등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을 통한 학습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환경교육'이라는 틀 속에 묶어 놓았다.

환경교육은 환경 운동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환경운동은 잘못된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해결을 하고자하는데 반해 환경교육은 환경이나 환경 문제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지속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적 효과가 환경의 문

제를 미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환경에 관심을 갖고 체험환경교육에 접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지자 철저한 원칙하에 활동하고 관 주도형으로 양성되는 문화해설가와 함께 생태안내자도 레크레이션 지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격증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환경교육이 단순하게 식물의 이름을 알게 하고 동물의 생태를 이해시키려는 또 하나의 과목으로 자리잡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환경교육은 생물학자, 곤충학자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려는 의욕을 가진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환경을 지키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에게는 부담이 없고 대상에게는 친숙하고 직접 참여하며 성취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또한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유기체적 자연을 대상으로 매뚜기가 어디로 떨어지 모르는 변화의 대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열심히 공부하면서 활동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지역을 지키는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공금증에 대한 답을 위해 교육의 장을 열기도 하였으며 환경운동을 함께 하는 시민들과 환경을 폭넓게 이해하고자 타지역 환경을 알기 위해 철새기행, 갯벌기행을 떠났다. 자원 재활용, 우리지역 알기, 환경 한마당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환경교육으로 발 굽김이 필요하였다.

2) 환경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교육은 학제에 의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교육이다. 대상의 인지능력과 발달단계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를 뿐이며 내용의 중심은 환경보존이며 환경지킴이 양성이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나 눈을 뜨고 웅얼이를 하고 걷고 글을 배우고 가족과 사회를 알아가면서 부모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자매, 주변의 친지의 관심으로 한 아이가 성장하게 된다. 점점 핵가족화 되면서 세대간의 통합적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생활적 지혜와 삶의 상식, 예절등이 특별학 교육기관에 의해 배워지게되는 근대화 교육의 틀에서 우리는 교육되어지고 있다.

환경교육은 생명교육이기에 지속성을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에 정형화된 교육으로는 한계성이 있다. 그동안의 환경교육은 대부분 어린이, 학생중심으로 진행되며 가족형프로그램의 경우 부모님이 일부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진행되어왔다.

환경교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에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숲, 갯벌의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일상적 생활과 경험이 어우러져서 행해져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방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른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음에도 살아있는 교과서인 자연을 배우는 과정이 없었다.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이 자연 생태에 대한 감수성과 생명에의 경외감을 갖게함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프로그램화 하는 작업이 총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프

로그래를 만들어간다면 이것이 진정한 체험환경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다행히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전세계가 함께 걱정하게 되었고 환경을 지키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가장 효과적인 환경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연계된 교육이어야한다.

환경교육은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가 자연과 더불어 느끼고 알게 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과정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자연은 정복의 대상에서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노인층의 경험을 체험환경교육에 접목시킬수 있다면 이것이 지속적인 환경교육의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노령화 시대의 세대간 통합형 자원활동가 양성

65살 이상 장수하는 노인은 늘었지만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다. 평균수명은 1960년 52.3살에서 81년 67.7, 91년 71.7, 2000년 75.9살로 늘었고 2020년에는 80살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정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의 고령인구는 2000년 전체 인구의 7.1%인 337만명에서 2002년에 7.9%인 377만명으로 늘었고, 2010년에는 10.7%(530만명)까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노인층 자원봉사활동은 양적으로도 많아지며 다양해지고 있다. 출근길 복잡한 도로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교통질서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은 흔히 접할 수 있으며 방송매체를 통해서 고철, 빈병, 박스등을 팔아 수익금을 모아 불우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일깨움을 주고 있다.

활동성이 큰 자연체험활동의 경우 노인층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듯하지만 일본의 경우 노인들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과거의 전통복원활동이나 농사체험활동등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자원활동가의 모습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노인층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여 자연체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노인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과거의 회상을 통해 젊음의 시절을 향유하며 노인층 그룹과의 교류를 통해 소외감을 극복할뿐 아니라 스스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성취감이 지역사회의 소속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체험활동을 진행하는 맹산반딧불이자연학교의 경우에는 점점 전통복원형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가족회원들의 참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옛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산증인들과 함께 진행하면서 좀더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7. 자연학교 적용프로그램

1) 2003년 자연학교 프로그램 분석 및 세대통합형 적용 가능 프로그램 파악

2003년 자연학교는 22기(2월 15일~4월 5일), 23기(4월 12일~5월 31일), 24기(6월 14일~7월 28일), 25기(8월 23일~9월 27일), 26기(10월04일~11월22일)로 진행하였다. 1년간 프로그램을 특성에 따라 분류해보면 전통놀이 및 농사체험프로그램, 자연체험프로그램이 전체 37회의 자연학교의 프로그램중에 24회로 64.86%에 해당된다.

분류	횟수	프로그램명
전통놀이 및 농사체험 프로그램	9가지 12회	정월 대보름 맞이 민속놀이행사(2월 15일) 먹을 수 있는 봄나물 함께찾기 및 진달래화전 붙이기(4월 12일) 고구마-감자심기 텃밭가꾸기(4월 26일) 자연빛 물들리기(5월 17일, 7월 26일, 9월 27일, 11월 8일) 풀놀이-화판 만들기(5월 24일) 모내기 (5월 31일) 벼 베기 및 콩 수확(10월 18일) 벼 타작, 고구마구워먹기(11월 25일) 햅쌀로 떡 해먹기(11월 01일)
자연체험 프로그램	6가지 12회	풀잎으로 곤충만들기(3월 1일) 물속 생물 관찰(3월 8일, 3월 22일, 5월 10일, 11월 15일) 맹산의 나무, 숲 이야기(3월 29일, 4월 19일, 6월 14일, 10월 04일) 자연물과의 교감(9월 20일) 벼이야기(8월 23일) 나뭇잎으로 그림그리기(10월 11일)
지역탐방 프로그램	6가지 7회	중앙공원이야기(3월 15일, 9월 14일) 울동공원에서 하는 자연놀이(7월 12일) 탄천 가족 탐사(7월 19일) 갯벌탐사(7월 28일) 반딧불이체험교실 및 축제 탄천의 겨울철새(11월 22일)
환경보전 프로그램	5가지 6회	새 먹이대 및 먹이주기와 새집달아주기, 새집만들기(2월 22일) 가족나무 한그루 심기(4월 5일) 자연학교의 야생화 알기 및 야생화 꽃밭 만들기(6월 21일) 개구리 놀이터 만들기(6월 29일) 흙 벽돌만들기(7월 5일, 9월 6일)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여러 세대가 함께 가족단위로 진행하였을 때 더욱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어릴적에는 주변에서 어른들이 놀이나 작업으로 해왔던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을 직접 손수 해 보았던 경험을 되살려 체험환경 노인 자원활동가의 협조를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직접 진행하게 함으로써 소외된 노인층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다음세대에게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나 농사일들을 전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특히 농사체험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농사라는 것이 누가 누구에게 교과서적으로 가르침을 주어서 되어지는 교육이 아니기에 함께 어울려 농사일을 하면서 그들의 옛이야기와 함께 축적된 비법이나 문제해결능력을 배워나감은 또한 중요한 교육적 효과라고 생각한다.

2) 풀잎을 이용한 놀이활동

-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들풀로 만들기 활동 및 놀이로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짚이나 칩, 싸리등을 활용하여 논기구 및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직접 만들어 썼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풀잎을 이용한 놀이감으로 만들어 봄으로써 컴퓨터에 더 익숙해 있는 요즘 어린이들에게 조상의 지혜와 감수성을 일깨워준다.
- 풀잎으로 만들기를 통해 직접 하천이나 들로 나가 직접 꺾어 해봄으로써 가까이 있는 자연과 더욱 친근감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들길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잡풀이라는 이름의 꽃을 이용하므로 버려지는 쓰레기 또한 없다. 이번 연수에서 얻어온 프로그램은 그 값어치를 메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익히고 배우고 생각하게 한 연수였다. 그래서 연수에서 돌아오자마자 우선 몇 가지를 정리하여 요즘 계절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적용해보았다.
- 도심 속의 자연, 길가의 풀을 활용한 자연생태체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생태학적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므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친환경적 문화를 형성한다.
 - 자연과의 친근감을 갖게한다.
 -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한다.
 - 우리 짚풀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자신이 속한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순천 교사·생태안내자교육 실시



순천 교사·생태안내자교육 실시



초등학교학생에게 적용



분당 중앙공원 시민대상 프로그램운영
분당환경시민의모임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 만들기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예
- 조릿대로 만드는 뿔단배와 바람개비, 대나무로 만든 피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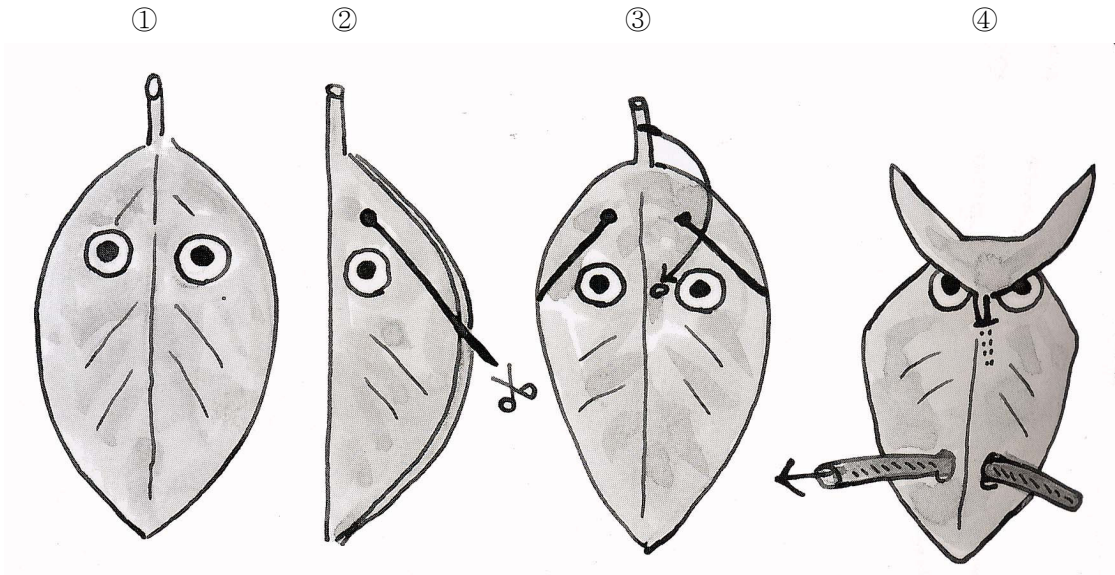
분당 율동공원에서 프로그램운영

- 억새를 활용한 부엉이만들기



· 나뭇잎으로 활용한 동물 만들기

- ① 나뭇잎 한 장을 준비하여 눈을 그린다.
- ② 위의 모양대로 귀를 오려준다.
- ③ 눈과 눈 사이에 구멍을 내어 나뭇잎의 꼭지를 끼운다.
- ④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부엉이가 앉는곳을 밑부분에 끼운다.



3) 일본연수후 국내적용 프로그램

1 관찰시간

활동장소	실 외	활동시기	연중	실시 인원	5 ~ 7명
실시대상	중·고 학생	소요시간	조절가능		

@준비할 것: 나무가 서 있는 장소이면 좋겠다.

@놀이 방법: 5명 정도로 팀을 짠다. 각 팀 모두 시계는 전부 풀어 리더에게 맡긴다. 골 지점을 정하여 그곳에 리더가 시계를 가지고 선다. 리더는 지금부터 말하는 시간에 돌아올 것을 알린다. 예를 들면 “지금 두시인데 2시 반에 반드시 이곳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일제히 출발하여 그 근처를 산책하여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꽃과 풀이 있는지 어디에 산이 보이는지를 관찰하도록 한다. 그리고, 2시 반 즈음이다 싶을 때 돌아와 골 지점에 터치한다. 어느 팀이 제 시간에 왔을까? 그 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주의할 점: 그 시간 안에 관찰한 것을 보고하게 한다.

2 우리팀 소리를 찾아라

활동장소	실 외	활동시기	연중	실시 인원	5 ~ 8명
실시대상	전학년	소요시간	제한 없음		

@준비할 것: 조약돌, 마른 나무 조각, 또는 나뭇가지, 빈깡통, 손수건 여러 장

@놀이 방법: 5-8명의 팀을 만든다. 각 팀 모두 자기들의 소리를 정한다. 소리는 돌을 두드리거나, 돌과 나무를 두드리거나, 깡통과 돌을 두드리거나 하여 다른 팀과는 다른 소리로 정한다. 출발선과 골 지점을 정한다. 골 지점에는 각 팀의 대표 한 사람이, 자기 팀의 소리를 내는 도구를 가지고 서고, 다른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출발선에 늘어선다. 리더의 시작신호에 맞춰, 각 팀의 대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두드려 자기 팀의 소리를 낸다.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자기 팀 대표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 빨리 모인 팀부터 순위를 정한다.



@주의할 점: 달리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도록 하고, 각 팀의 대표끼리는 조금 떨어져서 세워 놓는다.

3 나뭇잎 모으기

활동장소	실 외	활동시기	연중	실시 인원	1개반
실시대상	전학년	소요시간	제한 없음		

@준비할 것: 나뭇잎 1인당 2장

@놀이 방법: 리더의 신호로 모두 1인당 2장의 나뭇잎으로 모으러 간다. 다음으로 그 나뭇잎을 가지고 자유롭게 걸어다닌다. 리더의 신호가 나면 가까운 사람과 가위 바위보를 한다. 이긴 사람은 진 사람에게서 나뭇잎을 한 장만 받는다. 이렇게 하여 차례차례 가위바위보를 하여 나뭇잎을 모은다. 2번 계속해서 진 사람은 나뭇잎이 없으므로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하여, 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리더는 “그만”하고 외친다. 이 때, 제일 많은 나뭇잎을 모은 사람이 일등이 된다.



@주의할 점: 응용으로써, 각자의 나뭇잎은 1장으로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기면 상대의 나뭇잎을 몽땅 가지도록 하여, 맨 마지막에 전부 모은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해도 재미있다.

4 자연에게 빌린 것

활동장소	실 외	활동시기	연중	실시 인원	3~5명
실시대상	전학년	소요시간	제한 없음		

@준비할 것: 비닐 백 여러 장, 호루라기

@놀이 방법: 3인 1조의 팀을 만들어 각 조에 비닐 백을 3개씩 나누어준다. 리더는 시간을 정하여 a봉투에는 나무열매를 3개, b봉투에는 벌레 먹은 나뭇가지나 껍질을 1개, c봉투에는 풀 1줄기를 팀별로 찾아 넣어 오도록 한다. 시간이 되었으면 각 팀은 돌아와 봉투에서 각자 모은 것을 꺼내 보여준다. 어느 팀이 제일 훌륭한 것들을 모았는지 살펴보고 순위를 정한다.

@주의할 점: 팀원과 친해지는 것과, 자연관찰이 주목적이므로 그 점을 지도한다. 가능하면, 시트를 만들어 펼쳐 각 팀이 가지고 온 것을 그 위에 펴놓아 모두 보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하면 좋다.



143

5 자연 관찰 게임 「어디가 변했을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자연체험 놀이는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숲을 찾은 친구들이 좀더 주의의 모습을 확실히 관찰해보는 놀이를 소개합니다.

놀이를 통해서 평소보고 지나친 주변의 자연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힘을 길러 조그마한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센스를 몸에 지니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 속에서 노는 것으로 작은 자연의 변화를 느껴 이해할 수 있는 힘과 오랜 시간의 흐름에 의한 자연환경의 변화도 파악 할 수 있는 힘을 어린이들에게 얻는 것이다.



1. 세로5m가로 2m 정도의 직사각형을 만들고 나서 5명에서 20명 정도의 그룹을 2개 만듭니다. 거기서 3분~5분 정도의 시간주어지면, 지면 위에 테두리 안의 모든 돌과 가지 잎의 위치를 관찰합니다.

2. 시간이 지나면 또 한쪽의 그룹은 테두리를 보지 말고 뒤로 향합니다.

그사이에 또 다른 편의 그룹의 맴버는 나무 가지와 자갈의 위치를 다르게 하거나 없애기도 합니다.

3. 신호와 동시에 이번에는 뒤로 향해 있던 그룹이 테두리에 없는 물건이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맞춥니다.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정답 수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놀면서 자연관찰의 힘을 길러 가는 것입니다.

8. 연수 평가

가. 준비, 진행

- 준비나 진행면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서로 함께 협력하는 분위기에서 잘 진행되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기에 가능하였고 우리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함께 community 유지되었기에 더욱 좋았으며 끝까지 웃으면서 일정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다.
- 요시에님이 중간에 통역을 해 주기는 했지만 통역, 방문지 사전연락, 방문지 찾아가기 등 전체 진행에 김미라님이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 해외연수에서 방문지 언어에 능통한 활동가 물색이 필요하고 환경교육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본받을 점이 많은 일본연수를 위한 어학훈련이 필요하다.
- 공원체험환경교육, 환경교육전시 및 도서관 및 박물관, 환경교육네트워크, 일본의 자연학교, 환경관련단체등 분야별로 참가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진행하면서 가급적 시간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빠듯한 일정을 모두 협조해 주어서 모두 연수 할 수 있었다.
- 처음에 아이들과 함께 연수에 참가하는 것이 전체 일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였는데 가족이 함께 하는 자연학교 취지에 맞게 진행하려고 자연학교의 아이들이 함께 하였는데 여러 프로그램진행에 도움이 많았다.
- 아이들 적응력이 대단하고 연수동안 아이들에게 배울점도 많구나 하는것을 느꼈다.
- 이번 연수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특히 JEEF의 경우에는 이선경 교수님이 중간 역할을 담당해 주셔서 가능할 수 있었다.
- 이번 연수를 지원해준 교보생명 문화재단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 공원의 자연체험 교육과 자원봉사활동시스템

1) 나가이계 공원

- 우리나라의 문화센터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면이 있다.
-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러한 장소를 시민을 위해 만들어서 관리하게 한 의식이 부럽고 이 공원이 운영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이다. 맹산이 갖는 문제와 진행하면서 어려움의 문제를 이곳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풀을 수 있었다.
- 중앙공원 관리사무소가 사실 나가이계 공원에서 본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 공원주변의 그런 땅들에 대한 관리체제가 그 주변의 변화로 오른다고 한다면 그 오른 땅 값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시설에 투자해 주는 시스템과 그 땅 주인에게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대책이 나가이계 공원의 경우에는 체계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2) 마이오카 공원

- 공원을 둘러보다가 체험활동을 나온 고등학교 선생님을 통해 듣게된 일본의 학교의 환경교육 활동이 정규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와 달랐다 . 한국의 경우 자율 시간에서 선택하게 되어있지만 일본의 경우 정해져 있기에 좀더 체험환경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 같다.
- 마이오카 공원에 대해 사전 조사와 준비를 하면서 맹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되었는데 직접 공원을 보고 관계자를 만나면서 20년된 마이오카 공원의 역사를 통해 처음 시민이 모여서 활동하고 이를 관계 지자체가 관리하다가 다시 시민에게 관리하게 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
- 10,000명이나 되는 자원봉사자, 사무국과 30명의 STEP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로 듣고 우리가 간 날 실질적으로 새를 쫓는 망을 치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다.
- 일출태양의 집 민가와는 조금 다른 시스템인 마이오카 공원의 경우 10년간 지붕의 습기를 제거하며 벌레를 쫓기 위해 아궁이에 군불을 때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경우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그 긴 기간동안의 자원활동이 가능한것이다.
-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직접 만든 전시관, 차만들기 대회, 정화조 공간을 테크로 이용한 공간활용, 자원활동가가 일을 할 때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리된 작업도구 창고, 사물함, 탈의시설등 부러운것이 많았다.
- 이곳을 찾는 이들이 부담없이 와서 즐겁고 보람되고 맘에 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무국장님의 말과 부담없이 와서 일하는 자원활동가의 모습이 본받을 만 하였다.
- 21년의 마이오카 공원을 보면서 우리 맹산은 10년의 위치에 와있고 10년후의 맹산의 모습을 그려본다. 아직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일하는 마이오카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 진행중임을 느끼었다.
- 우리가 맹산으로 돌아와서 사유지의 해결, 시민참여 활동을 통한 게시판 활용, 1년 프로그램의 계획적인 진행, 1년 안내자 프로그램의 운영, 역량을 갖춘 자원활동가에게 열려있는 자원봉사 시스템등 의 풀어야할 숙제를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자연관찰숲

- 보는곳마다 감동이었고 너무나 많은 idea가 숨어있었으며 우리 맹산처럼 거의 자연의 숲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사전에 연락이 되어 직접 체험활동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운 하루였다.

4) 동경만 야조공원

- 자원활동가와 STEP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52세이상된 17명의 자원봉사자와 토, 일 주말에 자원봉사하는 GREEN volunteer가 70명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야조회의 경우는 용역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동경항 관리공단의 소속된 땅으로 논, 도토리등으로 영역별 관리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 이들은 소일거리라 생각하면서 무료로 자원활동을 하고 있었다.

4) 공원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하여

- 우리나라 신도시 시스템에서 신도시 주변의 개발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것이 문제이다. 서현동주변의 집중적인 개발이나 도촌동의 도축장냄새문제에 대해 아파트를 지어서 해결하려는 개발논리가 이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 나가이계공원이나 마이오카공원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학자들이 연구해서 보고서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세대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며 공간활용을 통해 작은공간에 많은 자료를 공개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 자연교육원이나 요코하마 자연관찰숲에서 받은 40분정도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진행하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이 얼마나 피상적인 교육이었나를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 몇일간의 연수를 통하여 외국의 활동을 보며 부러움이나 의아함이 있는데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느낀 여러 활동이 피상적일 수도 있다. 연수후에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생태안내자 활동을 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교안을 작성하는 안내자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금씩 극복해나가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인 방법을 연구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 아이들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다.

다. 기관 및 전시,박물관의 자원봉사활동시스템

1) 일출 태양의 집

- 장애인들의 도자기 만들고 굽는 현장을 견학을하고 원장선생님이 직접 이곳에서 대나무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직접 장애인들과 프로그램을 하는줄 알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다.

2) 자연교육원

- 현재의 우리나라의 전시형태의 과학교육과는 다르게 일본의 환경교육이 활동중심으로 바뀐것과 전시와 활동이 구분되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경기도 과학관이 만들어 지면 이런 형태를 도입하면 좋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경기도에서도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려고는 하는데 도교육청의 환경교육이 민간중심의 환경교육과는 시각이 다른 듯하여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 숲의 발견이라는 체험학습 중심의 전시관에서는 자연을 과학적으로 이해시키기 보다는 사실적인 묘사와 자연을 좀더 가까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었다.
- 전문가와 학교와 연결프로그램이 필요한것 같고 이에 대한 귀국후 할 일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두더지의 행동을 통해 땅과 물과의 관계의 연관성속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부러웠으며 우리의 소극적이고 자만심(?)에 찬 교육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라. 환경단체, 환경교육 네트워크, 환경교육 활동가 자격증

- 일본은 통합적 교육 시스템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환경교육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 상황으로 오게 된 것이고 서구의 환경교육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의 환경교육, 특히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의 경우에는 많은 발전이 있다. 일본의 환경교육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고 연수를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것이 큰 수확이다.
- 민간의 인증서를 지자체가 인정하고 이렇게 되기까지의 노력을 볼수 있었으며 환경교육에 있어서 자격증, 인증서 제도와 직업으로서의 환경안내자, 등 환경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한 총체적 관심이 필요하다.
- JEEF의 오까지마 의 말중에 " 활동하려는 젊은이에게 길을 열어주자" 이것이 일본에서도 아직 이루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네트워크'가 만들어 진다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우리가 함께 고민 할 문제는 질을 높이는 워크샵, 실제적인 커리큘럼이 갖추어진 자격증 관련 과정의 연구등인데 이러한 고민을 많은 자원활동하시는 선생님들과 연수를 하면서 우리의 환경교육도 희망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단체와 단체가 만나면 깨진다는 우리의 속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극복해나가면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습성에 맞추어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마. 자원활동가

- 이 연수를 통해 좀더 확대된 일을 함께 해 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원활동가 활용에 있어서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일본의 환경교육에 있어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서 자원활동가와의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었다.
- 자원활동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자원활동을 왜하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준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이곳 공원이나 방문지에서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과 자원봉사 시스템을 보면서 맹산에도 고정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이곳의 일본이 방문지가 다시오고 싶다는 생각은 친숙하게 꾸며진 공간에 자원활동가의 친절함과 유익한 설명이 덧붙여 있기에 가능한것이다.
- 자원활동가가 여러 층으로 다양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은 자연을 좋아하는 일본의 취미생활의 저변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듯하다.
- 우리는 자원활동가에게 부담이 가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 부담을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부럽다. 실무와 봉사자의 조화로운 모습과 직업형태의 활동가의 정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본연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한다. 자원활동가가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찾을 수 있어야 하겠다.
- 우리가 일본에 온 목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비하기 위해 일본에 와서 시니어그룹들의 자원활동을 접하고 이분들의 활동하고 있는 모습과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된 것이 좋았던것 같고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

9. 회의록

일시	2003년 5월 28일	장소	사무실
참가자	정 병준, 김경희	기록자	최영주
안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연수 지원 결정 2. 연수세부계획 3. 연수단 선정 4. 연수지 정리 5. 연수단 회의 			
정리	5월 31일 2시 자연학교에서 1차 연수단 모임을 갖기로 함		

일시	2003년 5월 31일	장소	맹산자연학교
참가자	정 병준, 김경희, 김인호, 김수연,	기록자	최영주
안 건			
해외연수 지원 결정 알림 / 연수세부일정 / 연수단 선정 / 연수지 정리			
정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정조정 : 10일이 너무 길어서 7박8일로 조정하면서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함 연수일자 8월12일(화) ~ 19일(화)로 잠정적으로 결정 연수지중에 추가할 곳 모색하기로 함 2. 역할분담 3. 사전 방문지 조사작업, 확정된 연수지에 대한 연구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일시	2003년 7월 4 일	장소	국제워크캠프 사무실
참가자	정병준,김경희,Kobayashi,김용한	기록자	최영주
안 건			
연수세부일정논의 / 연수지 연락작업 / 숙소관련			
정리	1. 일정조정 오봄축제(8/10-8/15) 관련 일정 조정불가피 - 우리나라 추석과 유사한 명절로 단체방문이나 자연학교 참가가 어려울 듯 2. 대책 - 연수일정을 하루 연기하여 8월13일(수) ~ 20일(수)조정하기로 함 - 단체 섭외되는대로 일정을 전면조정하기로 함 - 확인사항 : 비행기편 조정 , 숙박지 조정 3. 조정 되는대로 단체콘택을 하기로함 일본에서 만난 OKU Shinichiro" <okushinichiro@hotmail.com>가 중간연락을 해주기로 함		

[회의자료]

1. 일정

날짜	지역	교통편	일 정
제1일	서울 나리다	항공 기차 Taxi	·인천 국제 공항 출발 ·나리다 공항도착 닛뽀리역 → 신주꾸역 → 오우미역 ·일출 태양의 집 도착, 시설안내, 오리엔테이션
제2일 (토)	니시다마군 일출마을		일출 태양의집 체험학습프로그램 · 숲급기를 위한 간벌작업 ·아외놀이 탐험대 ·도예체험하기, 대나무 숯만들기 체험
제3일 (일)	니시다마군 일출마을		일출 태양의집 체험학습프로그램 ·장애우와 뒷산에서 운동경기 ·자연체험 프로그램 공유·시민참여형 프로그램 공유
제4일 (월)	니시다마군 일출마을		·니시다마 자연 forum ·온다 노야토 팬클럽
제5일(화)	신주쿠		·NICE일본 국제워크캠프 센터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 ·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
제6일(수)	신주쿠		마이오카 공원
제7일(목)	신주쿠		나가이케 공원
제8일(금)	신주쿠->서울		·나리다 공항도착 ·인천 국제 공항 도착

2) 항공사

여행박사 02) 730-6166/7 담당 : 이상혁 전화 : (대)02-730-6166/7, 팩스 : 02-737-0152
 이메일 : reserve@empal.com 계좌번호 : 외환은행 118-22-03088-4 예금주 : 여행박사

** 예약상황

-아시아나 항공 8월 12일 OZ102 10:00 인천공항 출발 8월 19일 OZ103 15:25 나리타공항 출발
 요금 : 성인기준 ₩280,000(tax별도) 18:20 출발의 경우 ₩260,000(tax별도)

-아나항공 8월 12일 NH918 12:40 인천공항 출발 8월 19일 NH917 15:55 나리타공항 출발
 요금 : 성인기준 ₩310,000(tax별도) --->17:35 출발의 경우 ₩270,000(tax별도)

3) 숙박 * 신주쿠: 002-81-3-3203-7112 통장: 중소기업은행 063-024574-03-016 예금주(이 흥)

4) 방문단체 contact : 코바님이 1차연락후에 단체방문취지를 보낸후 최종확답을 듣기로

일시	2003년 7월 18 일 6시	장소	명동 유네스코 회관 부근
참가자	Kobayashi , 김미라	기록자	최영주
안 건			
연수세부일정정리 / 연수지 담당자 연락작업 / 숙소관련			

1. 일정

기차(1h) JR(1h) 지하철(1h30) TAXI(걸어서 1h)
 8/13 (수)인천국제 공항→ 나리다 공항→닛뽀리역 →
 신주꾸역→오우미역→taiyonoie

8/14(목)~15(금) 일출태양의집 - 야외체험(프로그램은 23일 확정통보 예정)

** 목욕탕→공동 1개 기간중에 일본인 팀 20~30명 숙박 예정, 함께 활동

8/16(토)~17(일): 일정은 23일 확정통보 예정

1안: 일본의 워크캠프기구인 nice와 분당환경이 공동기획하여 캠프를 일출태양의집에서 연다
 8월초 소식지에 내용을 소개하여 모집하고 함께 자연 체험학습을 준비하여 한/일
 환경체험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안: 동경(taiyonoie, 신주꾸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은지역)
 주변의 자연학교 주말프로그램이 있는곳을 알아본다.

3안 : 신주꾸로 옮겨서 마이오카 공원,나가이케 공원 탐사를 한다.

17(일)-> 신주꾸로 옮김,, TAXI(걸어서 1h) 지하철((1h30)

taiyonoie→오우미역→신주꾸역(숙소에서 역까지 픽업해주시로함)

8/18(월) 1팀 ->JEEF (2시~4시)&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단체(WSSD,,의제가아닐까 생각)

* 일본의 시민 환경활동 단체를 codi하고 있으며 한국의 상황을 알고 싶어함
 TEEN or 경기민간환경네트웍에 대한 일러자료를 만들 필요있음

* 방문목적이나 방문시 질문사항을 정리

도토로의 숲 테마파크-> 어린이를 중심으로 1팀 (예약중)

** 확정안된 일정 *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 green saver test를 실시하는 단체임,

**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www. cone.ne.jp), NICE,SHU, 마이오카 공원,나가이케 공원

	연락자	contact / DAY/ MOVE(TRAFFIC)
JEEF	MIYAKE(miyake@jeef.or.jp)	ok/8월 18일 2시, 2시간/ 지하철
taiyonoie		ok/13일~15일 (체험활동) or 13일~17일 오전
니시다마 자연 forum	042-550-0265	* 일출태양의집과 함께 연락하기로
NCE 일본 국제 워크캠프센터	nice@nicel.gr.jp	ok/18일 or 19일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단체		ok/8월 18일 3시, 1시간/이동없음
수목환경 네트워크 협회		18일 or 19일중복시 통역필요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 (www. cone.ne.jp)		18일 or 19일 * JEEF와 동일한 단체인지 다른 단체인지 알아보고 다른 단체라면 섭외할 예정임
SHU		18일 or 19일 섭외중
마찌다 떡갈나무 산 자연공원 사랑회	qws04137@nifty.ne.jp 042-724-1660	* 일본의 자연학교 일람 책 참고(책 74)* 번역: 이경원
온다의 노야토 팬클럽 (ONDA NOYATO FAN CLUB)	045-961-8015	* 연수일정상 거리문제로 일정취소

2. 비행기편예약 변경 : 아시아나 300,000(tax 별도)로 예약하기로,

8월 13일 아시아나 항공 10:00 인천 출발8월 20일 아시아나 항공 15:25 나리다 출발

*[출발인원] 어(10),아(3)=13 어른 남(3),여(7,자현포함) 아이 남(2),여(1)

3. 숙박

* 일출태양 [숙박인원] 어(11),아(3)=14 어른 남(3),여(8,자현포함) 아이 남(2),여(1)

* 올림픽 청소년회관 요시에 001-81-090-3688-1192 (yo_shidomi@hotmail.com)

* 신주꾸구 오오쿠부: 일정확정 되는대로 예약변경하기로 연락

2003년도 환경교육 해외연수

일시	2003년 7월 27일	장소	탄천 중앙공원
참가자	정병준,김경희,최수지,코바	기록자	최영주
안 건			
연수세부일정변경사항 / 연수단체 확정, 연락확인 / 숙소확정			

1. 코바님이 일본에 잠시 귀국하면서 방문단체 담당자와 일정 및 연수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정함
2. 일출태양의집에서 나가이케 공원을 방문하고 신주쿠로 옮겨서 남은 일정을 진행하기로
 - * 올림픽 청소년회관예약(14일,15,16일 3박 4일 예약 : 요시에 해주기로 함)
 - ** 신주쿠구 오오쿠부 민박(17,18,19일 3박 4일 예약: 변동없음)
3. 일정상 버스 대절이 더욱 용이하게 됨
버스편은 일본 지역생활지를 이용하여 구해보기로 함(현지의 일본인에게 연락,정병준)
4. 최종 일본 이메일을 코바님이 보내기로 함
5. 그동안 일본연수를 위해 도움을 많이 준 코바님께 한국의 문화와 풍습에 관심이 많기에 생활한복을 선물로 드림

일시	2003년 7월 28일	장소	국제워크캠프 사무실
참가자	정병준,코바, 김미라	기록자	최영주
안 건			
확정사항점검-일본콘택확인 최종점검사항: 비행기편, 여권, 비자, 숙소, 연수지 연구확인, 방문단체 선물준비, 니시다마자언포럼과 일출태양의집에서의 만찬프로그램 토의,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교류논의 방문공원 담당자 이메일 확인, 연락 안 온곳은 추가로 일본현지의 요시에님이 직접 전화해주기로 함 * 비행기편의 아시아나측 오류로 비행기가 11시 출국으로 변동			

일시	2003년 7월 30일 5시	장소	분당환경시민회의모임 사무실
참가자	연수참가자 전원	기록자	최영주
안 건			
일정통보 , 진행사항 보고, 연수지 연구 및 토의 , 담당 업무 확인 * 여권, 비자 서류확인			

일시	2003년 8월 11일 5시	장소	분당환경시민회의모임 사무실
참가자	연수참가자 전원	기록자	최영주
안 건 : 최종점검			
비상연락처(일본현지숙소, 로밍서비스 핸드폰) 가족에게 알리기 자료집, 이름표, 준비물 확인, (여권, 여권분실을 대비한 사진, 여분의 가방,얇은 긴팔옷, 개인상비약,선글라스, 신발(운동화,샌달,..), 부채,손수건,우산, 물병(펏병),간단한 세면도구(수건,치약,치솔,비누,샴푸,면도기,..),국제전화카드,썸크림이나 파우더, 여권분실을 대비한 사진, 쌀(조금), 밀반찬,개인컴,개인수저,수첩,필기구, 1차 집결: 7 : 30분 서현역에서 만남 2차 집결: 9 : 00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출구 B와 C사이 만남의 장소 11 :30 아시아나 항공(OZ104편) 인천 출발			

일시	2003년 8월 19일 11시 ~	장소	신주쿠 민박집에서
참가자	연수참가자 전원	기록자	최영주
안 건 : 최종평가회			

" 끝까지 웃으면서 일정을 마칠 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통역, 방문지 사전연락, 방문지 찾아가기, 등 전체 진행을 해온 김미라님 은 쉬러감

* 김은영선생님: 일출 태양의집 에서 장애인들의 도자기 만들고 굽는 현장을 견학을하고 원장선생님이 직접 이곳에서 대나무로 하는 프로그램을 참여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직접 장애인들과 프로그램을 하는줄 알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쉬웠다.

* 김택윤교감선생님: 해외연수는 준비나 진행이 어려웠을텐데 잘 진행되어서 너무 다행이다. 자연교육원을 조사하고 준비를 했는데 직접 가보니 현재의 우리나라의 전시형태의 과학교육과는 다르게 일본의 환경교육이 활동중심으로 바뀐것과 전시와 활동이 구분되어 진행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경기도 과학관이 만들어 지면 이런 형태를 도입하면 좋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에서도 체험중심의 환경교육에 중점을 두려고는 하는데 도 교육청의 환경교육이 민간중심의 환경교육과는 시각이 다른 듯하여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숲의 발견이라는 체험학습 중심의 전시관에서는 자연을 과학적으로 이해시키기 보다는 사실적인 묘사와 자연을 좀더 가까이서 이해할수 있도록 해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 었다.전문가와 학교와 연결프로그램이 필요한것 같고 이에 대한 귀국후 할 일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안미숙선생님:8월 16일 토요일 2팀으로 나누어서 간곳에서 우리팀이 간 마이오카 공원에서 공원을 둘러보다가 체험활동을 나온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의 학교에는 환경교육 활동이 정규시간에 정해져 있는것이 우리와 달랐다 .

한국의 경우 자율 시간에서 선택하게 되어있지만 일본의 경우 정해져 잇기에 좀더 체험환경교육이 활성화 될수 있는 것 같다.마이오카 공원에 대해 사전 조사와 준비를 하면서 맹산과의 연관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되었는데 직접 공원을 보고 관계자를 만나면서 20년된 마이오카 공원의 역사를 통해 처음 시민이 모여서 활동하고 이를 관계 지자체가 관리하다가 다시 시민에게 관리하게 되는 과정이 인상적이였다.10,000명이나되는 자원봉사자, 사무국과 30명의 STEP이 함께 일할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로 듣고 우리가 간날 실질적으로 새를 쫓는 땅을 치는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일출태양의집 민가와는 조금다른 시스템인 마이오카 공원의 경우 10년간 지붕의 습기를 제거하며 벌레를 쫓기위해 아궁이에 군불을 때는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만날수 있었는데 이분의 경우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일을 하고 잇음을 볼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직접 만든 전시관, 차만들기 대회,정화조 공간을 데크로 이용한 공간활용, 자원활동가가 일을 할때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고 쉽게 찾을수 있도록 잘 정리된 작업도구 창고, 사물함,탈의시설등 부러운것이 많았다.이곳을 찾는 이들이 부담없이 와서 즐겁고 보람되고 맘에 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무국장님의 말과 부담없이 와서 일하는 자원활동가의 모습이 본받을 만 하였다.

* 정병준 위원장님:21년의 마이오카 공원을 보면서 우리 맹산은 10년의 위치에 와있고 10년후의 맹산의 모습을 그려본다. 아직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상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에서 일하는 마이오카를 보면서 우리는 아직 진행중임을 느끼었다.우리가 맹산으로 돌아와서 사유지의 해결, 시민참여 활동을 통한 계서관 활용, 1년 프로그램의 계획적인 진행, 1년 안내자 프로그램의 운영, 역량을 갖춘 자원활동가에게 열려잇는 자원봉사 시스템등 의 풀어야할 숙제를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김인호 교수님:일본은 통합적 교육 시스템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연수를 준비할때 도움이 되었으면 했는데 나름대로 바쁜일정속에서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연수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알차게 진행될수 있었으며 특히 JEEF의 경우에는 이선경 교수님이 중간역할을 담당해 주셔서 가능할수 있었다.

일본의 환경교육이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 상황으로 오게된것이고 서구의 환경교육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본의 환경교육, 특히 체험위주의 환경교육의 경우에는 많은 발전이 있다. 일본의 환경교육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었고 연수를 통해 환경교육에 대한 비전을 갖게된것이 큰 수확이다.민간의 인증서를 지자체가 인정하고 이렇게 되기 까지의 노력을 볼수 있었으며 환경교육에 있어서 자격증, 인증서 제도와 직업으로서의 환경안내자,등 환경교육의 나아갈 길에 대한 총체적 관심이 필요하다.

JEEF의 오까지마 의 말중에 " 활동하려는 젊은이에게 길을 열어주자"

이것이 일본에서도 아직 이루지 못한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네트워크'가 만들어 진다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 고민 할 문제는 질을 높이는 워크샵, 실제적인 커리큘럼이 갖추어진 자격증 관련 과정의 연구등인데 이러한 고민을 많은 자원활동하시는 선생님들과 연수를 하면서 우리의 환경교육도 희망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연수를 통해 좀더 확대된 일을 함께 해낼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원활동가 활용에 있어서 좀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김은영 선생님:우리가 간 자연관찰숲의 경우에는 보는곳마다 감동이었고 너무나 많은 idea가 숨어있었으며 우리맹산처럼 거의 자연의 숲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나가이게 공원의 경우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센터와 유사하게 운영된다는 생각을 했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러한 장소를 시민을 위해 만들어서 관리하게한 의식이 부럽고 이공원이 운영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인듯하다. 맹산이 갖는 문제와 진행하면서 어려움의 문제를 이곳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풀을수 있을것 같았다.

* 정병준 위원장:중앙공원 관리사무소가 사실 나가이게 공원에서 본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 김경희국장님:공원주변의 그런 땅들에 대한 관리체제가 그 주변의 변화로 오른다고 한다면 그 오른 땅 값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시설에 투자해 주는 시스템과 그 땅 주인에게 정부로 부터 주어지는 대책이 나가이게 공원의 경우에는 체계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것은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이다.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 정병준 위원장님:우리나라 신도시 시스템에서 신도시 주변의 개발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있는것이 문제이다.서현동주변의 집중적인 개발이나 도촌동의 도축장냄새문제에 대해 아파트를 지어서 해결하려는 개발논리가 이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 박선미선생님:이번 연수에 일본의 사례를 알고싶어서 참가하였는데 나가이게공원이나 마이오카 공원에서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학자들이 연구해서 보고서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세대가 이해할수 있게 표현하고 이를 많은사람들이 쉽게 찾아볼수 있도록 하며 공간활용을 통해 작은공간에 많은자료를 공개하는 모습이 부러웠다.

자연교육원이나 요코하마 자연관찰숲에서 받은 40분정도의 활동을 통해 우리가 진행하는 2시간 이상의 교육이 얼마나 수박 겉핥기 식의 교육이었나를 반성하는 시간이었다.

두터지의 행동을 통해 땅과 물과의 관계의 연관성속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부러웠으며 우리의 소극적 이고 자만심(?)에 찬 교육을 뒤돌아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안산의 경우 안내자 시스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교안을 작성하게하여 조금씩 극복해나가고 있다.

* 정병준 운영위원장:동경만 야조공원의 경우 공원을 둘러보면서 자원활동가와 STEP을 만날수 있었는데 52세이상된 17명의 자원봉사자와 토,일 주말에 자원봉사하는 GREEN volunteer가 7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야조회의 경우는 용역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장소는 동경항 관리공단의 소속된 땅으로 논,도토리등으로 영역별 관리 담당자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 이들은 소일거리라 생각하면서 무료로 자원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국의 활동을 보며 부러움이나 의아함이 있는데 우리가 본 여러활동이 사실은 피상적일수 밖에 없다.

* 김수연 선생님: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서 자원활동가와의 연결고리를 느낄수 있었다.

자원활동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자원활동을 왜하느냐의 문제에서 내가 할수 있는것을 나누어준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연수에서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하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이곳 공원이나 방문지에서 언제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모습과 자원봉사 시스템을 보면서 맹산에도 고정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곳의 일본이 방문지가 다시오고싶다라는 생각을 들게하는 공간이 참 부러웠다.

*김택윤 교감선생님:일본의 취미생활의 저변확대가 되어 있기때문에 가능한 일인 듯하다.

*김경희 사무국장:우리는 자원활동가에게 부담이 가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은 이 부담을 나누어서 활동하고 있는모습이 부럽다. 실무와 봉사자의 조화로운 모습과 직업형태의 활동가의 정착된 모습을 볼수 있었다.일본연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수 있었으면 한다.

자원활동가가 앞으로의 비전을 함께 찾을수 있어야 하겠다.아이들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불거리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다.이번 연수를 지원해준 교보생명 문화재단에 정말 감사

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정병준 위원장님: 이번연수에서 분야별로 참가할수 있어서 좋았다. 이것은 우리모두가 함께 노력하였기에 가능하였고 우리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함께 community 유지되었기에 더욱 좋았다고 생각한다. 진행하면서 가급적 시간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빠듯한 일정을 모두 협조해 주었기에 가능하였다. 이번 연수에서 자연학교의 아이들이 함께하여서 더욱 좋았다. 가족이 함께하는 자연학교 취지에 맞게 진행하려고 하였다.

* 김은영선생님:처음에 아이들과 함께 연수에 참가하는것이 전체 일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였다

* 박선미선생님:처음에 아이들의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는데 아이들 적응력이 대단하고 연수동안 아이들에게 배울점도 많구나 하는것을 느꼈다.

* 정병준 위원장님: 단체와 단체가 만나면 깨진다는 우리의 속설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습성에 맞추어 네트워크를 이루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일본에 온 목적인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대비하기 위해 일본에 와서 시니어그룹들의 자원활동을 접하고 이분들의 활동하고 있는 모습과 시스템에 대해 배우게 된것이 좋았던것 같고 앞으로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접목하여 활동을 할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것 같다

10. 연수후기(일기)

8월 13일 : 김은영



어젯밤에 준비하느라 늦게 잔 탓일까?

남편출근 알람소리에 깨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집을 나섰다

11시 30분에 출발해서 일본 나리다 공항에 도착하니 1시 30분 이리저리 수속을 마치고 버스에 타니 2시 40분이다

말한마디 안통하는 일본땅에 오니 막막했는데 일본말 능숙하게하는 김미라씨를 만나서 반갑기도하고 안심이 된다. 처음오는 일본땅이지만 우선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낯설지가 않다.

나무도 우리땅에서 즐겨보던 나무들이 많다.배롱나무, 협죽도, 층층나무, 개다래, 쉼터굴들,,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나무들,, 이곳에서 만나니 더 정답다.

4시 30분쯤, 소화공원에 도착해서 약 30분간 짧게 관람했다.

우리공원보다는 그 규모가 크고 나무에서 역사가 느껴진다. 여기에도 역시 낮익은 나무들이 많았다. 곳곳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다. 이 공원안에서 볼수있는 식생의 위치를 설명한 안내판이라든지 나무와나무사이에 있는 가로등(길 중간에 떠있는 등,,)이 더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하는데 마음 껏꼭 누르고 사진 한방으로 아쉬움을 달래며 바빠 차에 타야만 했다.

드디어 7시쯤 되어서야 오늘의 종착지인 일출태양의 집에 도착했다.

반갑게 맞아주는 이곳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평소 외국인 ,타인을 대할때 내 태도를 반성하게 한다.

120년 된 일본 전통가옥냄새가 구석구석에 스며있다. 방과방들이 연결되어 마치 미로를 연상하게하고 다다미방, 목조식건물의 나무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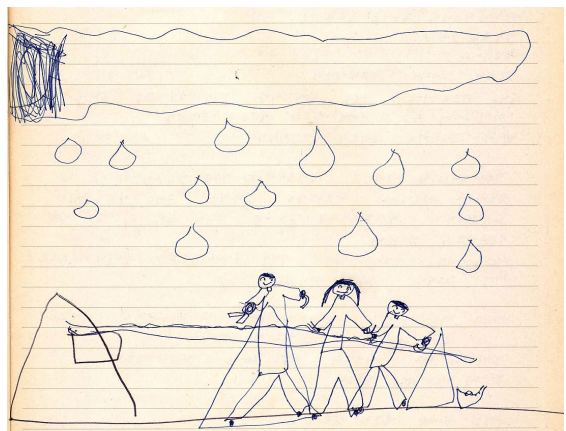
기내에서 간단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뭐든지 먹어치울듯 했다. 이곳땅에서 먹는 소불고기가 더 맛있었던것은 허기와 다시 또 이곳에서 이런 호사를 누릴수 없음을 알기에 더 했는지 모르겠다. 허겁지겁 배를 채우고 나서 아이들은 이곳의 원장님과 대나무 찻대를 만드느라 정신이 없다. 대나무등이 너무 멋스럽다고 했더니 금새 대나무통을 구해오셔서 톱질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고,, 어느새 아이들 손엔 대나무 찻대가 들려있었다.

일본에 온 첫날 우리의 밤은 이렇게 지나갔다.

자기전에 우리딸이 하는말 " 엄마! 여긴 외국같지가 않아, 꼭 우리 시골같애,,"

8월 14일 : 김수연

처마밑으로 떨어지는 상쾌한 빗소리에 잠이 깨었다.
 그러나 당장 오전일정이 걱정되고 다같이 종려나무잎을 구해서 " 풀잎으로 만들기도"도 하고 "대나무로만들기"도 만들어 먹어애하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미리 밥을 해 놓으신 정병준 위원장님 덕분에 아침식사당번인 나의 일이 줄어들어는 일도 생기고 식사를 마치고 날씨 때문에 변하게 된 우리의 일정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태양의집' 원장님이 빗속에도 소면을 한 봉지 들고 오셨다.
 원장님과 " 태양의집" 에 대한 질의 응답이 끝나자 마자 대나무 공방에 가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듯 열심히 대나무 공예를 하는 우리 일행들,,
 어제보고 반한, '등' 과 실수로 만든 '컵'젓가락, 목걸이 등등,,, 가지고 돌아갈 작품을 만드느라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창작활동을 해 보았다.
 못 먹고 그냥 가는 줄 알고 서운했는데 내려와 보니 물이 펄펄 끓고 있고 원장님이 무엇을 그리 열심히 만드시나 했더니 ' 나가시' 소면용 수로 엮었다. 수로에 흘러보내는 국술르 건져 장국에 담아 김치 송송 썰어 섞어서 먹는 그 맛이라니! 각자 젓가락 낚시솜씨를 자랑하며 처마밑에서 빗물을 맞으면서도 연신 '맛있어'를 외칠 수 밖에 없는 그림같은 식사였다.
 뜻밖에도 너무 좋았던 태양의 집을 떠나 반딧불이 매니아를 방문하고 취미로 반딧불이를 기르고 놓아주고 함께 어울려사는 모습을 보았다.
 잡아다 기르고, 또는 사서 놓아주는 것도 좋지만 자연 그대로 보고 관찰하는 것 그리고 그냥 그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다. 27년간 이런 취미생활을 하시며 얻은 결론이라니.. 양봉이 본업이시라며 꿀물(honey lemon)을 내어 오시는 반딧불이 매니아의 수집품들은 참 놀라웠다.
 여전히 내리는 비를 맞으며 나가이계공원 네이처센터를 들렀다. 공단의 계획적인 건축문화가 너무 부러웠다. 3년째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곳으로 자발적으로 모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여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스스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 맹산도 그런 장소가 된다면 어떨까?
 그만큼의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기위해 없어야 할 것도 생기겠지,,,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에 수택도 고려하고 식생도 고려해서 만들어진 네이처센터에서는 원하는 시간이 언제든 와서 함께 보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듯하다. 인터넷 중계도 한다니,,,
 소면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도 일찌감치 고평오는 배를 달래며 식당을 찾아 민생고를 해결하고 들어온 제2의 숙소,, 대학때 썼던 기숙사가 떠오르는 방구조에다 공동 세면실, 다른동에 있는 욕실,매점등,,불편해 보이지만 그래도 신선하고 깔끔한 곳에서 내일의 일정을 걱정해본다.
 아직도 비가 오고 있으니,,, 회의를 하다보니 " 힘들어도 웃는 얼굴보입시다"라는 위원장님의 말이 생각이 났다.
 " 힘이 들때 옆사람을 보면 힘이나요" ,, 함께 하는 우리가 이런 옆사람이 되어야 겠지,,,???



태호가 그림으로 표현한 오늘 하루



내일은 하코네로 간다,,, 야호!
 어제보다 더 많이 오는 비 때문에 하코네는 날라갔다.
 '지구환경파트너쉽 플라자'로 가는길
 대한독립만세! 광복절이다. 일본에서 맞이하는 광복절이라니,,,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패전일이라 명치신궁이 있는 공원에는
 ' 황제~~~~~대'라고 쓰여진 차들과 사람들이 몰려있다.
 황제에 충성한다는 우익들의 모임이리라,,
 '지구환경파트너쉽 플라자'는 환경정보센터의 기능을 하는 곳이란단.
 일본에서도 전국적으로 한곳밖에는 없다지만 우리는 아직 한곳도 없질 않은가?
 환경단체끼리의 정보공유, 홍보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으리라
 정부나 기업, 시민단체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것이 얼마나 큰일들을 해내고 있는가가 가슴에 다가왔다.
 점심으로 먹은 라멘 (도로니쿠미소라멘: 돼지고기를 넣고 된장으로 맛을 낸 라면)
 '느끼하다' 라는 대부분의 평이 있음에도 맛있게 먹었다. 일본에서 살빼기는 틀렸다.
 우에노 공원내의 국립과학 박물관! 발견의 숲! 정말 부러웠다.
 그 작은 공간에 오밀 조밀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들이 다 들어 있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터 공원이라기보다는 산속의 숲처럼 느껴졌다.
 그 숲에 지어진 작은 건물 하지만 그 속엔 아주 큰 우주가 있었다.
 "발견의 숲"이라는 코너를 본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행복했고 내심 또 불편했을 것이다.
 만지고, 듣고 ,보고, 활동하는,,, 모든 체험의 방법들이 동원되었고 활용된 교구 또한 훌륭했다.
 많은 것을 보고 느꼈는데 한국으로, 우리지역으로, 돌아가서는 어떤 것을 남길수 있을지,,, 새삼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8월 16일 : A팀 이상의

날씨: 비가 많이 왔다.
 제목: 계단폭포도 보고, 배도 타고

오늘 아침에 A팀, B팀으로 나뉘서 서로 다른 장소로 갔다. 난 A팀이어서 숲 같은 공원의 센터로 갔다. 그런데 가는 도중 계단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계단에 폭포처럼 비가 쏟아져 내려왔다. 그래서 옷은 조금 젖었지만 발이 많이 시원했다. 올라가서 정자에서 좀 쉬고 센터로 들어갔다.
 센터를 구경하고 난 뒤 그곳에 있는 자연물로 하는 주사위 게임을 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숲을 굽는 곳에 가서 설명을 듣고 다시 센터로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게임을 하다가 어른회의하는곳으로 들어가봤다.
 어른들과 숲속 곤충찾기 빙고를 하였는데 빙고 우승자가 바로 나왔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그리고 나서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B팀을 만나서 차이나 타운에서 밥을 먹고 요코하마 항구로 갔다. 항구를 구경하고 가려는데 배를 타보자고 했다.
 유람선을 타고 요코하마 역 있는데 까지 갔다.
 우리들은 뒤에 타서 시원하고 엽기사진을 찍는다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오늘은 정말 시원한 하루였다.

8월 16일 : A팀 조자현

오전에 우리는 A.B로 팀을 나뉘, A팀은 '자연관찰의 숲'으로, B팀은 '마이오카(무강) 공원'으로 갔다.(나는 B팀이다.)

공원에 들어서자 보인것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표지판들이다. 서툰 글과 그림 솜씨로 정성들여 만들었을 표지판들은 어른들이 그냥 무시해 버리기 힘들것 같아 보였다.

관리소에 도착. 관리소장님께 설명을 들었다.

먼저 고민가에 갔는데, 지붕에서 연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었다. 처음엔 그 지붕 자체에서 연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아궁이 불을 피운 거였다.(한국과 달리 연기가 굴뚝으로 가지 않고 그냥 위로 올라가 지붕을 통해 나가게 되있었다.) 그 불은 매일 자원봉사자가 와서 피우는데, 지붕에 습기가 차는 것과 벌레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을 피운다고 했다.

집 안에 작은 전시관 하나가 있었는데(입구 바로 옆에) 전시된 있는 생물들은 모두 잡아서 한게 아니라 이미 죽은것을 주워서 전시를 한 것이라고 했다.(박제 생물 외에 도토리를 이용한 염색, 뱀*벌레의 허물 등이 있었다.)

그렇게 주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관리소 안에서 설명을 들었다. 그곳에 자원봉사를 하러 온 야구단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나서, 조금 걷다가 가져온 빵을 먹고 주위를 산책했다. 해오라기도 보고 감동을 주는 표지판도 보고 사마귀도 보고, 그곳의 생물을 많이 봤다.

에이.비 팀 각자 점심을 해결하고, 저녁에 차이나 타운에서 모였다. 차이나 타운엔 중국 음식들을 파는 가게가 핑-장히 많았다. 여기저기서 군밤도 팔고 찹쌀떡과 만두도 팔고.다시 두팀으로 나뉘 저녁을 먹은 뒤 요코하마의 야마시타 해상공원에서 배를 탔다.

그 안에서 사진도 여러 장 찍고 웃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다.



8월 17일 최영주

몇일간 눈에 익혔던 올림픽 청소년 센터를 떠나려고 아침에 서둘러야만 한 하루의 시작이다.

오늘 가기로한 자연교육원, 국립과학관에서 살짝 맛보기 프로그램을 접한곳이라 호감이 간다. 메구로 역에서 걷는 도심의 거리는 휴일이어서인지 한가하다.

자연교육원은 도시속임을 착각하게 하였다. 자연교육원 안으로 한걸음 들어가는 순간부터 길거리 차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어디 한적한 숲에 와 온 듯하다. 안내를 해주시는 작업복의 연구원 할아버지와 큰키에 모기향을 바지뒤에 매달고 설명하기는 아저씨는 교육원을 산책하면서 생물들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가고 가족과 함께 온 프로그램참가자들은 귀담아 들으며 뒤따른다. 그중 한 꼬마는 열심히 대답하고 묻고 하며 열중하였고 그 꼬마의 물음과 답변에 함께 웃고즐기며 일요 상설 프로그램을 함께 하였다. 점심을 먹고 하라주쿠역에서 널찍한 요요기공원, 이것저것 볼거리를 주는 명치신궁을 둘러서 숙소로 가는데 이젠 다들 친해져서 장난도 자연스럽고 주고 받는 이야기도 많다.

이제 일본에 온 지도 어언 중반에 접어든다. 슬슬 꽤도 나고 향수병이 도진다. 그리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이 없다가도 외국에 나와 3-4일 지나면 구수한 김치찌개와 과일이 먹고 싶고, 한국말로 나오는 드라마와 가요가 듣고 싶어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 나의 해외여행인지라 내심 걱정이 앞선 여행인데 이번에는 함께 지낸 시간이 적잖은 사람들과의 여행이라 덜 하겠지 했는데 보는거 많고 느끼는 거 많고 반성과 다짐이 억눌려진 묘한 휘말림이 감싸온다.

아담한 민박집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남은 일정을 유익하게 함께 하고자 다짐을 한다.

8월 18일 박선미

NICE, JEEF, CONE, TEEN,,,환경교육, 네트워크, 국제관계,,,오늘의 주제다.

점심을 먹은후 몇시간 췌인가? 슬슬 졸려온다. 김미라씨 입 아프겠다.

많은사람들의 의문점을 대변해 주고 있다.

다른나라의 언어를 저리 유창히 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부럽다.

아! 나도 외국어 공부해야겠다.(며칠이나 갈까?)

오늘은 다리꿈을 팔지는 않았지만 머리가 좀 괴로웠다.

하지만 공부의 필요하다는 생각이 줄린순간에도 내 머리를 때렸다.

TV에서 음주 버스운전자 때문에 버스회사의 대표들이 나와 기자회견하는 모습과 음식점에서 불이 나서 사상자가 9명이나 생겼다는 뉴스가 나온다.

(나의 편견이지만) 사고가 날 것 같지 않은 이 동네에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